

2023-1학기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 작품집



공감의 내일이 열립니다
가천대학교 의사소통센터

■ 심사평 / 성장의 기록 이 상 숙 교 수

■ 2023-1학기 수상 작품 소개

- 대상 / 영화「블랙스완」과 「양들의 침묵」으로 본 정신의 분열과 통합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강*린 / 001
- 금상 / 사라져버린 1세대 아이돌, 여성국극을 아시나요? 행정학과 유*연 / 009
- 금상 / AI시대, 인간 존엄을 묻다 한국어문학과 조*린 / 015
- 은상 / 노인 디지털 소외 : 무관심과 교만의 결과 법학과 국*우 / 020
- 은상 / 잔향 경영학전공 김*현 / 027
- 은상 / 노인이라는 타자, 이제는 재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어문학과 안**현 / 031
- 은상 / 교리나 인권이나, 선택의 기로에 서다. 의료산업경영학과 오*인 / 036
- 은상 / ‘악마와 거래한 청소년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범죄 사회복지학과 이*혁 / 041
- 은상 / 양육자의 ‘갈등 회피적’ 양육방식은 자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내면화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간호학과 이*영 / 046
- 동상 / <화려함의 그림자> :뮤지컬 앙상블 배우들의 임금 문제 경제학과 강*영 / 053
- 동상 / 글로 볼까 영화로 볼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심리학과 공*빈 / 058
- 동상 / 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 자유전공 김*서 / 064
- 동상 / 마약 중독자, ‘너’가 아닌 ‘우리’ 심리학과 김*은 / 068
- 동상 / 자연소멸 중인 국가 대한민국 관광경영학과 문*서 / 072
- 동상 / 요일별 공강의 장단점 분석: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중심으로 경영학부 박*현 / 079
- 동상 / 세대론은 ‘편리’해서 ‘불편’하다 경영학부 신*현 / 086
- 동상 / 간호법, 우리 미래를 위한 초석 약학과 은*녕 / 090
- 동상 / ‘더치페이’: 대학생에게 적절한 계산 방법 한국어문학과 이*진 / 095
- 동상 / 의료 윤리와 의료인의 윤리 물리치료학과 임*찬 / 098
- 동상 /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꼭 빠져 몰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유전공 정*준 / 105
- 동상 / 연차와 비례하는 커리어, 몬스타엑스 미술·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 정*윤 / 108

성장의 기록

심사위원장 이상숙 교수

의사소통센터에서 주최하는 2023년 1학기 성과발표회 심사가 끝났다. 대상으로는 간호학과 강*린 학생의 소논문이 선정되었고 금상으로는 한국어문학과 조*린 학생의 칼럼, 행정학과 유*연 학생의 칼럼이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자기성찰, 자기서사, 사회 문화 비평, 자기소개서 등을 다룬 18편의 글을 합쳐 모두 21편의 글이 수상작이 되었다.

대상은 강*린 학생의 소논문 「영화 <블랙 스완>과 <양들의 침묵>으로 본 정신의 분열과 통합」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적용하여 영화 <블랙 스완>을 주인공 나나가 겪는 초자아, 자아, 이드의 분열적 갈등으로, <양들의 침묵>에서는 수사관 클라리스가 범죄자 한니발의 내면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합으로 설정하여 논증한 소논문이다. 두 영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분석학의 기본 이론을 잘 적용했다. 또 두 영화에 대한 개별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통합적인 비교, 대조한 부분도 칭찬하고 싶다. 논문의 구성, 인용, 각주, 참고문헌까지 형식적인 부분도 잘 갖추어진 수작이다.

AI 시대에 인간의 존엄, 윤리, 노동의 가치를 성찰한 조*린 학생의 「AI 시대와 인문학 - AI 시대 인간존엄을 묻다」와 이제는 사라진 여성국극을 현재적 관점에서 살피고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단'과 비교하는 등 다양한 논점을 보여 준 유*연 학생의 「사라져버린 1세대 아이돌, 여성국극을 아시나요?」는 금상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이 외에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글도 수업 중에 기획, 피드백, 수정의 과정을 거친 글들이라 완성도가 높았다. 여기에는 교과 수업 시간으로는 부족한 학생들의 글과 말하기 능력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해주는 의사소통센터의 공도 적지 않을 것이다. AI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 키오스크 앞에서 소외되는 노년층, 촉법소년의 사회적 문제, 동물복지, 대중음악과 예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의견을 펼친 글,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가족, 여행의 의미 등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진지한 글. 모두 기억에 남는다. 어떤 글감의 어떤 결론이었던 주제를 찾고 내용을 모으고 쓰고 고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 인용과 각주, 참고문헌의 형식을 익히고 적용하여 글쓰기 윤리를 지키며 자신의 글을 완성하는 과정 자체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진지한 모습으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의 '글'은 수업 결과물 이상의 의미 있는 성장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영화「블랙스완」과 「양들의 침묵」으로 본 정신의 분열과 통합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1. 서론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나의 모습과 특성, 욕구 중 진짜 나를 나타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진짜 나’를 찾고 싶어 한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이제는 전 국민이 이름을 알고 있는 마이애스-브릭스 유형 지표(MBTI)만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욕망을 엿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을 창안한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논문 「자아와 이드」에서 인간 정신이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으로 나뉘며, 각 개인에게는 정신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조직하는 ‘자아’, 자아를 도덕적으로 검열하고 압박하는 ‘초자아’,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니는 본능인 ‘이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이 중 초자아와 이드 사이의 역동을 자아가 중재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모습이 외부로 드러난다고 보았다.¹⁾

이 글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근거로 개인 정신의 분열과 통합을 다룬 두 영화를 분석할 것이다. 그중 2-1 장에서 영화 「블랙스완(Black Swan)」을 통해 분열을, 2-2 장에서 영화 「양들의 침묵(The Silence of the Lambs)」을 통해 통합을 다루고 2-1 장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바람직한 정신의 통합과 인격적 성숙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다.

2-1. 영화 「블랙스완(Black Swan)」 속 정신의 분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근거해 정신 구조의 분열과 통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두 영화 중 하나는 대런 애러노프스키(Darren Aronofsky) 감독의 영화 「블랙스완(Black Swan)」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촉망받는 발레리나인 ‘니나’다. 니나가 속해 있는 발레단은 새롭게 무대에 올릴 공연으로 ‘백조의 호수’를 선택하지만, 이미 유명한 기존 작품과는 다르게 이번 작품은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백조의 쌍둥이 언니이자 악역인 ‘흑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한다. 발레단의 단장인 토마스는 니나를 포함한 단원들에게 이번 공연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순수하고 고결한 백조와 관능적이고 유혹적인 흑조의 상반된 모습 모두를 제대로 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니나는 백조 역할에 어울리는 훌륭한 실력과 노력으로 단장의 눈에 들어 공연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지만, 토마스는 니나에게 백조에 비해

1) 지크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 윤희기 외 1인(역), 열린책들, 2020, 351~386쪽.

흑조를 표현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면박을 준다. 나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연습에 몰두하지만 흑조 역할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해 좌절을 겪는다. 배역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발레단에서 몇십 년 동안 전설적인 발레리나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원치 않게 니나에게 자리를 내어준 분노로 니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선배 발레리나 ‘베스’와, 니나의 대역으로 들어왔지만 자유롭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니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흑조의 모습을 표현해 니나에게 역할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릴리’, 니나 내면에 존재하는 관능적인 모습을 끌어내야 한다는 이유로 니나에게 성적인 희롱과 추행을 일삼는 단장 토마스의 영향으로 니나는 여리고 연약한 자기 내면이 점점 깨어지는 것을 느낀다.

프로이트가 고안한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통해 「블랙스완」을 보면 영화 속 니나가 겪는 갈등을 니나의 내면에서 초자아, 자아, 이드가 벌이는 무자비한 세력다툼으로 볼 수 있다. 영화의 초중반까지의 니나는 초자아의 과도한 영향 아래 놓여있는데, 이것은 니나의 엄마와 관련이 깊다. 니나의 엄마는 니나를 아이 취급하고 과보호한다. 니나의 방은 온통 분홍색 소품, 침구, 장식품과 인형들로 가득 차 있어 성인 여성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방처럼 보인다. 니나의 엄마는 매일 밤 니나의 방에 찾아와 니나를 침대에 눕힌 뒤 오르골을 틀어주어 재우고, 니나를 때번 ‘아가(sweetheart)’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니나의 엄마가 보이는 통제와 집착의 근원은 영화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니나의 엄마는 28세의 나이에 딸인 니나를 임신해 발레리나의 꿈을 포기했고, 자신을 대신해서 니나가 발레로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실제로 니나 엄마의 방은 본인이 그린 발레리나의 그림과 니나의 초상화로 가득하다. 니나는 엄마의 욕망에서 비롯된 지시와 요구사항을 내면의 ‘초자아’로 거부 없이 받아들인다. 엄지발가락이 부러져 피가 나도 발레 연습을 쉬지 않고,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루 만에 안무를 외우는 집념과 열의를 보인다. 니나는 영화 내에서 반복적으로 ‘완벽’에 집착한다. 백조의 호수 오디션에서 실수를 한 날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 엄마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고, 단장인 토마스의 앞에서, 선배 베스에게도 몇 번이나 ‘완벽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영화 초반 니나의 초자아는 지나치게 강해서 니나는 스스로를 엄격하고 가혹하게 통제하고, 강박적인 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향하는 죄책감과 비난을 떨치려 든다. 그렇게 온순하고 순응적인, 발레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자란 니나는 자신과 정반대인 ‘흑조’ 역할을 맡게 되면서부터 내면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토마스가 말하는 극 중 흑조의 모습과 성격은 ‘이드’의 성질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흑조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다. 또한 쾌락을 추구하고 유혹적이며 공격적이기도 하다. 토마스의 성적인 유혹과 실력에 대한 압박으로 조금씩 새어 나오기 시작한 니나 내면의 억압되어 있던 ‘이드’는 라이벌인 릴리를 통해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우기 시작한다. 완벽주의적이고 통제적인 니나의 발레와 다르게 릴리의 몸짓은 자유롭고 자연스럽다. 니나는 자신보다 흑조에 더 잘 어울리는 릴리를 시기하고 경계하는 한편 릴리처럼 되고 싶어 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영화 중반, 니나는 엄마의 만류와 통제를 거부하고 릴리와 한밤중에 집을 나와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춤을 추며 끝내는 약까지 먹는데, 그 과정에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만취 상태로 릴리와 함께 집에 들어온 니나는 ‘이 시간까지 도대체 누구와 무얼 했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는 엄마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다. 다음날 니나는 자신의 방에서 인형들을 전부 모아 쓰레기통에 던지고, 엄마에게 화를 내며 자신은 더

이상 12 살 아이가 아니라는 말로 독립을 선언한다. 이를 통해 나나는 엄마의 통제를 포함한 이전의 지나친 초자아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서슴없이 드러낸다.

평생에 걸쳐 억눌려온 나나의 이드는 한 번 그 모습을 드러내자 빠르게 몸집을 키운다. 흑조의 탈을 쓴 이드는 나나의 정신만 아니라 나나가 의식하는 자기 육체에도 영향력을 끼친다. 흑조 역할을 맡은 뒤로 나나가 거울을 볼 때 거울 속 나나는 자주 실제 나나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 또한 나나는 멀쩡한 손톱에서 피가 흐르고 자신의 등에서 날개 모양의 상처가 돌아나 점점 커지는 환각을 본다. 초자아가 약해진 틈을 타 나나의 이드는 통제를 잃고 나나의 자아를 잠식한다. 공연 전날이 되자 나나의 정서불안은 더 심해지고, 나나는 자신의 등에 돌아난 흑조의 검은 깃털을 뽑으며 자신이 점점 진정한 흑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공연 당일, 3막으로 이루어진 전체 극 중 1막에서 나나는 백조의 모습으로 파트너와 2인 안무를 하다 그만 파트너를 놓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1막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자신의 실수를 타박하는 토마스 와 파트너 앞에서 나나는 눈물을 보이고, 자신의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대역인 릴리가 자신 대신 2막의 흑조 연기를 준비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끊임없이 나나를 도발하는 릴리의 말을 듣고 거울 근처에서 릴리와 뒤엉켜 싸우던 나나는 헛김에 깨진 거울 조각으로 릴리의 복부를 찔러 그녀를 죽이게 된다. 나나는 릴리를 대기실 구석에 방치한 뒤 2막을 위해 흑조 분장을 하는데, 순간 자신의 등에서부터 팔까지 전부 검은 깃털이 돌아나며 자신이 완전히 흑조로 다시 태어난 것을 느낀다. 나나의 눈은 흑조처럼 붉게 빛나고, 무대로 나간 나나는 흑조가 되어 이전에 그 어떤 연습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완벽한 공연을 펼친다. 2막이 끝나자, 토마스를 비롯한 단원들 모두가 나나의 연기를 칭찬한다. 대기실로 들어가 마지막인 3막의 백조, 즉 흑조의 계약으로 상심해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결말을 연기하기 위해 흑조 분장을 지우던 나나는 아까 분명 자신이 거울로 찔른 릴리가 대기실로 들어와 평범하게 방금 전 연기를 칭찬하자 충격에 빠진다. 나나는 릴리가 방을 나간 뒤 대기실 구석을 다시 확인한다. 그곳에는 아까 본 핏자국과 릴리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 순간 나나는 자신의 배가 따끔거리는 것을 확인하고 복부를 보는데, 아까 분명 릴리를 향해 찔렀다고 생각했던 거울 조각이 나나의 배에서 나온다. 나나는 배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아름답게 3막 연기를 마치고, 관객의 환호가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단원들 앞에서 ‘완벽했어요. 나는 완벽했어요(Perfect. I was perfect)’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며 영화가 끝난다.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은 영화 속 ‘백조의 호수’ 공연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순결하고 깨끗하며 완벽주의적인 백조의 형상을 한 나나의 ‘초자아’는 영화의 1막 격인 초반부에서 나나를 억압하고 통제한다. 영화의 중반부가 되자 흑조와 닮은 ‘이드’가 나나의 등에서 깃털이 돌아나듯 내면에 싹을 틔우고 나나를 휘두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엄마의 과보호와 집착, 완벽함에 대한 압박으로 초반부터 불안전하고 미성숙했던 나나의 자아는 초자아와 이드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자아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나나는 자기 감각, 일상, 기억, 행동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다. 3막에서 흑조의 계약으로 백조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결말 부에서 거대해진 이드와 빈약해진 자아와의 불균형으로 초자아는 죽음에 이르고 나나는 진정한 의미의 흑조가 된다. 나나가 2막 시작 전에 깨진 거울 조각으로

릴리를 찢은 줄 알고 있었으나 사실 자신의 배를 찢었던 것처럼, 초자아와 이드 간의 갈등은 타인이나 외부 요소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과 해를 입힌다. 초자아, 자아, 이드 중 어느 것도 다른 요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나나는 결국 흑조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재인지 환청인지 모를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스스로 찢은 상처로 죽게 된다. 자아가 중재자 역할에 실패하며 초자아와 이드의 욕구 중 어떤 것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채 나나의 정신이 완전히 파괴되고 분열된 것이다.

「블랙스완」은 발레 영화의 탈을 쓴 심리 스릴러 영화로, 초자아와 이드의 갈등과 이를 조정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아로 인해 개인의 정신이 분열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반대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으로 접근했을 때 개인의 내면이 갈등과 위기를 거치지만 결과적으로 훌륭하게 통합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1991년 개봉한 조나단 드미(Jonathan Demme) 감독의 고전 스릴러 영화 「양들의 침묵(The Silence of the Lambs)」이다.

2-2. 영화 「양들의 침묵(The Silence of the Lambs)」 속 정신의 통합

「양들의 침묵」은 미국의 범죄 소설가 토마스 해리스의 소설 ‘한니발 렉터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이다. 영화는 FBI의 여성 훈련생인 ‘클라리스 스타링’이 여자만 죽여 피부를 벗기는 변태 살인마 ‘버팔로 빌’을 잡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신과 의사이자 연쇄 살인마인 ‘한니발 렉터’ 박사를 찾아가 그와 나눈 대화와 자신의 기지를 통해 살인범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에서 한니발 렉터는 그 자신 또한 수도 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인육까지 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이지만, 지능적이고 심리 분석에 능통해 FBI의 명령하에 클라리스는 감옥의 창살을 사이에 두고 그와 대면하게 된다. 첫 대면에서 렉터 박사는 특유의 기괴한 웃음과 강렬한 눈빛, 어투로 스타링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자극하며 기 싸움의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예의 바르고 솔직한 스타링의 모습에 태도를 바꾼 렉터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버팔로 빌의 정체에 대해 힌트를 준다. 버팔로 빌이 살해한 여성은 모두 체구가 컸으며, 그중 몇 명은 발견 당시 목에 나방의 번데기가 들어있었다. 한니발은 나방이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다시 성충으로 ‘변신’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말로 범인에게 지금의 자신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알려준다.

클라리스는 한니발을 심문하는 중 ‘가는 정보가 있으면 오는 정보도 있어야 한다’는 렉터의 말에 자신이 어릴 적 겪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을 얘기한다. 클라리스는 어릴 적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죽고 난 뒤 가게 된 외삼촌의 목장에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끼 양이 도살당하는 것을 목격한다. 양들이 내는 비명을 듣고 양을 살리기 위해 한 마리를 안고 전속력으로 뛰었지만 금세 붙잡혔고, 그날 밤 양들은 결국 도살당하고 만다. 렉터의 질문과 추궁에 클라리스는 그때의 죄책감과 양들의 울음소리가 트라우마로 남아 자신에게 내내 영향을 끼쳤으며, FBI 요원이 되어 살인마를 잡는다면 그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퍼즐처럼 모호하고 불확실한 렉터와의 대화와 개인적인 수사, 긴 추적의 과정 끝에 클라리스는 버팔로 빌의 동기와 정체에 대해 알아낸다. 그는 어린 시절 심각한 아동학대를 겪은 후 자신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체구가 큰 여성들을 죽이고 피해자들에게서 얻은 피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어 진정한 여성으로 '변신'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클라리스는 다른 FBI 요원들이 잘못된 주소를 찾아가 헛물을 켜는 와중에도 홀로 범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그의 집에 잠입하는 데 성공하고, 혈투 끝에 버팔로 빌을 검거하여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다. 결말 부에 클라리스는 버팔로 빌을 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수요원으로 승진하는 자리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는데, 탈옥에 성공하고 자취를 감춘 한니발 렉터에게서 온 것이었다. 영화는 클라리스에게 이제 '양들의 비명이 멈췄는지'를 질문하며 유유히 군중 속에 섞여 사라지는 렉터 박사의 모습을 뒤로하며 끝이 난다.

「양들의 침묵」의 주인공 클라리스 스타링은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죽음과 어린 시절 양들이 도살당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험에서 온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다. 클라리스는 FBI 활동을 통해 무고한 희생자를 막는다면 어릴 적 겪었던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성인 자신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끈기있게 수사를 이어간다. 영화 속 스타링은 FBI에서 진행되는 체력 훈련, 총기 훈련에 매번 성실하게 임하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사는 비교적 초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한니발 렉터 박사는 스타링에게 보이는 정중하고 점잖은 태도와 달리 실상은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로, 심지어는 살인한 뒤 인육을 먹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인물이다. 그의 위험성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충동성,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면모는 앞서 「블랙스완」에서 본 이드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블랙스완」 초반부의 니나처럼 상대적으로 이드보다 초자아의 성향을 더 강하게 띠는 스타링은 한니발 렉터와의 만남으로 그를 통해 그의 이드적 성향을 흡수한다. 스타링은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에도 렉터와의 면담을 통해 그가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한다. 렉터의 입을 빌려 '버팔로 빌'의 내면의 욕구와 파괴성을 듣고 그것을 자기 내면으로 받아들여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스타링은 버팔로 빌의 거주지를 알아내고 연쇄 살인이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블랙스완」의 니나와 「양들의 침묵」의 클라리스 스타링이 초반에 영화에서 보인 모습은 강한 초자아에 비해 이드가 표출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드가 자극받자 니나의 자아가 결말 부에 가서 힘을 잃고 분열된 데 비해, 스타링은 세 가지 정신 구조를 현실에서 훌륭히 통합해 무고한 범죄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동시에 FBI 요원으로서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데에는 두 영화의 장르적 차이와 이야기 전개에 차이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 사례를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두 인물이 영화 속에서 내면의 변화를 보이는 지점을 찾아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블랙스완」에서 니나가 억압되었던 자신의 이드를 표출하는 과정은 자신의 의지나 인식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모두 타인에 의한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니나가 이드를 드러내는 데 영향을 끼친 니나의 엄마, 단장 토마스, 동료이자 라이벌 릴리, 발레단 선배 베스 모두 니나가 자기 내면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자아의 영향을 약해지게 만든다. 니나는 그들의 도발과 권유로 충동적으로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성적인 행동을 하며 감정을 표출하지만, 그 과정 중에도 자기 욕구의 근원을 알지는 못한다. 니나의 억압된 이드와 그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초자아는 무의식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니나의 행동을 더욱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그 과정에서 니나의 자아는 점점 주도권을 잃고, 초자아와 이드 사이의 줄다리기는 니나의 내면과 외면을 망친다.

반면에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박사는 살인 행각이 밝혀져 체포당하기 전까지 정신분석 치료를 하던 유능한 정신과 의사였다. 렉터가 스탈링에게 하는 사적인 질문들은 단순 질문이 아니며 그 자체로 ‘심리 치료’의 양상을 띤다. 렉터는 여러 번의 면담을 거쳐 스탈링이 자기 입으로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털어놓게 만든다. 처음에 스탈링은 사건에 대한 렉터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면담 과정 중 스탈링이 머뭇거리거나 표정이 진지해지는 모습과 양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통해 스탈링의 자기 고백이 내면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탈링은 렉터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말로 정리하고, 여러 차별적인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FBI 요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욕구의 근원에 어릴 적 구하지 못했던 양들에 대한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자기 성찰을 통해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던 욕구와 동기, 근원적인 감정들을 의식 밖으로 꺼내면서 스탈링은 초자아, 자아, 이드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두 영화의 주인공이 비슷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정신의 분열과 통합이라는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은 데에는 ‘무의식적 욕구와 억압을 의식화한 경험’의 유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이 글은 「블랙스완」과 「양들의 침묵」이라는 두 영화를 통해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다른 구조인 초자아, 자아, 이드가 갈등 끝에 분열되고 파괴되는 경우와, 반대로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인격적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는 상반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두 가지 사례가 정반대의 결과를 낸 이유를 ‘성찰을 통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의 유무로 결론지었다.

이 글은 정신의 분열과 통합의 예시로 영화 속 등장인물을 들었지만, 내용이 일상적이지 않을 뿐 정신 구조의 갈등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불편과 같은 문제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 결론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영화의 장면들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임상 사례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창작물인 영화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실제 임상 사례를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지크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 윤희기 외 1인 번역, 열린책들, 2020, 351~386 쪽.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대상 간호학과 강*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간호학과 강*린입니다. 이 글은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의 기말 과제물로, 수업 중 배웠던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를 분석하고 비평한 소논문입니다. 평소에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본 뒤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제로 기말 소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제를 정하고 '초자아', '자아', '이드'의 세 정신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화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했을 때 곧장 떠오른 영화가 「블랙스완」이었습니다. 「블랙스완」의 주인공은 우연한 기회로 무의식 속 숨어있던 욕망에 눈을 뜨면서 점점 내면의 파괴와 분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분석의 대상으로 이 영화를 떠올리자, 「블랙스완」과는 반대로 결말에서 주인공이 내면의 성숙과 통합을 경험하게 되는 영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고민 끝에 「양들의 침묵」이 비교 사례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영화의 내용을 소개한 뒤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를 분석하고, 그 후 두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결론을 짓는 것으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논문의 주제를 정한 뒤 두 영화를 몇 년 만에 다시 보았습니다. 특정한 이론을 틀로 잡아 이렇게 길게 영화를 분석하는 글을 쓰는 것은 '대학글' 수업에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2시간이 넘는 긴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도, 영화의 특정 장면을 묘사한 뒤 이론에 근거해 분석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것도, 영화에 대한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결국은 제가 좋아하던 일이라, 비록 과제였지만 순수하게 몰입해 즐겁게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더 기쁩니다.

수업 과정 중 있었던 몇 번의 글쓰기 과제에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의 이인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라져버린 1세대 아이돌, 여성국극을 아시나요?

웹툰 <정년이>의 주인공 정년이는 타고난 소리 실력을 갖춘 목포의 소녀이다. 정년이의 꿈은 단 하나, 부자가 되는 것. 정년이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리고 ‘돈을 가마니로 번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여성국극 배우가 되기로 다짐하고 서울로 올라간다. 어찌어찌 ‘매란국극단’에 막무가내 연구생으로 입단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모두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중간에 굴러들어온 돌인 정년이에게 주연은 넘볼 수조차 없는 자리였다. 정년이는 매란국극단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림 1 웹툰 ‘정년이’ © 네이버 웹툰

정년이가 대스타가 되어 떼돈을 벌기 위한 여정을 다루는 시대극 웹툰 <정년이>, 내가 우연히 이 만화를 접한 것은 4년 전 여름이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작년 봄에 정년이의 3년간의 여정이 막을 내렸다. 긴 시간 동안 나는 계속 정년이와 여성 국극단의 여정을 응원했다. 완결 이후 나는 정년이의 이야기를 잊고 살아가다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국립창극단에서 창극 <정년이>가 개막한다는 소식이었다. 현대 사람들에게 생소한 극 장르일뿐더러 웹툰이 원작인 창극이 흥행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하게 전석 조기 매진에 추가 회차 오픈까지 창극은 대성공을 이뤘다. 정년이와 여성국극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판소리도, 가면극도 그냥 국극도 아닌 ‘여성국극’에 대해 들어봤는가? 나 또한 <정년이>를 접하기 이전에는 여성국극에 어떠한 관심조차 없었다.

*“여성국극,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그의 몰락에 안타까운 마음은 꿈속에서도 못 잊는다.
먼저 가신 분들과 꿈속에서도 여성국극의 무대를 분주히 오간다.”¹⁾*

인간문화재 조영숙 명인이 여성국극을 기리며 쓴 <여성국극의 뒤안길>의 한 구절이다. 수많은 팬을 거느리며 여성국극 배우들이 찬사를 받던 시절은 분명히 존재했는데 지금은 여성국극을 기억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여성국극을 즐겼던 이들 몇 명만이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제는 아득히 멀어진 옛날을 그리워할 뿐이다. 여성국극은 우리 역사 속에서 소멸하기 직전에 놓였다. 삶을 바쳐가며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연기한 시절 전체가 고스란히 잊히는 과정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조영숙 명인의 마음을 차마 헤아릴 수 없다. 여성국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문화들이 잊히고 있으며 우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어지고 있다. 나는 1950년대 전쟁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대중문화 깊이 자리 잡았던 여성국극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체 여성국극이 뭘까? 여성국극은 문자 그대로 오직 여성들만이 배우인 극으로 창극의 한 갈래로서의 연극의 한 장르이다. 따라서 여성 국악인이 남장하고 공연한다. 여성국극의 간략한 역사는 이러하다. 1948년 국악원에서 여성만이 나와 여성 국악동호회를 조직해 <옥중화>라는 극으로 창립공연을 올렸다. 이후 <햇님달님> 공연으로 큰 인기를 얻고 창극계를 압도해 6.25 전쟁 중에서도 피난처에서 계속 공연을 이어 나갔다. 여성국극의 인기와 함께 얻은 막대한 돈은 단원들을 분열시켰고 동호회는 해체되고 만다. 이후 다른 여성 국극단이 생기고 전성기는 잠깐 이어졌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1960년대 초에 몰락을 맞이했다.

여성국극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여성국극이 얼마나 큰 인기를 누렸는지 알아야 한다. 여성국극은 당대의 대중문화, 트렌드였다. 2023년의 대중문화를 꼽자면 당연히 아이돌이라 할 수 있다.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등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떠오르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아이돌 그룹을 시기에 따라 흔히 4세대 아이돌이라고 분류한다. 그러나 어찌면 이들을 5세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여성 국극단은 1950년대의 아이돌 그 자체였기에 이들은 1세대 아이돌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극단은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팬들이 많았다. 팬덤의 모습 또한 지금의 연예인 팬덤을 떠올리게 한다. 뉴스와 잡지에는 극에 관한 기사부터 배우들의 생활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임춘앵과 함께 당대 톱스타였던 여성국극 배우 김진진은 “오빠 부대? 그런 건 뭘 게 아니야. (팬레터가) 전부 혈서야.”²⁾라고 말했다. 애정을 담은 팬레터를 혈서로 써 보내는 팬, 극을 보기 위해 가출하는 팬들은 기본으로, 배우에게 집안의 패물을 갖다 바치거나 극단적인 팬의 자살 소동이나 납치 시도까지 있었다. 심지어는 열성 팬의 부탁 끝에 배우와의 가상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정년이>의 정확한 배경은 1956년, 6·25전쟁 휴전 협정 3년 후였다. 이는 여성 국악동호회가 해체된 후이지만 여전히 여성국극 전성기의 한 때였다. 만화 속에서도 극단에 찾아와 배우의 연습을 구경하는 팬이나 가상결혼식을 올린 사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1) 조영숙, 『여성국극의 뒤안길』, 민속원, 2022.10.5.

2) 이광현, 「여성국극의 맥」, 경향신문, 1984.11.21.



그림 2 국극 배우 조금앵이 팬과 올린
가상결혼식 사진 © 한국일보

어떻게 여성국극이 잊히게 된 걸까? 여성 국극의 쇠퇴 이유로 주로 라디오와 영상 매체의 확산이 거론된다. 점점 관심이 식어가는 와중 후진 양성에 미흡했기 때문에 몰락은 더 빠르게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한 대중문화가 아주 몰락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이면이 숨겨져 있다. 1957년 동아일보는 여성국극에 본격적으로 남녀 혼성창극단이 창립되어야겠는데 아직도 여성들만의 단체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극인 여성국극은 진정한 국극이 아니라는 평을 받았으며 여성국극이 국악의 원형을 퇴보시켰다는 폄하를 받았다. 여성국극을 진력이 나고 되먹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 3 1958년 9월 10일 여성국극을
헐뜯는 동아일보 기사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50년대 말은 근대화 직전, 서구문화를 배척하고 전통을 중시하던 시기였다. 그런 시기에 남성 중심의 예술에서 벗어난 완전한 여성 중심 예술은 '전통'에 부합하기 힘들었다. 근대화가 추진되는 시절에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는 등 국가의 배척과 이미 국악 자체에 줄어든 관심과 국악인의 감소 등으로 이미 재기가 불가해졌다. 결국 여성국극의 몰락 이유는 사회상에 있었다. 나는 뛰어난 우리 문화를 스스로

파묻은 상황이 참 원망스럽다. 이렇게 여성국극은 여러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짧고 굵은 전성기 끝에 안타깝게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

내가 유난히 여성국극의 몰락에 탄식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여성국극이 몰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단'에서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세계의 문화나 일본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한국에는 다소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가극단이다. 당연히 모든 단원이 여성이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의 성화 봉송을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단원이 했으며, 개·폐막식에 출연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다카라즈카 가극단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 다녀야 한다. 퇴단 후 다시 복귀할 수 없고, 외부인이 조연으로도 출연하지 않는다. 소속 단원들이 외부 무대나 TV 프로그램에도 거의 출연하지 않는다. 다카라즈카 가극단도 TV가 보급되며 잠시 인기가 떨어져 여성국극과 비슷한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다카라즈카는 당대 일본의 인기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를 무대화해 다시 복귀에 성공한다. 다카라즈카에서 남역을 맡는, 즉 왕자가 되는 단원은 특히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여성국극도 마찬가지였다. 다카라즈카와 여성국극의 차이는 표현방식과 재기에 성공했는지 정도뿐이다. 다카라즈카는 다소 폐쇄적으로 음악학교 또한 군대와 자주 비교될 정도로 엄격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다카라즈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심을 다했는지는 알 수 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일본의 대규모 민영 전철 회사 한큐 전철의 산하에 있다. 한큐 전철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 덕분에 다카라즈카는 일본에서 지금도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국극 배우들이 뒤늦게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개인의 힘으로 문화를 다시 부흥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정년이>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우리 역사대로 작품이 진행됐더라면 정년이는 매란국극단에서 배우 생활하다 곧 여성국극의 몰락을 맞이하게 된다. <정년이> 또한 여성국극은 점차 인기를 잃어가다 정년이와 동료들만이 작은 극장에서 마지막까지 극을 이어나가는 비극으로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년이>는 다른 선택을 한다. 결말에서의 여성국극은 여전히 전성기를 맞고 많은 사람이 여성국극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 앞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여성국극을 폄하하는 글을 쓴 이는 동일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1959년에 국립극단의 단장이 되었다. 만일 여성국극도 많은 오해와 폄하가 아닌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받았다면 다카라즈카와는 다른 양상의 우리의 극이 아직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성국극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억눌렸던 여성들이 극에서는 한계 없이 모든 역을 맡으며 누군가에게는 해방의 의미를, 한국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성국극은 우리 역사 깊이 굳건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억하는 일은 우리 역사를 잊지 않는 일이다. 혹시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돈을 모아 좋은 자리의 여성 국극 표를 얻었다며 호들갑을 떨고, 우연히 본 극에서 '최애' 배우가 생겨 지금쯤 마음을 담은 팬레터를 쓰며 다음 극을 보겠다며 다짐하고 있었을지.

참고자료

김진혜, 「1950년대 여성국극의 단체활동과 쇠퇴과정에 관한 연구」 제27권 2호, 한국 여성학, 2010.12.3.

이광현, 「여성국극의 맥」, 경향신문, 1984.11.21.

조영숙, 『여성국극의 뒤편길』, 민속원, 2022.10.5.

조선일보, 1958.8.8.

동아일보, 1958.9.10.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금상 행정학과 유*연

나는 행정학과로 가천대학교에 입학하여 다양한 글쓰기 교과 중 '인문사회글쓰기'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다. 수업의 이름을 들었을 때, 글쓰기 매뉴얼을 통해 얼추 모양새만 갖춰진 글을 꾸며내는 기술을 가르칠 그것으로 생각했으나 교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글을 쓰게 하며 작문의 토대를 갖추 수 있게 했다.

처음으로 글 과제가 주워졌을 때 느낀 낭떠러지를 마주한 듯한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걷는 법을 처음 배우는 아기는 뒤통거리는 것이 최선이다. 글과는 담을 쌓고 살던 나의 글 또한 딱 그러했다. 그렇게 미숙했던 내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학기 동안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담긴 최종 결과물이 이번에 쓴 여성국극에 대한 칼럼이다. 사람들에게 생소한 주제를 선정했기에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내 품고 글을 썼다. 그러나 동시에 하고 싶은 말을 고르고, 불필요한 문장을 덜어내거나 흥미를 위해 전략적으로 글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좋은 글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나만의 글을 쓰는 매력에도 푹 빠지게 되었다.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읽을법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글을 통해 말을 전하고 싶다. 적어도 부족한 점 또한 많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이 글을 많은 사람이 읽어주길 바란다.

AI 시대, 인간 존엄을 묻다

AI 시대가 도래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챗GPT, 번역기, 빅데이터에 의한 알고리즘 등 이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알파고가 세계 랭킹 4위의 9단 이세돌을 이겼던 그날만 해도, 2016년 3월, 인공지능이 뭘지 개념도 없던 그때, 충격적인 인간의 패배를 인정하기엔 우리는 혼란스러웠고, 시간이 필요했었다. 변칙수와 창조적으로 바둑을 두기로 유명한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을 결정한 알파고는 빅데이터로 무장하여 인간과의 대국을 펼쳤고 3연패 후 이세돌 9단의 4번째 대국의 첫 승리는 오히려 인간에게 감격적 위로가 되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본이 밀반침될수록, 더 발전적인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가 강해질수록 이 시대에는 더욱 AI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탄생한 2017년 AI로봇 소피아만 보더라도 AI에 밀려 점점 좁아지는 인간의 입지를 실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한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간의 일자리마저 AI에게 뺏겨 인간의 영역과 정체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시대 아닌가. 웬만한 식당에서는 키오스크와 입력된 로봇의 서빙, 물류창고 로봇의 상용화, 요리하고 수술하고 운전하고 재판하고 번역하고 예술까지. 입력된 빅데이터에 의해 지치지 않고 인간의 몫을 몇 곱절이나 거뜬히 감당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인문학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간은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부품화되어 소외되었으며, 노동착취와 부의 불균형으로 인간은 존엄성 자체를 부정당했던 역사적 경험들이 존재해왔다. 그럴 때마다 인간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주체적인 삶으로 이끈 건 인간의 의식을 주도한 인간 존엄의 인문 정신이었다.

그러나 인문학은 어떤 취급을 받아 왔는가. 현재 인류는 21세기, 고도로 발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은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서 인문학은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이라는 타이틀을 단 채 경시되고 있다. 국가의 주요 정책들도 과학과 기술에만 투자한 결과이지 인문학은 그 존재 가치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문학이 과연 과학과 기술에 의해 밀려나 미래 세대에는 존재 가치조차 없는 분야일까. 기술의 흐름에 인문학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AI와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¹⁾ AI는 인공지능으로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 중 하나이고, 인문학은 인간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의 뿌리에 있는 인문학적 사고로 지금의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인문학은 우리 삶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고대 그리스를 떠올려보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인 동시에 수학자였고 과학자였다. 스피노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듯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바탕이 되

1) 류용재, 「인문학, 위기담론을 넘어야」, 『한겨레』, 2022.01.11.

고 사유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응용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²⁾

또한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나고 삶의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한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문학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볼 수 있고 과거를 발판 삼아 도약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다. 이것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양을 필수로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³⁾ 딱딱한 과학과 기술로만 뒤덮인 세상 속에서 평화로운 쉼터를 제공하는 곳, 그것이 인문학이 수천 년간 살아남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매년 닥치는 인문학의 위기와 맞닥뜨릴 때마다 인문학은 오히려 인문학만의 특징으로 또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그 빛을 잃지 않고 있다.

한편 과학계에서는 과학과 만난 기술의 정수로서의 인공지능 로봇이 인문학의 주인인 인간의 삶의 가치와 방식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한다.⁴⁾ 해방된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어 생산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는 인간을 상상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연 그것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어떤 의미에서의 ‘해방’인지 되문게 되지만 말이다. 해방되었다는 그 ‘노동’은 또 무엇인가. ‘인간이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행하는 활동’⁵⁾인데, 이러한 노동에 대한 고민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자본에 의해 대량생산을 위한 생계형 땀을 제공하는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노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동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 자신에 대한 긍정을 가능케 한다”⁶⁾고 했다. 이렇듯 노동의 본질에 의하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세상에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노동은 생계 수단인 동시에 자아실현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인 셈이다. 따라서 노동의 본질적 성격을 다시금 성찰하여 인간성의 차원에서 새롭게 전망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주체에 대해 정의하고 전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어서 소비자의 윤리적 토대가 되는 디지털 시민성, 즉 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시민들이 더 책임감 있고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자율 주행 자동차의 윤리 인증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결코 간단하지 않다. 물론 국가나 지역에 따라 문화적 차이로 나타나는 다른 가치관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피치 못할 사고에서 노인보다는 젊은이를 구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는 자율 주행 자동차를 인공지능 AI만의 독립적인 빅데이터의 정보에만 의존해서 판단하기에는 부여된 면죄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윤리적 접근 및 인문학적 탐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문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찾으면, 이를 통해 기술문명이 만들어 가는 미래사회에서도 인간 존엄과 인간다움을 최상의 가치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문 정신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창의적으로 재정립시킬 수 있게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인간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사람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인문학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은 스토리텔링이다.⁷⁾

2) 김재현, 「김재현의 사회 칼럼」인문학의 필요성, 『미디어 경청』, 2021.10.27.

3) 이명균, 「인문학의 중요성, 필요성, 교육방법」, 『경북매일』, 2022.09.06.

4) 「[로봇 미래예측 2030 대담회]“AI+로봇, 노동해방 시대 온다”」, 『etnews』, 2021.12.20.

5) 배무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필로소피 미디어, 『출근길엔 니체 퇴근길엔 장자』, 박주은 옮김,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22.

인공지능 AI가 태어난 지 60년이 되었다. 인간의 욕구와 자본, 기술이 지속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시대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인간은 디지털 사고방식을 키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간은 사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향하는 미래를 예측하여 인공지능 AI와 협력하고 공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문학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인문학이 빠진 기술 발전은 기계가 주인인 주객이 전도된 사회로 흘러갈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기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제는 디지털 인문학이다. 다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순간도 진실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이다. 인공지능 AI의 삶은 곧 인간 삶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AI의 삶을 마주하는 21세기의 인간은, 보편적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다루고 있는 인문학-고전에 대한 탐구로부터 재부팅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양의 고전⁸⁾에서 지혜를 얻어 융합의 시대를 소외가 아닌 소통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AI시대,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문학이 더욱 요청되는 이유, 즉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만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하자.

7) 김영민, 「인문학을 위한 인문학자에 의한 인문학적 설득」, 『The JoongAng』, 2022.11.10.

8) 고전은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작품으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에 담아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그 고전을 인용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효과가 있다.” 세계일보, 2010년 5월 참고

<참고문헌>

- 김영민, 「인문학을 위한 인문학자에 의한 인문학적 설득」, 『The JoongAng』, 2022.11.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6381>, 2023.05.21.
- 김재현, 「[김재현의 사회 칼럼]인문학의 필요성」, 『미디어 경청』, 2021.10.27., <https://www.goeonair.com/news/article.html?no=24914>, 2023.05.18.
- 류웅재, 「인문학, 위기담론을 넘어야」, 『한겨레』, 2022.01.11.,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26752.html>, 2023.06.11.
- 배무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2674>, 2023.06.11.
- 변순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로봇 기술로 인한 삶의 전도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 『인문정책연구총서』, 서울교육대학교, 2019.
- 안정임, 최진호, 「디지털 시민성 역량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57호,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소, 2020, 133~177쪽.
- 이경희, 「“고전,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수백권 독서 효과”」, 『세계일보』, 2010.05.03., <https://www.segye.com/newsView/20100502001863>, 2023.06.11.
- 이광형, 「AI혁명, 다음이 온다」, 『KBS 다음이 온다』, 2022.09.11.
- 이광형, 「AI와 함께 사는 미래, 인문학 더욱 중요해질 것」, 『KDI경제정보센터』12월호, 2020.12.04.
- 이명균, 「인문학의 중요성, 필요성, 교육방법」, 『경북매일』, 2022.09.06.,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171>, 2023.05.18.
- 이재유, 『마르크스의 자본론 : 자본은 인간을 해방할 수 있는가』, EBS 오늘 읽는 클래식, 2022.
- 전자신문, 「[로봇 미래예측 2030 대담회]“AI+로봇, 노동해방 시대 온다”」, 『etnews』, 2021.12.20., <https://www.etnews.com/20211219000035>, 2023.06.11.
- 필로소피 미디어, 『출근길엔 니체 퇴근길엔 장자』, 박주은 옮김,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22.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금상 한국어문학과 조*린

2023-1학기에 수강한 '인문 사회 글쓰기' 수업은 기본적인 글쓰기 구조와 윤리를 배우고 이를 다양한 종류의 글에 적용하여 인문 사회적 사고력을 고양하는 수업이었다. 수업 방식은 교수님의 강의 후 학생 개개인의 생각을 발표하고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를 통해 다른 학생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이는 사고의 확장에 도움을 주었다. 과제로는 매 수업이 끝날 때 글쓰기 과제가 부여되었으며 다음 시간 전까지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한 편의 글을 초고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고 그 결과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 특히 교수님의 피드백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형식적인 피드백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맞춤 피드백으로 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수정 방향을 함께 제시해주셔서 처음 써보는 형식의 글도 자신 있게 적어내려갈 수 있었다.

'인문 사회 글쓰기' 수업은 나에게 글쓰기 능력 향상을 비롯해 인문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 주었다. 수업에서 배운 글쓰기 윤리는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적어 내려가는 '글쓰기'를 비롯해 지문 '읽기', 발표를 통해 효과적으로 '말하기' 등 전반적인 국어 실력 향상을 가져다준 수업이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몰랐던 정보를 조사하고 책을 찾아보며 보다 많은 지식을 배워갈 수 있었고 이러한 지식들은 수업에서 배운 인문학적 사고 능력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수업은 기본적인 글쓰기를 결집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노인 디지털 소외: 무관심과 교만의 결과

I. 서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 디지털 소외’의 사례를 많이 목격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지 못하는 할머니,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택시를 잡지 못하는 할아버지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노인을 흔히 봐 왔다. 그러면 ‘노인 디지털 소외’란 무엇인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소하지만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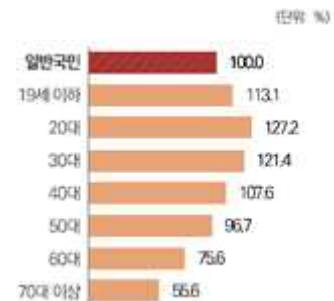
노인 디지털 소외는 어떠한 문제보다 심각하고 당장이라도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디지털 기기 이용을 당연하게 여기기에 ‘노인 디지털 소외’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에 무관심하다. 더불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교만에 빠져있다. 이 글을 읽으며 앞에 제시된 노인 디지털 소외의 사례만을 떠올렸다면 이는 당신이 노인 디지털 소외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노인 디지털 소외란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디지털 정보 격차에서 끝나지 않고, 인식과 생각, 문화 등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어 '소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¹⁾ 즉, 노인 디지털 소외는 불편만을 발생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노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노인 디지털 소외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겠다.

II. 노인 디지털 소외의 문제성

1. 노화와 디지털 포용 능력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애인	92.0	92.6	95.4	95.6	96.7
고령층	90.1	90.6	92.8	93.1	95.1
저소득층	94.9	95.2	98.3	98.7	99.5
농어민	91.0	91.3	94.8	94.9	95.7
취약계층 평균	91.1	91.7	93.7	94.4	96.0

※ 대한국인의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대한민국 대비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을 의미



▲<표1>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²⁾

▲<그래프1>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³⁾

- 1) 통계청, 「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모두가 편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 공식 블로그』, 2020.06.17, https://blog.naver.com/hi_nso/222003823487, 2023.05.26.
-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 40쪽.
- 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 39쪽.

위 표를 통해 4대 정보 취약 계층 중 고령층이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는 19세 이하를 제외하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고 그에 따라 노화된다. 인지 및 정신 기능의 측면에서 노인은 노화로 인하여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유동성 지능이 감퇴한다. 더불어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약화된다. 그뿐만 아니라 노년기에는 반응 속도의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의 쇠퇴가 일어난다.⁴⁾ 이를 통해서 노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해 디지털 적응 능력이 부족해지며 정보 취약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소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인 디지털 소외 해결의 필요성

노인 디지털 소외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인간이 노화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 문제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⁵⁾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며 사회는 변화한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수는 그렇지 않은 구성원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회는 혼란해질 것이고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3. 노인 디지털 소외의 전개

4차 산업혁명과 ICT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인해 디지털화, 서비스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디지털 소외가 발생했다.⁶⁾ 하지만 디지털 소외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려는 문화가 형성되며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⁷⁾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과 언택트의 편리함이 부각되며 디지털 소외가 심화되었다. 현재는 점포, ATM, 금융상품 등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3무 시대'를 맞았다. 비대면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은 고령 금융 소비자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위 은행의 2020년 말 ATM은 2만 2343대였고 이후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말 2만 714대로, 이 기간에 1629개(7.3%)가 줄었다. ATM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응대가 가능한 대면 점포 역시 비슷한 속도로 줄고 있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대면 점포 수는 2020년 말 4424곳이었으나 2021년 2월 말 기준 4107곳으로, 1년 2개월 동안 317곳(7.2%) 감소했다.⁸⁾

▲<그림1>⁹⁾

4) 원석조, 『노인복지론』, 지식터, 2023.03, 53-56쪽.

5) 통계청, 「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모두가 편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 공식 블로그』, 2020.06.17, https://blog.naver.com/hi_nso/222003823487, 2023.05.26.

6) 황남희, 김혜수, 김경래, 주보혜, 홍석호, 김주현,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연구보고서』 2020-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 9쪽.

7) 조유민, 「“언택트 시대, 가속화되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해법은?”」, 『라이프인』, 2021.01.2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830>, 2023.05.26.

8) 문일호, 서정원, 명지예, 「“비대면 적금 이자 더 준다지만, 막막”...디지털 금융서 소외된 고령층」, 『매일경제』, 2022.04.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44120?sid=101>, 2023.05.26.



디지털화로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를 줄여 비대면 적금 가입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려는 은행에, 은행에서 대면으로 가입하는 노인들은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작년 기준 20, 30대 가입자의 77.4%가 비대면 적금 가입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반면 60대 이상이 우대금리를 받은 비중은 19.4%에 그쳤다.¹⁰⁾ 이를 통해 디지털 소외가 금융 소외에까지 영향을 주며 노인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해결책

1. 법 제도 현황

2009년 정보 격차 해소 및 예방에 관련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통합되었다.¹¹⁾ 이에 디지털 소외를 해결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정계획과 관계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협업을 위한 기구조차 부재하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 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개발 확산 촉진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정보격차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이 소극적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2021년 1월 15일 강병원 의원 등 15명이 ‘디지털 포용 법안’을 발의하였다.¹²⁾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1월에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청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조차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¹³⁾ 이후 2022년 11월 ‘디지털 포용 법안’을 박성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였지만, 이 역시도 위원회 심사조차 넘어가지 못한 상태이다.¹⁴⁾

9) 문일호, 서정원, 명지예, 「“비대면 적금 이자 더 준다지만, 막막”...디지털 금융서 소외된 고령층」, 『매일경제』, 2022.04.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44120?sid=101>, 2023.05.26.

10) 문일호, 서정원, 명지예, 「“비대면 적금 이자 더 준다지만, 막막”...디지털 금융서 소외된 고령층」, 『매일경제』, 2022.04.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44120?sid=101>, 2023.05.26.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 이유」, 『정보격차해소에관한 법률 [시행 2001. 4. 17.] [법률 제6356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030101&lsiSeq=54183&ancYd=20021218&nwjOYnInfo=N&ancNo=06795&chrClsCd=010202&efGubun=Y#0000>.

12) 강병원, 「키오스크, 저만 불편한가요? 디지털 포용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블로그』, 2022.01.13, <https://blog.naver.com/kangbw89/222620830671>, 2023.05.26.

13) 현기호, 「'디지털 포용법' 2년째 국회서 허송세월, 이유는?」, 『이코리야』, 2022.09.27,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78>, 2023.05.26.

14) 박성중 의원 등 11인, 「디지털포용법안」, 의안정보시스템, 2023.05.2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N2M1L1A0K7M1C0X5S1C4S5W8A9N7.

2. 국외 사례

노화로 인한 노인의 디지털 소외는 국가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중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디지털 소외 해결법에 대해 논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일본 또한 노인 디지털 기기 이용률이 매우 낮고 디지털 활용 능력 또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설문조사 결과 노인 디지털 기기 이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이고 두 번째는 ‘사용법을 몰라서’이다. 이에 일본 중앙정부는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대응을 해왔다. 일본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노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노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했고 코로나19의 이후 일본 정부는 정보화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20년 7월 총무성에서 개최된 경제 재정 자문회의에서「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을 발표하였는데, 발표내용에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정보통신에 관한 현황 보고」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 정부의 노인 정보화 지원 정책에는 ICT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정비 지원금 제공, 디지털 활용 도우미 사업 등이 있다.¹⁵⁾

3. 해결책

가장 먼저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법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소외에 관련된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일본 역시 노인 디지털 소외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관련 법을 제정하여 제도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틀 없이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꾸준히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 디지털 소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의 제정으로 기틀을 마련한 후에는 노인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대면 노인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각 행정 복지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서 문제의 당사자들이 디지털 소외의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은 키오스크 이용 등 생활 속 작은 불편함만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전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경제적 손해 역시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에 이자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대적인 홍보로 노인이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각 행정 복지 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한다면 행정 복지 센터는 동 단위로 있으므로 접근성이 좋아 노인이 더욱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 복지 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 시행 진행 상황을 보다 쉽고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통해 대안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변화와 위기에 적응력을 높이는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

15) 황남희, 김혜수, 김경래, 주보혜, 홍석호, 김주현,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연구보고서』 2020-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 73-88쪽.

은 성공적 노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¹⁶⁾ 노인 디지털 역량 교육은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디지털 소외 관련 법 제정과 노인 디지털 역량 교육 시행은 사회문제 해결과 성공적인 노화에 기여하므로 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소외를 해소해야 한다.

16) 박진숙, 김남숙. 「노인의 디지털리터러시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에서 인지유연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제12권 제4호』, 2021, 2407-2422쪽.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 박진숙, 김남숙, 「노인의 디지털리터러시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에서 인지요연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제12권 제4호』, 2021, 2407-2422쪽.
- 원석조, 『노인복지론』, 지식터, 2023.03, 53-56쪽.
- 황남희, 김혜수, 김경래, 주보혜, 홍석호, 김주현,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연구보고서』 2020-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 9쪽.
- 황남희, 김혜수, 김경래, 주보혜, 홍석호, 김주현,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연구보고서』 2020-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 73-88쪽.

2. 기타 자료

- 강병원, 「키오스크, 저만 불편한가요? 디지털 포용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블로그』, 2022.01.13, <https://blog.naver.com/kangbw89/222620830671>, 2023.05.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 이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 2001. 4. 17.] [법률 제6356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030101&lsiSeq=54183&ancYd=20021218&nwJoYnInfo=N&ancNo=06795&chrClsCd=010202&efGubun=Y#0000>.
- 문일호, 서정원, 명지예, 「“비대면 적금 이자 더 준다지만, 막막”...디지털 금융서 소외된 고령층」, 『매일경제』, 2022.04.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44120?sid=101>, 2023.05.26.
- 박성중 의원 등 11인, 「디지털포용법안」, 의안정보시스템, 2023.05.2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N2M1L1A0K7M1COX5S1C4S5W8A9N7.
- 조유민, 「“언택트 시대, 가속화되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해법은?”」, 『라이프인』, 2021.01.2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830>, 2023.05.26.
- 통계청, 「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모두가 편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 공식 블로그』, 2020.06.17, https://blog.naver.com/hi_nso/222003823487, 2023.05.26.
- 현기호, 「'디지털 포용법' 2년째 국회서 허송세월, 이유는?」, 『이코리아』, 2022.09.27,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78>, 2023.05.26.

3. 사진 및 표 자료

- 문일호, 서정원, 명지예, 「“비대면 적금 이자 더 준다지만, 막막”...디지털 금융서 소외된 고령층」, 『매일경제』, 2022.04.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44120?sid=101>, 2023.05.26.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 40쪽.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 39쪽.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법학과 국*우

이정아 교수님의 <인문 사회 글쓰기> 강의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저의 글쓰기 능력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글쓰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표절과 글쓰기 윤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글쓰기 윤리와 표절의 범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용과 주석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이를 적용하여 글을 쓰는 훈련을 통하여 출처 표기법을 확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혐오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혐오와 차별은 무엇이고 범주는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평문에 대해 배웠습니다. 논평문은 어떤 유형의 글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후 여러 논평문을 읽어보고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 논평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논평문을 논평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평문이라는 짧은 글을 글쓰기 방법에 맞추어 완성도 있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 주제로 칼럼을 작성하는 과제에서 학우들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SNS의 문제점, 지구 온난화 등 본인이 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글의 뼈대를 잡고 초고를 작성한 후 초고를 발표하고 동료 간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작성한 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칼럼이라는 꽤 긴 글을 작성하며 동료 피드백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글을 고쳐 나가 보다 완성도 있는 하나의 글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마다 좋은 강의를 진행하시고 학생을 위해 주신 덕분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들과 깊이 있는 토론, 토의를 진행하며 저의 식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 대해 소개해 주셨기에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할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정아 교수님의 <인문 사회 글쓰기> 강의는 다시 한번 듣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값지고 의미 있는 강의였습니다.

잔향

누구에게나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존재가 있다.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처음으로 사랑을 알려준 존재는 쉽게 잊기 어렵다. 그런 존재들은 대개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주곤 한다. 나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 이 글은 나에게 행복했던 여름을 선물해준 너에게 전하는 이야기다.

2018년 3월, 이제 막 겨울에 추위가 풀리고 제법 따스함이 돌던 새 학기 첫날이었다. 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갔다. 당시 친구들이 비교적 많이 가지 않았던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아는 얼굴이 없었던지라 새로운 환경에 제법 긴장된 상태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교실문을 열었고 그렇게 너를 만났다. 큰 키에 희고 날카로운 눈, 첫눈에 반하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 든다는 말에 공감하지 못했었는데 너와 마주한 순간 그 말에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 너와 나의 질긴 인연의 시작이다.

넌 조금은 날카로워 보이는 무서운 외모와는 달리 타인에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거리에 버려진 새끼고양이를 직접 집으로 데려와 길러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다. 난 그런 다정한 네가 참 좋았다. 우리는 비슷한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 손- Way back home, 김동률-잔향 등 보통 또래 여자들과 달리 살짝은 올드한 나의 음악 취향을 넌 참 좋아해 줬다. 그렇게 너와 나는 뜨거웠던 7월에 어느 여름날 서로를 알아갔다.

너와 처음으로 봤던 영화는 황정민 주연에 '공조'라는 영화였다. 솔직히 지금에 와서 떠올려봐도 난 그 영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 옆에 앉아있는 네가 너무나도 좋아서, 믿기지 않아서 혹여나 내 터질듯한 심장 소리가 너에게 들릴까 두려워 도저히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영화가 아닌 옆에 있는 너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그러다 너와 눈을 마주했을 때 나에겐 그 순간이 영화였다. 이 찰나에 행복했던 순간은 이제 나에겐 아무리 지우려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유일한 장면이 되어 버렸다.

비극은 언제나 발 뻗고 잘 때쯤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 넌 갑작스럽게 멀어져갔다. 이유는 너의 첫사랑이자 전여자친구인 사람을 잊지 못하겠다는 이유였다.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나에게 호감을 보였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너의 첫사랑과 나는 비슷한 외모로 학교에서 유명했었다. 넌 그저 첫사랑이랑 닮았던 외모에 나에게서 첫사랑을 투영해서 바라봤지만 난 너의 첫사랑이 되어줄 수 없었다. 차라리 나에게 문제가 있던 거라면 널 붙잡아보기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유가 저렇다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 사이는 짧은 통화 5분으로 끝이 났다. 허무했다. 너와 나는 대화와 공유했던 추억이 이렇게나 많은데 고작 통화 5분으로 한순간에 끝이 난다는 게. 내 삶에서 너라는 존재는 내 세상을 지

탱해주는 큰 지지대 같은 존재였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빠져버려 내 세상이 전부 무너져 내려 폐허가 된 기분이었다. 홀로 마지막 전화 통화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나는 그저 하염없이 울었다.

너와의 만남은 그리 길지 않아 정리할 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조차도 없었다. 매번 함께 사진을 기록하고 싶었지만, 떨리는 마음에 차마 말하지 못했다. 참 많이 후회됐다. 함께 들었던 노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잘 듣지 않으려 한다. 들으면 네가 생각나고 또다시 아픈 게 싫었다. 난 너를 잊기 위해 정말 필사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네가 너무 그리워서 매일 밤 꿈에라도 나타나 주길 바랐던 내 찌질한 미련이 마음속에 공존하면서 너무나도 수많은 감정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바뀌는 기분들로 인해 혼란스러웠고 힘들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나 그 사람이 널 채워줄 순 없었다. 이 과정에서 너 역시도 첫사랑을 잊기 위해 날 만났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널 이해해 보려 하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그래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넌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다. 너로 인해 나는 이상할 정도로 사진과 추억에 집착하는 사람이 됐고 좋아하는 마음을 더는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네가 해줬던 난 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이따금 곱씹어 보며 너에게 있어서 나는 적어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는 것에 조금의 위안을 삼기도 했다. 아, 그리고 이제 와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도 네가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무리하게 쓴 대학교였던 거 넌 모르겠지? 그때 선생님들 반대가 어찌나 심했는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다. 무리하게 쓴 대학교였지만 결국 나만 홀로 붙어 이곳을 다니고 있다. 네가 뜻하지 않게 넌 나에게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를 줬다고도 할 수 있겠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다니고 있는 내 대학을 지원할 엄두도 안 났을 것 같거든.

아주 가끔 너에게 안부 연락이 오곤 한다.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씩 내 졸업을 축하해주고 내 대학 합격 소식에 기뻐해줬다. 내 슬픔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여전히 참 따뜻한 사람이다. 성인이 되고 난 지금 너와 알고 지낸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내 삶에서 너라는 존재가 많이 무뎠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있어 여전히 너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에 난 너와 만날 수 있던 자리조차도 거부하게 됐고 이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길 빌어본다. 그 이유가 그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른 만큼 나 역시도 많이 변했다. 어쩌면 내가 알던 좋은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졌을 수도 있을 거 같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 네가 무섭기도 하고 변화한 너를 마주할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했던 그 시절에 너도 그리고 나도 이제 없다.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넌 점점 흐려져 가고 내 삶 또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난 너만큼이나 소중한 사람도 만났고 이루고 싶은 꿈들과 어른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들도 하나둘 생겨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마도 너는 나에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 제목 잔향처럼 은은하지만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첫사랑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안겨주는 것 같다. 삶에 큰 영향을 준 만큼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한 번쯤 첫사랑이라는 존재와 마주하길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갈 수 없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을 주는 것 같다.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과거가 될 현재를 후회 없이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지나간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다가는 현실에 소중한 사람들과 다가오는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게 된다. 과거를 마주하는 것 또한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놓아주는 것 또한 용기다. 나는 널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가려 한다. 가끔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생각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런대로 묻어둬야지. 나에게 행복한 여름을 남겨줘서 고맙다. 네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며 너에게 닿을 수 없는 글을 마친다.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경영학전공 김*현

이 글은 인문사회 글쓰기 시간에 진행한 정서 표현 에세이다. 영화 '더 리더'를 감상한 후 느낀 영화의 대표 키워드 첫사랑, 자살, 전쟁, 문맹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해 내 경험과 엮어 글을 작성하는 시간이었다. 정서 표현 에세이를 쓰기 위해 우선 영화를 감상 후 조원들과 인물들의 행동에 따른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영화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하고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키워드를 나열했다. 그런 다음 키워드들을 문장으로 만들어 사건 순서대로 나열하고 글의 초고를 작성한 후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내 글에 부족한 점을 수정하고 글을 좀 더 디벨롭 시킬 수 있었다.

글을 쓰면서 과거에 잊혀진 그때 내 감정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마주해보니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때의 내가 느낀 아픈 감정들이 떠올라 쓰는 내내 마음이 힘들었다. 하지만 과거에 복잡했던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니 마음속 감정들이 정리된 느낌을 받았고 정확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로 인해 다시금 과거가 아닌 현실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좀 더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추가로 글을 쓰며 이 글에 바탕이 된 영화 '더 리더'라는 영화 속 남자 주인공 마이클에 감정선을 따라가 보았는데 그 섬세하고 복잡한 알 수 없는 감정들을 배우분이 참 잘 표현한 것 같아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이 울기도 하고 마이클의 행동을 이해해보려 생각해보았다. 그로 인해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됐다.

개선할 점으로는 교수님 피드백이 한 번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 정도의 피드백을 받으며 글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뽑아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며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과 동시에 아팠던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에 행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노인이라는 타자, 이제는 재인식이 필요하다

‘노시니어존’. 고령자와 노인은 이곳에 출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최근 노시니어존 카페의 등장으로 이슈가 된 것을 기억하는가. 노인 차별이라며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은 해당 카페는 성희롱을 일삼는 어르신 손님 때문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논란은 잠잠해졌지만, 노시니어존이 ‘노인 차별이다, 아니다’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자영업자들은 노인 손님을 직접 받아보라고, 여러 명이 와서 음료를 적게 시키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저렴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얼음을 달라고 요구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실제로 카페에 오시는 모든 노인 손님이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은 아니다. 내 경험으로는 주문한 음료를 보기 좋게 만들어 드렸을 때 예뻐서 어떻게 먹냐며 상냥한 어투로 칭찬을 꼭 건네고 가시는 손님, 카페에 오실 때마다 자그마한 간식을 챙겨주시던 손님도 있었다. 과연 ‘노시니어존’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만약 젊은 손님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노청년존’을 만들어 출입을 제한했을까. 이것은 비단 노인 손님들의 행동 때문에 벌어진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되려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한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으로 여겨진다.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률상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정부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지수는 2013년에는 81.5%였지만, 2023년인 현재에는 167.1%로 2배 이상 상승했다. 고령화 지수의 급속한 상승 추세는 출산력 저하로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낮아지고 노인의 사망률 저하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이다. 당분간 저출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지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¹⁾.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은 그만큼의 생활 여건을 보장받고 있지 않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상대 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에 비해 4배 이상 높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3%로 OECD 국가 대비 3배 정도 높았다.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더 가난하게 사는 역설적인 상황이다²⁾.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산업 확대나 복지 제도 마련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 여전히 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노인을 능력이 부족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위한 사업’을 한 번 떠올려보자. 노인 요양, 치매 예방, 돌봄과 같

1) 국가지표체계, 「고령화지수」, 2023. 02. 10.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4>, 2023. 06. 03.

2) 임춘식, 「시정칼럼/고령사회, 일하는 노인이 죽어 간다」, 『시정일보』, 2022. 07. 07.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339>, 2023. 06. 03.

은 서비스들이 생각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노인을 위한다는 일이 노인이 일생을 살면서 쌓아온 지혜와 연륜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노쇠하고 나약한 존재를 보살펴야 하는 일이 되었다. 물론 실제로 질병이나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도 있지만,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일하는' 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간 노인에 대한 인식 중 우리나라의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유능하게 보인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2.7점(5점 만점)으로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친근하게 보인다'(3.2점), '존중받는다'(3.3점) 역시 비교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차지했다³⁾. 일하는 노인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만큼 노인 산업 발전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대부분 질 낮은 단기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노인 산업의 더딘 발전은 노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노인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주된 특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이라는 타자를 재인식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대한은퇴자협회(KARP)의 주명룡 대표는 한국에서 노인이 왜 차별받는다고 보냐는 물음에 “차별받는다 것은 약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약자가 되었을까요. 스스로 힘을 키우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차별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똑똑해져야 합니다. 다만 책임을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⁴⁾.”라고 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퇴자협회의 모토는 ‘봉사 받지 말고 봉사하라(Serve, not to be serve)’라며 고령자가 되어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본인 몫의 책임을 지면서 권리를 찾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우리뿐만 아니라 노인 또한 ‘노인’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그것들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와 발맞추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다. 노인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노인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보장과 함께 연금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의 노인에 대한 인식, 국가의 제도적, 사회적 노력.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발맞추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노인이라는 연령층에는 수많은 모습이 존재한다.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노인도 있지만, 시니어 모델과 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생활하는 노인도 있다. 노인이 된 것을 벼슬로 여기며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노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도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 오직 부정적인 모습만을 가진 노인들만 보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확립시켜왔다. 일부만을 보고 전부를 판단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시니어존이 논란이 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된 것은 노인의 잘못이 아니며, 노인은 우리와 거리가 아주 먼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우리가 노인을 위해 고민하고 힘쓰는 시간들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이 단순히 노인을, 나와는 상관없는 남을 위한 것이 아

3) 이주형, 「[노인을 이해하는 방법]<하> ‘노인’이란 이름의 인식 전환」, 『매일신문』, 2020. 01. 03.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0011223000109109>, 2023. 06. 03.

4) 서영아, 「“한국에서 노인은 왜 차별받는가” 은퇴자협회 22년 대표의 답은…[서영아의 100세 카페]」, 『동아일보』, 2023. 04.22.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30421/118954149/1>, 2023. 06. 03.

니기 때문이다. 노인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 된다. 결국 그렇게 정립해간 노인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가지표체계, 「고령화지수」, 2023. 02. 10,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4>, 2023. 06. 03.
- 서영아, 「“한국에서 노인은 왜 차별받는가” 은퇴자협회 22년 대표의 답은…[서영아의 100세 카페]」, 『동아일보』, 2023. 04.22.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30421/11894149/1>, 2023.
- 윤한슬, 「‘49세 이상 출입금지’ 노시니어존 가게 사연은?」, 『한국일보』, 2019. 06. 0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041845745492>, 2023. 06. 03.
- 이주형, 「[노인을 이해하는 방법]<하> ‘노인’이란 이름의 인식 전환」, 『매일신문』, 2020. 01. 03.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0011223000109109>, 2023. 06. 03. 06. 03.
- 임춘식, 「시정갈럼/고령사회, 일하는 노인이 죽어 간다」, 『시정일보』, 2022. 07. 07.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339>, 2023. 06. 03.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한국어문학과 안**현

인문사회 글쓰기 수업을 통해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자기성찰 글과 칼럼 이렇게 두 가지의 글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글쓰기 윤리 등 글쓰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칼럼은 다른 글쓰기 수업에서 한 번 작성했던 터라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제목 작성, 개요 작성 등 매 수업마다 칼럼 작성 단계를 하나씩 연습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차별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노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흐름이 되지 않게끔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노인을 새로운 타자로 인식하는 것이 결국 노인을 존중하는 것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럼을 쓰는 동안 다 시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이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평소 글의 구성이나 개요 작성에 부족함을 느끼곤 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 부족한 점을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이나 필력이 좋은 글을 쓰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수업을 통해 익혔던 글쓰기의 기본이 제가 앞으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 동안 꿈에 그리던 글쓰기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너무 행복했는데, 수업시간에 썼던 글을 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학교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교리나 인권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 말은 남성과 여성의 권리에 차별이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말이다. 남성과 여성이 공평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또 있는데, 바로 이슬람권 국가들이다. 이슬람교의 교리로 인해 여성이 차별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 인권의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진 많은 이슬람권 국가와 달리, 튀니지는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이슬람권 국가라고 알려져 있다.

정부 기금으로 여성 건강 관리와 낙태를 지원하는 나라, 튀니지. 이렇게 튀니지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피임 도구를 나눠주는 등의 여성정책이 많이 발달한 국가이다. 하지만 튀니지도 처음부터 여성정책이 발달하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튀니지가 변화할 수 있었던 큰 계기는 모하메드 부아지지로부터 시작된 시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본인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여성 인권이 보장된 지금의 튀니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여성들도 1970년대에 여성 평등권을 요구하는 헌법 수정을 시도했었는데, 3개 주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실패하였다. 이 점을 보면 튀니지의 정부와 관리도 본받을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에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여성 장관과 여성 시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튀니지는 이슬람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튀니지에서 여성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슬람권 국가에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이슬람권 국가에서의 여성 차별 사례 중 하나는 히잡 착용에 관한 것일 것이다. 히잡은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천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는 차림을 말한다.¹⁾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조사를 받던 중 3일 만에 쓰러져 숨졌다. 이 사건으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가 거세졌고, 여성 인권과 자유를 위한 시위가 확대되었다.²⁾

이렇듯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각 이슬람권 국가는 각기 다른 해결 시기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튀르키예 그리고 튀니지의 정책 차이가 그 근거이다. 튀르키예는 1980년대 이후로 자유로운 피임과 낙태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상황과 관계없이 10주 내의 태아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1983년, 안전한 낙태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여성을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2003년 인구 보건 조사에 의하면 낙태의 1/4 정도만이 공공기관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실질적 대책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

1) “히잡”,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2023.05.25.

2) 서원국, 「‘히잡’으로 본 이슬람 여성 인권」, 『소년한국일보』, <http://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5094>, 2023.05.25.

한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면, 튀니지는 일부일처제를 일찍부터 채택한 나라로써 1950년대 중반에 국가인구정책을 시행한 최초의 아랍 국가이다. 이로 인해 튀니지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낙태 정책을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다. 튀니지에선 의사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임신 첫 3개월 이내나 이상이 있는 경우엔 12주 후에도 낙태할 수 있다.³⁾ 튀르키예와 비교했을 때, 튀니지가 훨씬 빠른 시기에 낙태 정책을 취했고, 튀르키예와 다른 환경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법 개정 과정의 방향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튀니지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슬람 사회의 가족법 개정 과정에서 핵심 문제는 이슬람 정체성과 서구화의 문제이다. 가족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서구화의 방향을 취했는지 혹은 이슬람의 전통을 고수하였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시행하였다.⁴⁾ 인터뷰 결과, 이집트가 서구화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는 국가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집트의 정치개혁이 이슬람 종교법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원리에 의한 정당화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튀니지는 서구의 영향을 부정하는 경우와 긍정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된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뷰 결과를 볼 때, 튀니지는 여성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의 가족법 개정이 계몽주의적 방식으로 정당화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를 통해 튀니지의 가치관과 정책은 이슬람 가치를 무조건 강화하지 않고,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동참한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다른 이슬람권 국가보다 여성 인권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튀니지가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에 비해 여성 인권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진 이유와 한 문제에 관해 각각의 국가마다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하나의 논점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 논점은 이슬람교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권리를 발전시킬 것인지, 두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국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여도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두 가치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과 국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의 가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인은 종교의 교리와 인간의 권리 중 인간의 권리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튀니지가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인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권리를 중요시한 정책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아실현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권리를 발전시킬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개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종교의 가치를 발전하고자 하는 정책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구자혁은 ‘탈분화’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⁵⁾

3) 김중도, 「이슬람 세계의 낙태 문화에 대한 이해 - MENA지역을 중심으로」, 『인문언어』 제20권 1호, 국제언어인문학회, 2018, pp. 105-125.
 4) 조희선, 「이슬람 가치와 여성 발전의 딜레마-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터키 4개국의 가족법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4권 2호, 한국이슬람학회, 2004, pp. 77-114.
 5) 구자혁, 「현대성의 개성화, 탈분화 과정으로서의 소셜 미디어의 부상: 정보화로의 사회변동과 정치적 ‘소비자’의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과학논총』 제15권 2호,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pp.27-56.

Rueschemeyer는 '탈분화'라는, 다소 어색한 조어(dedifferentiation)로 표현되는 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현상들을 열거하면서 '정치적 도덕적 개인주의'(political and moral individualism)를 그 주요한 양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특히 정치참여와 정치 과정에 가장 두드러진, 즉 정치적 현대성의 핵심적 특징을 구성하는 민주적 원칙들의 탈분화적 특징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민권(citizenship)과 그 이상, 그리고 권리와 의무, 책임의 소재로서의 개인에 대한 강조가 바로 탈분화 원리의 보편화의 양상임을 주장한다.

이 내용에서 '정치적 도덕적 개인주의'는 개인이 시행하는 모든 행동과 권리의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를 살아갈 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권리와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람들이 강조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결과를 생성할 것으로 보이는 가치인 인간의 권리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성장한 여성 인권을 실현한 튀니지의 사례와 국가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국가와 튀니지가 실행한 정책의 차이는 종교의 교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에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근본으로부터 발생한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갈림길에서 종교의 교리보다 인간의 권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튀니지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존중하며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낳는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논문

구자혁, 「현대성의 개성화, 탈분화 과정으로서의 소셜 미디어의 부상: 정보화로의 사회변동과 정치적 '소비자'의 수평적 네트워킹」, 『사회과학논총』 제15권 2호, 송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pp. 27-56.

김종도, 「이슬람 세계의 낙태 문화에 대한 이해 - MENA지역을 중심으로」, 『인문언어』 제20권 1호, 국제언어인문학회, 2018, pp. 105-125.

조희선, 「이슬람 가치와 여성 발전의 딜레마-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터키 4개국의 가족법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4권 2호, 한국이슬람학회, 2004, pp. 77-114.

2. 사전

“히잡”,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2023.05.25.

3. 인터넷 자료

서원극, 「‘히잡’으로 본 이슬람 여성 인권」, 『소년한국일보』, <http://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5094>, 2023.05.25.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의료산업경영학과 오*인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며 글의 종류, 글의 구조를 배우고, 글을 잘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을 학습하였다. 실제로 수업에서 글을 흥미롭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쓰는 것을 연습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유익한 수업이었다. 그리고 내가 쓴 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과 의견을 들을 수 있던 것이 나의 글쓰기 실력 향상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수업에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작성했던 글이다. 교수님께서 내가 처음에 작성한 글을 보시고 글의 흐름과 결론을 완전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피드백을 주셨다. 나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고 자료조사부터 글의 내용을 모두 바꾸어서 작성하였다. 근데 다시 작성한 글은 교수님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내가 쓴 글 그대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제출하였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체 과제의 성적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걱정을 훨씬 많이 했고, 그 걱정을 가지고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 그대로 글을 제출하였다.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의 성적도 걱정되었었기 때문에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의 결과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수업과 발표회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 뿌듯하고 안심되었다.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에서 배운 글쓰기 방법과 요령들을 더욱 공부하고 발전시켜서,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서 얻은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학생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악마와 거래한 청소년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범죄

지난 2021년 12월 3일 자, ‘KBS시사직격’에서 청소년 마약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이 보도되었다. 해당 방송에는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윤병호)가 출연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의 평범한 삶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졌음을 고백했다.¹⁾ 그는 강력한 오피오이드계 마약 성 진통제인 펜타닐(fentanyl)에 중독돼있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오한, 발열, 구토, 공황장애 등을 겪어야만 했다고 밝혔고, 그 증상을 마치 철저히 만들어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하였다.²⁾ 방송에서는 2021년 7월까지 검거한 마약사범 6,500여 명 중 10대~30대의 비율이 55%임을 보도하였다.³⁾ 그만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마약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마약을 구하는 것일까?

구분	총 검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기타
‘18년	8,107	104 (1.3%)	1,392 (17.2%)	1,804 (22.3%)	2,085 (25.7%)	1,393 (17.2%)	1,196 (14.8%)	133 (1.6%)
‘19년	10,411	164 (1.6%)	2,422 (23.3%)	2,499 (24%)	2,207 (21.2%)	1,572 (15.1%)	1,295 (12.4%)	252 (2.4%)
‘20년	12,209	241 (2%)	3,211 (26.3%)	2,803 (23%)	2,346 (19.2%)	1,563 (12.8%)	1,801 (14.8%)	244 (2%)
‘20.6월	5,084	73 (1.4%)	1,032 (20.3%)	1,086 (21.4%)	1,085 (21.3%)	763 (15%)	954 (18.8%)	91 (1.8%)
‘21.6월	5,108	178 (3.5%)	1,699 (33.3%)	1,129 (22.1%)	867 (17%)	619 (12.1%)	551 (10.8%)	65 (1.3%)

사진. 2021 상반기 마약사범 총 5,108명 검거(구속 997명) - 연령대별 현황(경찰청, 2021)

청소년들이 마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약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아졌다는 것이다. 위 방송에서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단 한 장의 처방전만 있으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⁴⁾ 보통의 의사들이라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당연하게도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의사 몇몇은 모르는 척을 하며 펜타닐 처방전을 준다.⁵⁾ 병원이 일종의 마약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2022년 11월 18일 자, ‘KBS시사직격’에서 또다시 마약 문제를 주제로 하였는데, 이번 편에서는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살아가던 미혼모 이미진(가명) 씨의 이야기를 다루었다.⁶⁾ 이미진(가명) 씨는

1) KBS시사직격, “[100회full] 마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펜타닐 | #시사직격 KBS 211203 방송”, 2021년 12월 3일, 동영상, 48:04, <https://www.youtube.com/watch?v=MQN49JJ7nL4&t=2168s>

2) 위와 같음.

3) 위와 같음.

4) 위와 같음.

5) 위와 같음.

6) KBS시사직격, “[full] 마약 청정국은 끝났다 - 2022 대한민국 마약 보고서 | 시사직격 142회 KBS 221118 방송”, 2022년 11월 18일, 동영상, 48:27,

<https://www.youtube.com/watch?v=PchKf2tAeY0&t=4s>

자신이 미혼모라는 것에서 비롯된 우울증 때문에 ‘텔레그램 마약 방’을 통해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다고 한다.⁷⁾ 이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핸드폰 몇 번만 누르면 1시간 내로 마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⁸⁾ 텔레그램을 이용한 청소년 마약범죄 사례는 정말 많은데, 인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친구 B, C와 함께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를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붙잡힌 사례가 있다.⁹⁾ 또한 경찰이 ‘텔레그램 마약 방’을 수색하던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총책으로 검거된 사례가 있는데, 그가 마약 방을 직접 개설하여 다양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할 만큼 마약의 접근성이 너무나 좋아졌고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청소년들이 마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 그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힙합’ 문화의 도입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마약 규제가 약한 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는 통제 물질로 규정돼있기는 하나, 주 정부마다 법이 달라서 15개 주에서는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료용 마리화나는 38개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¹¹⁾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약 문제는 한국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데,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2021년에는 무려 71,238명을 달성했다. 그런 국가의 문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마약의 문제도 같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에서 살다 온 몇몇 래퍼들은 한국에서 단체로 대마를 하다가 발각되었는데, 그 중 ‘오윈’이라는 래퍼는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¹²⁾ 더군다나 이미 몇 년 전부터는 힙합 음악가들 사이에 마약을 안 하면 못 어울린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고 이처럼 자신이 동경하던 음악가들이 마약을 하니 따라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다.¹³⁾ 이렇듯 미국 힙합 문화의 도입으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나도 한번 해볼까?’ 같은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마약류 남용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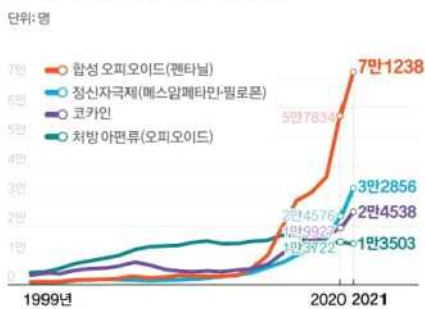


사진. 2021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출처: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7) KBS시사직격, “[full] 마약 청정국은 끝났다 - 2022 대한민국 마약 보고서 | 시사직격 142회 KBS 221118 방송”, 2022년 11월 18일, 동영상, 48:27,
<https://www.youtube.com/watch?v=PchKf2tAeY0&t=4s>

8) 위와 같음.

9) 박우인, 「10대 판매총책까지 등장…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범죄」, 서울경제, 2023.01.29.

10) 이무송, 「청소년의 신종마약류중독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2권, 제2호, 2022, p.44.

11) 「대마초: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미국 하원 통과」, BBCNEWS코리아, 2020.12.05.

12) 「“모범시민 납셨네” 메킷레인 대마 파문→루피·오윈 태도 논란...첩첩산중」, 한국일보, 2020.10.20.

13) KBS시사직격, “[100회full] 마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펜타닐 | #시사직격 KBS 211203 방송”, 2021년 12월 3일, 동영상, 48:04, <https://www.youtube.com/watch?v=MQN49JJ7nL4&t=2168s>

청소년들이 마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 세 번째로는 마약류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필자 본인도 마약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이전까지는 ‘마약’이라고 하면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고, 그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전혀 아는 게 없었다. 한국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약물에 관한 교육을 하긴 하지만, 어떤 종류의 약물이 있는지,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설명해줄 뿐 자세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2021년 방영된 ‘KBS시사직격’에서 인터뷰에 응답한 대부분의 마약 유경험자는 하나같이 “부작용이 있을지 몰랐다.”, “마약에 대해 무지했다.” 등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¹⁴⁾ 결국 마약에 대한 무지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며 마약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마약을 손을 댈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마약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급선무다. 옛말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마약중독은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다. 대마초나 필로폰, 코카인, LSD와 같은 마약은 사람들에게 꽤 잘 알려져 있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국민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임시마약류로 분류해놓았는데, 이를 신종마약이라고도 부른다.¹⁵⁾ 이러한 신종마약류는 효과와 부작용이 무엇인지도 모를뿐더러 이런 것이 존재하는지 알기도 힘들다. 펜타닐도 이러한 신종마약류 중 하나였고, 이러한 신종마약류에 무지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별생각 없이 약에 손댔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대중적인 마약류뿐만 아닌 신종마약도 그 효과와 부작용을 교육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힙합계에는 대마초가 합법인 미국에서 살다 와서 한국에서도 대마초를 피우다가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다. 대표적으로 ‘빌스택스’, ‘오원’은 한국에서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외에도 약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으로는 ‘나플라’, ‘루피’, ‘킬라그램’, ‘키스에이프’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대마초도 예외 없이 마약이 엄연히 불법이며, 당연하게도 범죄의 일종이다. 그러나 요새 한국의 래퍼들은 아무렇지 않게 마약을 하고 그것이 거의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마약이 점점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게 되고 결국 우리 삶 내에 스며들어버릴 수도 있다. 실제로 래퍼를 지망하던 청소년들이 자신이 동경하던 래퍼의 영향을 받아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를 예방하려면 래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마약류 처방을 비급여 제도에서 급여제도로 바뀌야 한다.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뻔히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며 마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마약의 원천이 바로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몇몇 의사들이 마약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재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마약류 처방이 비급여 처방이라는 것이었다.¹⁶⁾ 대한약사회 오인석 이사는 비급여 향정신성 의약품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

14) KBS시사직격, “[100회full] 마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펜타닐 | #시사직격 KBS 211203 방송”, 2021년 12월 3일, 동영상, 48:04, <https://www.youtube.com/watch?v=MQN49JJ7nL4&t=2168s>

15) 이은영 외, 「청소년 신종마약사범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2권, 제3호, 통권 제35호, 2022, p.39.

16) KBS시사직격, “[100회full] 마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펜타닐 | #시사직격 KBS 211203 방송”, 2021년 12월 3일, 동영상, 48:04, <https://www.youtube.com/watch?v=MQN49JJ7nL4&t=2168s>

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 때문에 해당 처방을 한 의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¹⁷⁾ 그렇기에 의사의 무분별한 마약 처방을 막기 위해서는 급여 처리를 하여 심평원에서 이 처방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이 한반도에 녹아들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칭호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이제는 어른을 넘어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접근하고 있다는 실태가 너무나 암담하다. 이제 옆질러진 물을 치워야 할 때이다. 그러려면 마약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 힙합 문화의 인식 개선, 마약류 처방 급여제도 시행 등을 통해 마약의 접근성을 낮추고 위험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만이 아닌, 국가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악마와 거래하지 않도록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주자.

17) KBS시사직격, “[100회full] 마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펜타닐 | #시사직격 KBS 211203 방송”, 2021년 12월 3일, 동영상, 48:04, <https://www.youtube.com/watch?v=MQN49JJ7nL4&t=2168s>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사회복지학과 이*혁

저는 2023년 1학기 매주 수요일에 이정아 교수님의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의 내용은 글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부터 시작해서 글쓰기 윤리, 각주 다는 법, 논평문 쓰기, 자기 탐색의 글쓰기, 칼럼 쓰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업의 과제는 다른 학우의 글에 댓글 달기, 피드백 달기, 혹은 글의 주제 정하기, 초고 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것들은 보통 수업 중에 끝내거나, 수업 중에 끝내지 못한 과제는 당일 12시까지 집에서 완료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생각보다 해야 할 것들이 많아 조금은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힘든 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비판적 사고나 글쓰기 윤리, 각주 달기와 같이 대학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지식을 많이 얻었으며 이 수업을 담당하신 교수님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친절하게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며 수업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또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분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제 생각의 너비가 더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러한 점들 덕분에 수업 중 쓴 칼럼으로 글쓰기 성과 대회에서 은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친절하게 잘 이끌어주신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들으며 저에게 귀감이 되어주신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육자의 '갈등 회피적' 양육방식은 자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내면화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양육자의 '갈등 직면적' 양육방식과 비교

1. 들어가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우리는 불안과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느껴지는 불안은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드'와 이상적인 원칙을 추구하는 '초자아', 그리고 '이드'와 '초자아'를 통제하려는 '자아' 이 셋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갈등을 통한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방어기제'라는 것을 활용한다. '방어기제'란 '이드'의 공개적인 표현과 이에 대립되는 '초자아'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아'의 전략이다. 만약 방어기제가 없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마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방어기제가 작동할 때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방어기제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는 것이기에 사람의 나이, 성격, 지식수준, 불안한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어기제'는 현실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어기제' 중 '해리'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기억을 무의식수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식수준에서 특정경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경험한 아이의 경우 교통사고발생 당시의 기억을 잃게 되는 것이 '해리'라는 방어기제가 나타난 상황이다. 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방어기제'가 사건자체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입해보았을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좌절감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갈등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은 자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지는 데에 도움을 주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인간의 성격은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방어기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숙한 방어기제를 취하는 사람일수록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이로울 것이다. 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미숙한 방어기제인 '해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자녀를 보호하는 '갈등 회피적' 양육방식이 과연 자녀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즉, 성숙한 방어기제를 내면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주제로 탐구해보려 한다.

2. 선행연구 소개

- 부모 양육태도와 방어기제의 상관관계

선행연구에서는 방어기제를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지어 연구한 바가 있는데 자기심리학적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방어기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속적인 정서적 거부와 무관심이 자녀에게서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수치심으로 나타나며,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매개로 정서조절, 충동조절, 대인관계문제로 드러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요구에 무조건적이며 순응적으로 반응해줄 때 경험하는 전지전능함을 내재화하여 형성되는 자기구조와 자녀로 하여금 이상적 존재로서의 부모와 합일감을 느끼면서 건강한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부모의 순응적, 공감적 돌봄은 자녀가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도와주고 자녀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적절한 '좌절감'도 제공하여 자신과 양육자상의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자녀는 양육자가 해주던 위로와 긴장조절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확립하는 변형적 내면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능력과 더불어 내면의 욕구와 대인관계를 포함한 외부의 자극에 대응하는 자기조절능력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애정적 수용과 적절한 훈육적 '통제', 그리고 이상과 가치를 심어주는 부모의 공감적 돌봄은 자녀가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이의 정서적 요구를 거부하고 방임하여 양육자의 공감적 보살핌에 지속적이고 과도한 실패가 있는 경우 자녀는 심각한 자기애적 외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자기 파괴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동반하기 쉽다고 본다. 결국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거부나 무관심을 경험하게 되면 자녀는 부정적 자기평가와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정서적 표현과 부모의 반응사이의 무관성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부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통해 스스로가 힘과 영향력이 있어 의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기주도성'에 결함이 생기게 된다. 결국 자기평가와 자기인식에 손상이 생기게 되므로 치명적인 수치심을 동반하게 되고 정서조절, 충동조절, 대인관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기제를 취하게 된다.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는 정서적 경험을 내면화하여 자신과 타인 그리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고와 감정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방어기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방어기제가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관계에서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 하는 정도)과 애착회피(친밀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불편해 하는 정도)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친밀관계 경험 척도를 측정하고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대학생생활의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로써 성인애착 불안은 부적응적 방어기제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성인애착 불안과 대학생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부적응적 방어기제에 의해 부분매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방어기제를 택하는 경향이 드러났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애착관계와 개인이 취하는 방어기제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순응적이고 공감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와 반대로 비공감적이고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보인 경우 불안정애착이 형성되고, 이는 부적응적 방어기제로 이어져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연구방법론과 연구 설계

선정한 주제인 ‘양육자의 ‘갈등 회피적’ 양육방식은 자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내면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가?’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그를 통해 형성된 애착의 유형 4가지를 살펴보고 성숙한 방어기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양육방식을 통해 어떤 애착유형이 형성되어야하는지 탐구해보려 한다. 그 후 ‘갈등 회피적’ 양육방식은 자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취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양육자의 ‘갈등 직면적’ 양육방식과 비교하여 분석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어기제와 부모의 양육방식 4가지 그리고 애착유형 4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 방어기제

방어기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성숙한 방어기제, 미성숙한 방어기제, 그리고 신경증적 방어기제가 있다. 우선 성숙한 방어기제로는 자신이 직접 욕구를 충족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대리 만족을 느끼는 ‘이타주의’,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거나 공격적인 충동이 생겨도 농담으로 방어하는 ‘유머’,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바람직한 목적을 추구하여 무의식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승화’, 의식 차원에서 느껴지는 충동과 갈등을 의식 혹은 전의식 차원에서 축소하거나 조절하는 ‘억제’ 등이 존재한다. 미성숙한 방어기제에는 현실에서 고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듯이 여기려는 ‘부정’, 그리고 불쾌하고 감당할 수 없는 충동을 내부에 담아 두지 않고 그것이 외부에 있는 양 인식하고 반응하는 ‘투사’가 있는데 이는 가장 흔하게 어떤 일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기는 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무의식적 충동이나 소망을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화’, 현재 맞닥뜨린 갈등이나 긴장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발달 단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퇴행’, 내면의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복종하거나 피학적인 태도를 취하여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수동 공격적 행동’, 무의식의 갈등이나 욕망이 정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고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신체화’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적 방어기제에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상에게 표현하는 ‘전치’, 감정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이성적인 면만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주지화’, 마음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한 사람의 성격 전체나 정체성을 파격적으로 변형시키는 ‘해리’ 등이 존재한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유형 4가지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애정과 통제 수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로는 애정이 높지만 통제하는 정도가 낮아 아이가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지만 자녀의 요구에 지나치게 관대한 ‘허용적 유형’이 있다. 두 번째로는

애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권위적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특징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자녀에게 온정적이다. 따라서 자녀의 요구에 수용적이지만 지켜야할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 세 번째는 애정과 통제가 모두 낮아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방임적 유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애정은 낮지만 통제는 높은 ‘독재적 유형’이 있다.

- 애착유형 4가지

‘애착’의 정의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갖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어린 시절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양육자와 자녀의 정서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 유형 중 첫 번째로는 양육자가 필요를 호소하는 자녀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해줄 때 형성되는 ‘안정형 애착’유형이 있다. 이와 반대로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호소했을 때 적절히 반응해주지 못한다면 자녀는 자신의 욕구 표현을 주저하게 되면서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불안정 애착’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양육자가 아이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었거나 아기의 접근을 거부한 결과로 나타나는 ‘회피형 불안정애착’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특징적으로 자녀가 양육자와 정서적, 신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적응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불안형 불안정애착’유형이 있는데 신뢰할 수 없거나 예측 불가능한 양육자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며, 자녀는 양육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지 아닐지 확신할 수 없고 결국 이 상황에 적응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애착유형이다. 세 번째는 ‘혼란형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 이는 가장 해로운 불안정 애착으로, 양육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한 결과로 나타난다. ‘혼란형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아이의 내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욕구와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 걱정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4. 연구결과

4가지 자녀양육방식 중에서 대체로 자기신뢰가 높고 독립적이며 사회적 상황에서 협력적인 경향을 보여 자녀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권위적 유형’의 양육방식을 취한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이다. 보통의 부모들에게서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가 잘못을 하더라도 넘어가고 나무라지 않으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애정과 통제 중에서 애정에 치우친 이러한 양육방식은 아이가 ‘절제’를 배우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자기결정감’을 경험하는 것을 놓치게 만든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감’을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것처럼 순응적이고 공감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좌절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양육자 상의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자신의 정서적 표현과 부모의 반응사이의 관련성을 경험함으로써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애착유형 4가지 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형성된 ‘안정형 애착’을 들여다보면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부모의 태도가 이러한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요구에 수용적으로 임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자기신뢰를 가지게 하고 자신이 가치 있음을 인지하게하며 타인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지니게 하므로 대인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충분한 애정과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통해 양육하는 '권위적 유형'의 양육자에게서 자란 사람이라면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통해 얻게 된 '자기결정감'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육자를 통해 '안정형 애착'을 형성한 자녀들은 보다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 위 선행연구에서 성인애착과 방어기제가 대학생할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부적응적인 태도가 미성숙한 방어기제에 의해 부분매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자. 이와 반대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숙한 방어기제를 매개로 일상생활에서 적응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육자의 '갈등 회피적' 양육방식은 자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내면화하는데 도움을 주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자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함양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의 양육태도 중에서 '권위적 유형'은 애정과 더불어 '통제'의 방식을 통해 안정형 애착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양육자가 자녀의 요구에 수용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갈등 회피적'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안정형 애착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수용적 태도와 더불어 적절한 '통제'와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좌절감'을 경험하게 했을 때, 즉 양육자가 '갈등직면적' 태도를 지녔을 때 안정형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육자의 '갈등 회피적' 양육방식은 자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지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애정과 더불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갈등직면적' 양육방식을 취했을 때 자녀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 나가며

이 연구를 통해 애정과 '통제'를 함께 지닌 권위적 유형의 양육자에게서 성장한 자녀는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성숙한 방어기제를 지님으로써 보다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양육자의 '갈등직면적' 양육방식이 '갈등 회피적' 양육방식보다 효과가 있음을 검증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자신이 취하고 있는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특정 방어기제가 형성된 원인을 양육환경을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안정형 애착으로 성숙한 방어기제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에는 양육자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성장과정을 통해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취한 이들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 성숙한 방어기제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지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권현실, 안명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파편화에 미치는 영향: 자기구조와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5호, 한국상담학회, 2013, 2700쪽-2702쪽
- 2) 안은순,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 적응: 부적응적 방어기제를 매개변인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 3)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014.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1991&docId=2094197&categoryId=41991>, 2023.06.20.11:03)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간호학과 이*영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수업은 한 학기동안 2가지 주제(인간의 심리, 사회이념)를 다룬 논문을 읽은 후에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서평을 작성하고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심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에서 다뤘던 인간의 심리와 사회이념이라는 주제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볼만한 심도 있는 내용이었기에 교양을 쌓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담은 서평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논문내용을 정독한 후 막연하게 존재했던 제 생각들을 차분히 서평을 쓰며 정리해볼 수 있었고, 수업을 함께 듣는 다른 학우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학년이지만, 논문의 형식을 배우고 소논문을 써보는 과정도 앞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들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그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볼 수 있었던 점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뤘던 소논문의 주제는 수업시간에 배운 2가지 논문 중에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프로이트의 자아, 이드, 초자아 그리고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다뤘던 기존 논문의 내용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소재라고 느꼈던 '방어기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읽었던 논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초자아 중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들은 언젠가는 의식 밖으로 표상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초자아 중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부분들이 의식 밖으로 표상되려 할 때 어떤 작용이 발생하는지 호기심이 생겼고 방어기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드'와 '초자아', 그리고 이들을 통제하려는 '자아' 셋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라는 소재에 대한 궁금증은 논문을 통해 깊이 탐구해보고 확장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며 새롭게 느껴졌던 점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논문을 쓸 때 선행연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선행연구들을 정독하며 '방어기제'라는 내용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심도 있는 내용들을 통해 흥미롭게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논문들과 차별점을 두며 저만의 논문주제를 잡아가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논문을 읽으며 생겼던 궁금증을 깊이 확장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대회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함의 그림자> : 뮤지컬 앙상블 배우들의 임금 문제

혹시 '앙상블'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있는가? 앙상블(ensemble)이란 '함께'라는 뜻으로 뮤지컬의 코러스 배우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극 중 맡는 역할은 드라마 속 엑스트라에서 약간 대사가 있는 역할 정도로 크지 않다. 다만 드라마와 달리 뮤지컬은 관객이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확대된 화면을 통해 감정을 전달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특히 '전달력'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앙상블은 바로 이 전달력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마치 독창을 들을 때보다 합창을 들을 때 더 감동을 받는 것처럼 앙상블 배우들은 함께 화음을 짚고, 군무를 선보이며 먼 거리의 관객에게도 극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증폭시켜 전달해준다. 그래서 앙상블이 없는 뮤지컬은 거의 없으며, 특히 대극장 뮤지컬일수록 앙상블들의 수는 늘어난다. 그런데, 비싼 티켓값을 받고, 화려한 안무와 춤을 보여주는 뮤지컬, 그 속의 앙상블들은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아는가?¹⁾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의 앙상블들은 앙상블 전문 배우가 있을 정도로 앙상블만으로 충분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앙상블 배우의 현실은 냉혹하다. 그들은 열악한 경제적 처우를 대우받고 있다. 이런 앙상블들의 경제적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앙상블 배우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은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다. 앙상블 배우들의 임금은 회당 공연비로 이루어진다. 공연에 출연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다. 뮤지컬 전문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통 경력 1~5년은 6~10만 원을, 6~10년은 11~15만 원을, 11~15년은 16~20만 원의 회당임금을 받는다고 한다.²⁾ 공식적인 집계는 이뤄지지 않아 여러 신문 기사를 모아 보았을 때, 회당임금은 8~15만 원까지가 평균적인 액수임을 추정할 수 있다.³⁾ 약 2~3시간 남짓의 공연을 오르고, 8~15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금액이 많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임금의 지급 방식이 '회당'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보통 뮤지컬 연습 기간은 짧아야 1달 반에서 2달 반 정도가 걸린다. 문제는 임금이 '회당' 기준이기에 공연에 오를 수 없는 연습 기간에는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뮤지컬 연습은 보통 10to10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를 이르는 말)로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기간 동안 앙상블 배우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다른 일을 하기도 매우 어렵다. 연습이

1) 박정선, 「[View 기획 | 앙상블도 배우다③] 생활고에 '투잡'은 기본, 대책 마련 시급」, 『뷰어스 신문』, 2019.12.14., <http://theviewers.co.kr/View.aspx?No=349968>
2) 배경희, 「피쳐 1 [SPECIAL] 2022 뮤지컬 결산② - 배우에게 묻다, 스타캐스팅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o.219]」, 『더뮤지컬』, 2022.12.19.,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014>
3) 박정선, 위의 글; 남지은, 「주연만큼 바빠요 '뮤지컬 앙상블'의 세계」, 『한겨레』, 2017.02.06.,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014>

없다면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연습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그들의 노동을 일부 ‘없는 셈’ 치는, 정당하지 않은 방식이다.

적은 임금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뮤지컬 시장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뮤지컬에서 ‘배우’ 전문인력 양성은 특히 중요하다. 보통 전문인력은 현장 전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⁴⁾ 뮤지컬은 표현하는 예술이다. 특히 뮤지컬은 작가의 의도가 좋고, 연출자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무대 위의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소용없다. 배우들은 뮤지컬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관객에게 노출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문제는 다른 분야보다 소비자인 관객에게 크게 보인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결국 뮤지컬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뮤지컬 배우의 임금은 10만 원 이내이다. 회당 10만 원 남짓의 임금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을 준다. 경제적 어려움은 뮤지컬 배우들의 퇴출을 야기하고, 결국 배우 전문인력의 유출로 이어진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지컬 시장 확대에 대응해 배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DIMF 뮤지컬 아카데미를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며 노력하고 있다.⁵⁾ 정부도 뮤지컬에서 배우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수많은 지원사업을 해도 결국 임금이라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이탈 요인을 생각하지 못한 정책들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한다. 밑빠진 체제에 아무리 지원정책을 펼쳐봤자 일정 수준 이상 물이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뮤지컬 시장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적은 임금은 배우 개개인의 문제에서 떠나 뮤지컬이라는 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큰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앙상블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뮤지컬 소비자들이 이런 임금 문제를 인식하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뮤지컬은 소비하며 유지하는 문화이다. 소비가 없다면 뮤지컬은 지속될 수 없다. 뮤지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가 이런 앙상블들의 임금에 관심을 가지고, 임금체불에 있어 부당한 제작사에 대해서는 현명한 소비로 대응한다면 문제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큰 힘을 지니고 있다. 혹시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사태를 들어본 적 있는가? 2022년 K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는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현장 영상이 논란이 된 적 있다. 현장 영상에는 제작진이 달리는 말의 발을 갑자기 세계 당기는 모습이 찍혔는데, 갑작스러운 외력에 세차게 달리던 말은 다리가 꺾이며 넘어졌고, 말을 타고 있던 스텐트맨은 와이어 없이 바닥에 굴렀다.⁶⁾ 이 영상은 즉각 시청자들과 동물연대의 분노를 사 태종 이방원의 방영은 잠시 중단되었으며, 제작진들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⁷⁾ 그런데 만약 말이 학대받는 장면을 보고도 눈을 감았다더라면, 제작진이 검찰에 송부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다. 그저 제작진들끼리만 아는, 별거 아닌 지나가는 일이었을 것이

4) 김병희, 「문화예술인의 복지와 인력 양성」, 『미디어펜』, 2019.04.18.

<http://www.mediapen.com/news/view/427679>

5) DIMF 공식 홈페이지, <https://www.dimf.or.kr/portal/contents.do?mId=0302000000>

6) 김나을, 「[POP초점]‘태종 이방원’ 제작진 말 학대 혐의로 檢 송치·재발 방지 위한 길」, 『해럴드POP』, 2023.02.03.

http://www.heraldpop.com/view.php?ud=202302031523569091345_1

7) 이다겸, 「동물자유연대, ‘태종 이방원’ 말 학대 면담…KBS “재발 방지 노력”」, 『스타투데이』,

2022.01.24.,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2/01/72445/>

다. 소비자의 관심은 작은 것이라도 변화를 일으킨다. 목소리를 낸다고 당장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부당한 일,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인지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준다.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임금 문제는 어디서든 예민한 문제이고, 타협하기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을 알면서 우리와 직관적으로 연결된 일이 아니라고 그들의 힘만으로 해결하게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앙상블 임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 조사조차 되지 않는 지금 현실은 이들에게 너무나 단단하다. 내가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은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들, 우리들의 소리가 그저 작은 메아리일지라도 이 메아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앙상블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작은 소리가 문제 해결의 첫 계단이 될 수도 있다. 앙상블 배우들은 수많은 오디션을 낙방하며 스스로를 갈고닦아 발전해온, 스스로를 빛내고, 앞을 나아갈 줄 아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고대하던 목표를 이루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등바등 애써야 하는 현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화려함에 가려진 그림자를 알아주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앙상블들의 임금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최원근, 임병진, 「우리나라 뮤지컬의 산업화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경영사연구』, 30권, 3호, 통권 75호, 한국경영사학회, 2015, pp.10~11
2. 김나을, 「[POP초점] '태종 이방원' 제작진 말 학대 혐의로 檢 송치·재발 방지 위한 길」, 『해럴드POP』2023.02.03.,
http://www.heraldpop.com/view.php?ud=202302031523569091345_1
3. 김병희, 「문화예술인의 복지와 인력 양성」, 『미디어펜』, 2019.04.18.
<http://www.mediapen.com/news/view/427679>
4. 김현호, 「뮤지컬 배우 노동의 순수성」, 『매일노동뉴스』, 2023.11.02.,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07>
5. 남지은, 「주연만큼 바빠요 '뮤지컬 앙상블'의 세계」, 『한겨레』, 2017.02.06.,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014>
6. 박정선, 「[View 기획 | 앙상블도 배우다③] 생활고에 '투잡'은 기본, 대책 마련 시급」, 『뷰어스신문』, 2019.12.14., <http://theviewers.co.kr/View.aspx?No=349968>
7. 배경희, 「피처 1 [SPECIAL] 2022 뮤지컬 결산② - 배우에게 묻다, 스타캐스팅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o.219]」, 『더뮤지컬』, 2022.12.19.,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014>
8. 이다겸, 「동물자유연대, '태종 이방원' 말 학대 면담…KBS "재발 방지 노력"」, 『스타투데이』, 2022.01.24.,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2/01/72445/>
9. DIMF 공식홈페이지, <https://www.dimf.or.kr/portal/contents.do?mId=0302000000>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경제학과 강*영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은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를 다져주게 하는 수업으로 개인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확장시켜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해주는 좋은 글을 만드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 계획서와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고, 교수님과의 면담, 조원들과의 상호피드백을 통해 글을 고쳐나갔습니다.

늘 주변에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의 글과 비교해 보면 내 글은 뭔가 두서없이 떠드는 느낌을 받아 이 점을 개선하고 싶었는데, PREP 구조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조원들과 서로의 글에 대해 보완할 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글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등의 시간이 홀로 퇴고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들은 글쓰기 수업에는 교수님과 1:1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눈으로 나의 글을 보게 되어 특히 좋았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배운 것들을 글에 적용하면서 온전한 나의 것으로 만든 것 같아 무척 뿌듯했는데, 이렇게 학기말 글쓰기 성과발표회에서 동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수업 과정을 열심히만 참여한다면 내가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글쓰기의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며 많은 성장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글로 볼까 영화로 볼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목 차>

1. 이즈미의 시점으로 설명하는 책과 영화
2. 책과 영화의 전개 순서
3. 책과 영화에서 이즈미의 감정 표현
 - 3-1. 마오리의 일기와 토루의 부탁
 - 3-2. 과거의 이즈미, 현재의 이즈미
 - 3-3. 두려움의 극복
4. 책? 영화? 무엇을 선택할까?

1. 이즈미의 시점으로 설명하는 책과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라는 영화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어 하루 일을 모두 글로 적어 다음 날의 자신에게 건네주어야만 하는 마오리라는 친구를 둔 이즈미라는 친구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이다. 이즈미가 마오리의 일기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고민 끝에 일기를 돌려주며 과거의 일을 마오리에게 다 털어놓게 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영화의 중심 주인공은 마오리와 토루인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설명한 줄거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이즈미의 시점에 집중하여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이즈미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부각해 주기 위해서이다. 이 영화의 비평 기사 대부분이 토루와 마오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¹⁾ 그래서 우리는 이즈미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어 이즈미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선택했다. 그리고 원작인 책은 각 인물의 시점을 시간순으로 보여주지만, 영화는 이즈미의 시점으로 현재에서 마오리의 일기를 통해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책보다는 영화를 통해 이즈미의 감정선과 변화를 더욱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비평문을 통해 책과 영화의 심리, 정서 표현 차이와 영화가 가진 특징이 관객들에게 전하는 느낌과 영화에서 드러나는 이즈미의 심리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책과 영화의 전개 순서

원작인 책은 토루의 시점, 마오리의 시점, 이즈미의 시점, 마지막으로 다시 마오리의 시점으로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런지 사건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토루가 마오리에게 고백하고, 마오리와 데이트를 하고, 마오리의 일기를 알게 되고,

1) 김의화, 「[기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중도일보』, 2023.02.08.,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30208010001375> (접속일 2023.06.03)

둘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완만한 흐름이다. 그 후로 이즈미의 시점으로 전개되며 이즈미의 시점으로 보는 마오리와 토루의 모습이 중점으로 나온다. 후에는 다시 마오리의 시점으로 바뀌며 이야기는 결말을 맞게 된다. 그래서 이즈미의 감정이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단지 독자들에게 둘의 사이를 시원하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의 친구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즈미의 이야기나, 토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감정과 혼자 모든 슬픔과 죄책감을 떠안게 되었을 때의 모습이 가려진다, 하지만 영화는 책과 전개가 다르다. 마오리의 병이 나아지기 시작하자 마오리가 자신의 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이즈미에게 전하는 현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즈미로 시점이 넘어가게 되고, 이즈미가 마오리의 일기를 펼쳐 읽어보며 과거로 넘어가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리고 중간중간 일기를 읽는 이즈미의 표정도 감정이 드러날 만큼 클로즈업되어 나온다. 마지막도 일기를 다시 돌려주려고 결심하고 마오리에게 뛰어가는 장면이 이즈미의 성장과 감정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영화는 이즈미의 시점으로 진행되면서 이즈미를 평범한 조연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연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준다. 또한 전개 순서도 현재와 과거를 번갈아 가며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예측해 볼 수 있게 해주고, 과거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면서 영화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

3. 책과 영화에서 이즈미의 감정 표현

3-1. 이즈미의 두려움과 거부

토루가 이즈미에게 자신이 심장병으로 죽으면 마오리가 괴로워할 테니 일기의 내용을 전부 바꾸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에서, 책에서는 이즈미가 겁에 질려 사실을 부정하고, 토루의 부탁을 거절하는 행동 묘사와 토루의 죽음에 대한 이즈미의 감정 묘사가 한 문장씩 간단하게 나온다.²⁾ 이즈미의 시점으로 진행되지만, 그 외에는 일어난 일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거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만 서술된다. 하지만 ‘겁에 질려’, ‘떼쓰듯이 거부해도’ 등의 문장을 통해 직관적으로 인물의 심리와 감정에 독자들은 쉽게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하므로 배우 목소리의 떨림, 높낮이, 눈빛, 행동 등으로 감정이 표현된다. 토루가 자신이 심장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카메라는 이즈미의 얼굴을 보여준다. 책에서는 겁에 질렸다는 표현을 썼지만, 영화에서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당황하면서도 태연하게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표정, 반복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는 손,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얼굴로 향하는 시선을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에서 심리적 특성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이즈미는 부정이라는 자기방어 기제를 보여준다. 방어기제는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하는 무의식적 행동인데, 부정은 위협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오는 방어기제이다. 이즈미는 처음에는 토루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음으로써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방어기제 외에도 다른 심리적 특성을 찾자면, 이즈미가 토루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에서는 접근-회피 갈등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접근-회피 갈등은 유혹적인 요소와 부담되는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즈미에게 마오리는 소중한 친구이기에 친구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기에서 토루를 지우는 것은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토루를 지우면서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토루에 대한 죄책감과 토루가 죽고 모든 아픔을 짊어져야 하는 이즈미에게 부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토루의 부탁에 대한 이즈미의

2) 이치조 미사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권영주 역, 모모, 2021, pp. 302~308.

반응이 영화에서 배우의 표정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고 이즈미의 심리 상태를 잘 알려주고 있다. 책에서 나온 표현인 겁에 질린 표정을 그대로 영화에서도 나타낸 것이 아닌 태연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이것을 통해 이즈미가 슬퍼하거나 겁을 먹겠다고 예상하던 관객의 생각을 깨고 더한 안타까움과 공감을 끌어내게 된다.

3-2. 과거의 이즈미, 현재의 이즈미

이즈미가 마오리의 원본 일기를 돌려주는 장면이 책에서는 마오리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마오리가 먼저 이즈미에게 토루에 대한 사실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게 되고, 마오리의 물음에 이즈미는 결국 사실을 말하게 되면서 일기를 가져다주게 된다. 책에서는 이 장면을 끝으로 이즈미의 시점을 끝이 나게 된다. 이즈미가 왜 결심하게 된 것인지와 사실을 전하는 장면에서의 긴장감이 책에서는 고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즈미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영화는 책과 다르다. 이즈미는 마오리의 일기 속 ‘앞으로도 계속 그 애 곁에 있게 해주세요.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그 뒤에도 부디 오래도록...’이라는 문장을 읽고 슬픔에 잠긴 듯 고개를 푹 숙여 보였다가 결심한 듯 일어서게 된다. 그리고 일기와 마오리의 휴대전화를 들고 마오리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과거 마오리의 일기를 들고 울면서 뛰어가던 자신과 마주한다. 그리고 이즈미는 과거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마오리의 집으로 계속 나아간다. 과거의 이즈미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으로 하향성을, 현재의 이즈미는 오르막길을 올라감으로써 상향성을 보여준다. 사실을 땅에 묻어버리듯 아래로 향하는 과거와는 달리, 오르막길을 오르는 모습으로 이즈미의 성장을 보여준다. 또한 더 이상 자신도, 사실도 숨기지 않겠다는 마음도 전달한다. 이러한 장면에서도 심리적 특징인 방어기제를 찾아볼 수 있다. 신경증적 방어기제에서 성숙한 방어기제로 긍정적으로 발전하여 성숙한 방어기제 중 하나인 용인을 보인다. 용인은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즈미는 토루가 죽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토루나 마오리에 대한 죄책감을 받아들임으로 마오리의 일기를 전달하려고 마음을 정한 것이다. 책에서도 비슷한 상징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즈미는 일기를 전달하기 전 물을 마시는 행동 묘사가 자주 나온다. 이러한 마시는 행동이 이즈미가 진실을 숨기고 속에 감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자세히 과정을 그리지 않는다.

3-3. 두려움의 극복

책에서는 이즈미가 마오리의 무언가 불만스러운 얼굴을 보고 사실을 전달한다. 거짓말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못했다는 표현이 결국 이즈미가 마오리에게 토루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는 것을 전달해 준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표현과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있다. 이를 통해 이즈미가 얼마나 큰 짐을 숨겨왔는지, 혼자 참아왔는지 알 수 있다.

영화는 이 장면을 다르게 표현했다. 영화는 이즈미가 사실을 전하는 장면을 새롭게 만들었다. 마오리의 방을 마주한 이즈미는, 토루의 그림으로 가득 찬 마오리의 방을 보고 참아왔던 감정들을 터트리며 마오리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 책과는 달리 이즈미의 감정선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책에서는 마오리의 물음 때문에 수동적으로 사실을 토로했다면, 영화에서는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즈미가 마오리에게 일기를 전해주게 된 계기를 이즈미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마오리의 방은 토루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다. 이를 카메라가 이즈미의 시점에 투영되어 보여줌으로써 마오리에게 토루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즈미에게 있어

토루의 의미도 함께 부각한다. 내리찍는 햇살과 그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방 안, 햇살이 캔버스 위로 내려앉아 더욱 빛나 보이고 캔버스 속 색들은 화려하게 빛난다. 이즈미에게 토루는 자신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마오리를 위하는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미키 타카히로(감독),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후쿠모토 리코·미치에다 쉰스케·후루카와 코토네(출연), TOHO 스튜디오, 2022. (1:43:45)

4. 책? 영화? 무엇을 선택할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오로지 친구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감수하던 이즈미는 마오리의 일기를 읽으면서 과거의 감정을 회상하고 떠올리며 자신의 눌러왔던 과거의 무의식을 마주한다. 이즈미가 정서적 성장을 보이는 데에 있어 일기가 치료사 역할로 작용한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던 토루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를 덜어낸다. 이즈미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영화는 책보다 이즈미의 정서적 성장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카메라의 움직임을 이즈미 시선으로 맞춰 이즈미에게 더욱 몰입하게 해주고, 색감이나 공간 구성으로 시각적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음악을 통해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또한 배우의 시선, 몸짓, 말투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미처 다 상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며 인물의 감정과 인물이 가진 이야기를 전달한다. 여러분이 원작인 책만 읽어 주인공을 도와주는 인물로만 이즈미를 인식하고 지나 보냈다면, 이 영화를 통해 이즈미가 전해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느껴보고 이즈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문헌

김의화, 「[기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중도일보』, 2023.02.08.,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30208010001375> (접속일 2023.06.03.)

이치조 미사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권영주 역, 모모, 2021.

미키 타카히로(감독),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후쿠모토 리코·미치에다
슌스케·후루카와 코토네(출연), TOHO 스튜디오, 2022.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심리학과 공*빈

인문 사회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영화 비평문 쓰기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영화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비평하고 싶은 영화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글을 쓰는 데에 스스로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과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영화와 책을 비교하는 글이기 때문에, 작품을 영화로도, 책으로도 정말 많이 읽고 보았습니다. 내가 모르던 부분이나 놓치고 있던 인물의 행동들을 보면서 비평문에 쓸 부분들을 생각하고 적어놓았습니다. 또한 과제 진행 중에도 영화와 책을 보면서 나의 비평문에서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글의 완성도를 위해 의사소통센터에 글쓰기 피드백을 맡기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과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초고를 쓰거나, 과제 완성 부분 등 여러 부분에서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개요를 짤 때 받은 교수님의 피드백이 제가 쓸 비평문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비평문에 대한 다른 동료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 사회 글쓰기 수업 시간 중에도 비평문을 쓰기 위한 많은 방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글의 완성도를 더 높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인문 사회 글쓰기라는 수업 덕분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비평문을 쓸 기회를 얻었고 앞으로 있을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

우리 주변의 고양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게 되는 작은 동물이 있다. 털은 복슬복슬하고, 조그맣고 귀여운 발로 발소리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높은 담벼락도 훌쩍 넘어 다닌다. 햇볕이 좋은 자리에 자기가 주인인 양 대놓고 드러누워 평화롭게 뒹굴뒹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맞다. 고양이이다. 우리나라 어디에 가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꼭 길고양이가 함께한다.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정작 손길을 주면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도도하게 걸어가 버리는 게 ‘밀당의 고수’가 이런 건가 싶다. 길고양이를 본 적 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길고양이가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다.

고양이와 생태계 파괴 - 그 많던 새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지만 이런 고양이들을 마냥 귀엽게 볼 수는 없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와 달리, 고양이의 사냥은 고양이보다 작은 소 동물에게 큰 위협이 된다. 꼭 먹으려는 의도가 아닌, 장난으로 이루어지는 사냥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문제가 될 정도다. 고양이는 소형포유류의 개체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새를 잡아먹기도 하면서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키며, 고양이 바이러스성 질병을 고유종에게 감염시킨다. 이로 인해, 국제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침입 외래종이기도 하다.¹⁾ 마라도 등 주요 철새 서식지에서 고양이들은 무서운 사냥꾼이 되어, 멸종 위기종인 새들을 마구 사냥하기도 하며 생태계 파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고양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이 직접 “올해 마라도에서 죽은 뿔쇠오리 4마리가 발견되는 등 매년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라며 “문화재청·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뿔쇠오리가 고양이가 공존할 방안을 고민한 결과, 길고양이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²⁾ 우리의 작고 귀여운 털 뭉치 고양이는 소 동물에게 거대하고 위협적인 생물인 것이다. 개체수가 폭등한 현재는 더할 나위 없는 실재하는 위협이다.

고양이들은 왜 늘어났는가?

그렇다면 고양이들은 왜 그렇게 늘어났을까? 가장 큰 문제로는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유기동물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양이 밥 - 먹이의 증가이다. 유기동물 중 고양이의 경우, 2019년 2,726마리가 유기되던 것이 2022년에는 2,134마리가 유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적인 유기 고양이의 수 자체는 감소세에 들고 있다. 그러나, 그 감소의 숫자가 크다고 볼 수

1)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고양이, <https://kias.nie.re.kr/home/for/for02002v.do?clsSno=20297&searchClsGbn=for>, 2023. 6. 1.

2)『뿔쇠오리 보호 위해 결국...길고양이 포획 후 마라도 밖으로 이송』, 『데일리 벳』, 2023.3.1.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81595>, 2023. 6. 1.

도 없으며 매년 2,000마리의 고양이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먹이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번식 횟수의 증가에 있다. 고양이는 보통 1년에 1번 발정하지만, 먹이가 늘 풍부한 도시 내에서는 발정하는 횟수가 3~4회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안정적인 먹이와 환경을 주니 본능에 따라 더 많은 자손을 남기려 하는 것이다. 이는 때로 고양이 근친 교배와 같은 이차적인 문제를 불러오기도 하며, 문제가 심화하면 유전병, 뼈 기형, 꼬리 기형 등 유전적인 장애로 이어진다. 약간 과장하여 말하자면 인간이 만들어준 환경에 의해 고양이들이 유전자 단계부터 고통받게 되는 것이다.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 - TNR, THVR

우리나라에서는 폭증하는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하여, TNR과 THVR을 실행 중이다. Trap(덫)-Neuter(중성화)-Return(되돌리다)'의 첫 글자를 따온 TNR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원래 포획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으로, 고양이를 살처분하는 것과는 달리 고양이의 번식력을 약화한 뒤 놓아주는 방식이기에 상대적으로 인도적인 방식이다. 또 환경부에서는 2019년부터 THVR도 실행 중이다. 이는 고양이의 정소와 난소는 그대로 두고 정관과 자궁 통로만 차단하는 중성화 수술을 통하여 고양이의 본능을 유지하면서도 번식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THVR을 하면 고양이의 성호르몬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호르몬에서 기인하는 영역 확보 본능, 다른 개체를 배제하려는 본능이 죽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양이의 번식력을 약화하고, TNR과 THVR 횟수를 늘려 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힘을 쏟고 있다.

노력과 결과는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늘 좋은 결과만 내놓지는 않는다. TNR로 효과를 보려면, 길고양이 개체군의 75% 이상을 중성화해야 개체 수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TNR과 THVR을 통한 개체 수 감소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길고양이의 경우 TNR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불완전한 TNR로 인해 TNR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식능력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서울시에 길고양이 예산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만 해도 2019년 기준 원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돈들이 돈 낭비라고 여기는 일이 있는 이유이다. 실효성을 알 수 없는 TNR을 너무 맹신한다는 것이다.

고양이를 위한 또 다른 길

고양이의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은 수술 외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유기동물센터를 통한 입양이다. 이는 큰 이점을 가지는데, '길고양이'의 절대적인 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여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선 단순 TNR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입양과 동물 등록제 강화 등을 통한 유기동물 개체 수 줄이기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3) 길고양이 한 마리가 줄어드는 것은, 그 고양이가 TNR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길에서 살며 낳을 수도 있는 고양이 수십 마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고양이 보호 협회 사이트 등 길고

3)「멸종저항보고서②」 길고양이, 멸종위기종을 위협하다, 『시사위크』, 2021.10.27.,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245>, 2023.5.31

양이를 입양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 말장난 같을지 몰라도 길고양이를 집에 들여 집고양이로 바꾸면 길고양이 개체 수는 감소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밥그릇, 늘어나는 개체 수, 돌보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개체 수는 쉽사리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노력을 무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탓이다. 바로 길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캣맘’이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따르면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2018년 4889건에서 지난해 405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캣맘 관련 민원 건수는 같은 기간 70건에서 13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⁴⁾ 캣맘은 본래 길고양이를 챙기고 보살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만족에 따라 밥을 주고 챙기기만 할 뿐 데려가지 않아 고양이 개체 수의 폭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캣맘의 사료 급식으로 인해 고양이가 모여들고, 이는 고양이들 사이의 싸움, 여러 고양이 무리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번식을 불러온다. 길고양이 수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각종 소음이나 고양이가 일으키는 이차적인 피해, 차량 스크래치 발생이나 쓰레기봉투를 헤집어두는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다. 단순히 생명을 챙긴다는 자기 만족감이 불러온 어마어마한 나비효과인 셈이다.

고양이와의 상생을 위하여

이미 고양이 개체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쩌면 이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없는 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양이와의 상생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고양이들을 없애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 국가나 단체 단위가 아닌 개인이 고양이 개체 수 감소에 기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밥을 주고 먹이를 늘리는 건 결국 고양이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길이 될 뿐이다. 마음을 조금 내려두고, 거리를 뒤보자. 생태계 파괴의 비극을 멈추기 위하여, 고양이와의 상생을 위하여.

4) 「"고양이 밥 주는 게 왜요?"...캣맘은 어쩌다 '민폐의 상징'이 됐나 [이슈, 풀어주리]」, 『서울경제』, 2023.5.20.,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NI6K09Q>, 2023.6.15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자유전공 김*서

제가 수강한 인문사회글쓰기 강의는 논문이나 칼럼, 논평문 등의 ‘어른스러운’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생이라면 무조건 듣는다고 이야기를 미리 들긴 했지만, 그런 어려운 글들을 내가 배운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 제출한 이 칼럼은 본래 기말 대체 과제로,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칼럼을 직접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칼럼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마냥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강의의 내용을 따라서 주차가 지날 때마다 주제 선정, 내용 정리 및 수정, 조원들과의 피드백 등을 통해 단계를 천천히 밟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주제를 정하고 글의 토대를 잡는 부분부터 마지막 수정 단계까지 교수님이 보고 개선할 점을 짚어주신 것, 또 조원 피드백을 통해 서로의 글을 평가해주는 단계를 거쳐서 내 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교수님께서 내 글을 읽고 직접 피드백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수님께 내 글을 보여드리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짚어주신 덕분에 내 글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고 더 세세하고 완성도 있게 글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원 상호평가 역시 스스로는 알지 못했던 글의 취약점을 알 수 있었고, 내 글을 남에게 보여준다는 부끄러움을 줄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글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글을 쓰게 되어도 이번에 받은 상을 잊지 않고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 중독자, '너'가 아닌 '우리'

구더기가 가득 찬 상처, 팔이나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배수구에 쌓인 주사기들.¹⁾ 30년 전 포르투갈은 심각한 마약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포르투갈의 정부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마약의 비범죄화. 정부 차원에서 마약 사용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증가하는 마약 사용량으로 인해 많은 국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포르투갈의 선진적인 마약 비범죄화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마약의 비범죄화가 아닌 포르투갈의 마약에 대한 인식이며, 국민을 향한 관심이다. 포르투갈의 마약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다음 침공은 어디? (2015)』의 마이클 무어 감독은 미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국가들의 진보적인 제도를 습득하고자 한다. 그가 방문한 국가 중 하나인 포르투갈은 마약의 비범죄화가 효과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 즉, 포르투갈 정부는 허용된 양의 마약에 한해서 사용 및 소지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대신, 마약 사용자들은 경찰서에서 신상을 기록해야 하며, 지역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중독 여부를 판단 받은 뒤 치료기관, 벌금 부과, 훈방 조치 등을 받게 된다.²⁾ 처벌이 아닌 치료를 중심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포르투갈은 국민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인다. 범법자도 자국민으로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마약 규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흑인의 투표권을 앗기 위해 백인보다 흑인의 마약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정 집단의 탄압이 아닌 자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마약 처벌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마이클 무어는 포르투갈 침공을 통해 조명했다.

하지만, 포르투갈이 처음부터 치료에 중점을 두는 마약 대응 정책을 제시하였던 것은 아니다. 초기 강경한 마약 대응 정책으로 포르투갈 감옥은 마약 관련 범죄자로 가득 찼다. 1990년대에는 전체 인구 1,000만 명 중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포르투갈은 새로운 대책을 고안해내야 했다.³⁾ 이때, 정부가 선택한 것이 마약의 비범죄화이다. 감옥에 수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포르투갈의 정책이 마약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높아진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 치료율 그리고 타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성인 마약 소비율의 증가는 포르투갈의 마약 대책의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⁴⁾

1) Naina Bajekal, "Want to Win the War on Drugs? Portugal Might Have the Answer", *TIME*, 2018.08.01.,

<https://time.com/longform/portugal-drug-use-decriminalization/> , 2023.06.05.

2) 문성호, 「포르투갈의 마약 비범죄화」, 『오마이뉴스』, 2022.02.07., <http://bit.ly/ZIzAw> , 2023.05.20.

3) 황수현, 「포르투갈의 마약 실험 12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한국일보』, 2013.04.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304121344970795> , 2023.05.20.

4) 위의 글.

포르투갈의 마약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체계적인 국민 건강 제도의 확립 때문이 아니다. 보다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마약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이다. 마약 중독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심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질병임이 분명하다. 또한, 사용량 감소나 중단 시 견디기 어려운 금단 증상으로 인해 마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⁵⁾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약 중독자를 범법자라고 인식한다.

반면, 포르투갈의 파로 지방 알가아브 지역 마약위원회 위원장 엘리사벳 아제베도는 "마약 중독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게 치료 쪽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⁶⁾ 마약 중독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처벌한 대상이라고 낙인하는 순간, 마약에 대한 대처가 더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범죄자를 자국민이 아닌 외집단으로 분리하여 지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으로써 마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포르투갈인들이 마약 중독자들의 문제를 국가 내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포르투갈의 마약 정책은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한다. 효율적 이타주의란 "세상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성과 실증을 통해 모색하고 실천하는 철학이자 사회운동"이다.⁷⁾ 즉,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적이고 단순한 도움이 아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마약사범을 감옥에 수감시키는 해결 방식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와 같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만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포르투갈의 마약 정책은 거둬드는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중독을 치료하면서 장기적으로 마약 사용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통해 포르투갈은 현대 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마약을 다른 국가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포르투갈은 마약을 단순히 비범죄화함으로써 국민들을 마약에 방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을 공동의 문제로 지각하고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중독 치료 제도를 통하여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포르투갈의 노력은 마약사범 수 감소, 평균에 비해 낮은 마약 소비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효과를 입증한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차례이다. 선부른 마약의 비범죄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2001년 포르투갈의 정부가 마약을 중독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함께 해결할 문제로 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중독 치료라는 대안적 방안 제시한 것처럼, 한국 또한, 증가하는 마약사범 문제에 대하여 처벌에 앞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회 공동체를 활용하여 마약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5) 최미경, 「치료공동체(DARC)에 입소한 마약중독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 50권, 제 2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2, 170-198쪽.

6) 문성호, 앞의 글.

7) 김성한·이창근,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 그리고 나눔」, 『인격교육』, 한국인격교육학회, 16권 4호, 2022, 5-23쪽.

참고 문헌

김성한·이창근,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 그리고 나눔」, 『인격교육』, 한국인격교육학회, 16권 4호, 2022, 5-23쪽.

문성호, 「포르투갈의 마약 비범죄화」, 『오마이뉴스』, 2022.02.07., <http://bit.ly/ZIzAw> , 2023.05.20.

최미경, 「치료공동체(DARC)에 입소한 마약중독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 50권, 제 2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2, 170-198쪽.

황수현, 「포르투갈의 마약 실험 12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한국일보』, 2013.04.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304121344970795> , 2023.05.20.

Naina Bajekal, “Want to Win the War on Drugs? Portugal Might Have the Answer”, *TIME*, 2018.08.01., <https://time.com/longform/portugal-drug-use-decriminalization/> , 2023.06.05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심리학과 김*은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은 대학 생활의 기초가 되는 수업과도 같았다. 강의 첫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표현할 수 없는 “앎”은 진정한 앎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가천대학교를 재학하면서 배울 지식을 진정하게 “알기”위하여 한 학기 동안 인문사회글쓰기 강좌를 수강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올바르게 출처를 밝히는 법이다. 그 전에 과제를 수행할 때는 단순히 자료의 링크를 첨부하거나 제목을 작성하였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자료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인용 방법을 배우면서 학업 윤리를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해 “자기 표절”의 개념도 새로웠다. 내가 작성한 글이어도, 그 글에 대한 결과를 받았다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로, 퇴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글쓰기 과제는 글을 완성하고 간단하게 검토한 뒤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글쓰기의 3단계, 발상, 초고, 퇴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퇴고란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준 뒤 작성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방식을 기말 과제에 적용하여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퇴고하였더니, 초고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논리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강의는 글쓰기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다양한 예문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 삶을 살아가는 태도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교양 강좌였다고 생각한다. 비록 한 학기였지만, 이때 배운 글쓰기의 기초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학 과제를 잘 수행하고 싶다.

자연소멸 중인 국가 대한민국

자연소멸국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자연소멸국가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출생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소멸국가는 현재 대한민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조선일보』의 2023년 5월 24일자의 강우량이 쓴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 7년째 역대 최저치 경신」 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출산율을 최하위이다.¹⁾ 심지어 여기서 합계출산율이 더 줄어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 고령화도 가속화되며 한 해 사망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자연소멸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사진 1> 통계청의 인구 자연증감 및 출생아 추이

그렇다면 과거 대한민국의 출산율도 현재처럼 낮았을까? 그렇지 않다. 과거의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금과는 다르다. 국가기록원의 시기별 인구정책 자료를 보면 1960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6명으로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는 1962년부터 산아 제한정책도 추진했었다. 그럼에도 1955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현상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고 출산율이 1970년에는 4.07명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정작 가임기인 여성 인구는 증가하는 등 한국이 저출산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다.



<사진 2> 보건사회부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1960 ~ 1970년대 산아제한 가족계획 포스터

1) 강우량, 「1분기 합계출산율 0.87명, 7년째 역대 최저치 경신」, 『조선일보』, 2023.05.24.,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5/24/ZB757NZ6VNAA504Q6MGBH6UZW4/, 2023.06.01.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 상황이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있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Sbs biz』의 「떨어지는 청년층 내집마련?…서울 아파트 분양가 '경충」 기사에서 신다미는 “지난달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206만원으로 1년 전보다 3.7%, 전달보다 1.5% 상승했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599만원으로 1년 전보다 9.6%, 전달보다 0.8% 올랐습니다.”라고 말한다.²⁾ 이미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더욱 오르는 중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게 만들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산세에 대한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권역별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

구 분	'23년 4월말 기준	'23년 3월말 기준	'22년 4월말 기준	변동률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전 국	4,844	4,805	4,419	0.8%	9.6%
수도 권 ¹⁾	6,684	6,588	6,444	1.5%	3.7%
서울	9,286	9,280	9,771	0.1%	-5.0%
5대 광역시 ²⁾ 및 세종시	5,049	5,010	4,640	0.8%	8.8%
기타지방 ³⁾	3,999	3,982	3,494	0.4%	14.5%

·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간(작성기준월 포함) 자료를 평균한 최근 1년간 평균가격으로 작성

1) 서울, 인천, 경기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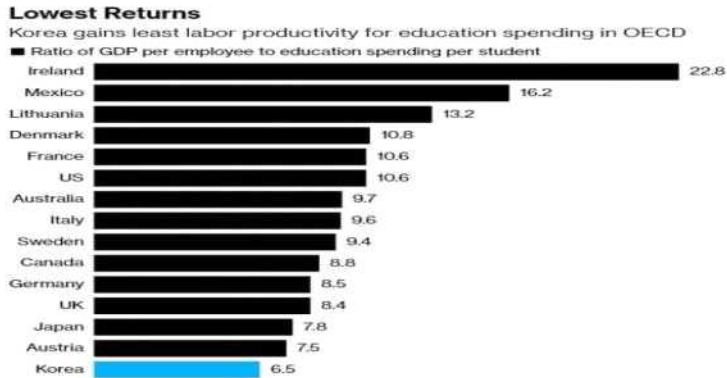
<표 1>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 가격

두 번째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서는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사회적으로 경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리고 현재 젊은 세대 중에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도 많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면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교육비가 든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따라서 자식을 가지고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높은 교육비 지출에 관한 자료도 있다. 『머니투데이』의 「"명문대 닷에 걸린 韓"...교육비 평평씨도 생산성은 OECD '꼴찌」 기사에서 송지유는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분석했더니 한국이 6.5배로 가장 낮았다고 전했다.”라고 말한다. ³⁾ 또한 이 비율은 낮을수록 교육비 지출액에 비해 근로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22.8배였다. 즉 한국은 아일랜드보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함에도 정작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낮아졌고 오히려 높아진 교육비는 저출산 문제를 만들어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실제 1950년대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국가가 불과 몇 십년 만에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높은 교육열 역시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높은 교육열로 인한 높은 자녀의 교육비는 저출산 문제를 만들어냈고 저출산

2) 신다미, 「떨어지는 청년층 내집마련?…서울 아파트 분양가 '경충」, 『SBS BIZ』, 2023.05.15.,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8058>, 2023.06.01.

3) 송지유, 「"명문대 닷에 걸린 韓"...교육비 평평씨도 생산성은 OECD '꼴찌」, 『머니투데이』, 2022.11.1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418552923587>, 2023.06.01.

문제는 한국이 미래에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높은 교육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명문대 진학같은 외부적인 성과만이 아닌 사람의 내부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ource: OECD, Bloomberg
* Spending in primary to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사진 3> 블룸버그의 OECD 회원국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GDP 비율 분석 결과

저출산의 세 번째 원인은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알려진 국가이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길에도 불구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경향신문』의 「“육아휴직 눈치”“일 비중 너무 높아”...일·가정 양립 지원 제의 현실」 기사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12월에 발간한 ‘일·가정 양립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보고서에는 임금 노동자들을 면접 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임금 노동자들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에서 김향미는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특히 5인 미만 기업에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한다. 4)그렇다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건 왜일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기존 인력에 대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공백을 채우는 것이 금전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같은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사용할 경우 재계약 시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은 휴직 기간만큼 승진이 미뤄지는 등 일과 육아의 양립을 이루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일과 육아의 양립을 이루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현명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겪은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늘날 저출산 문제와 거리가 멀 것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과거 저출산 문제를 겪었었다. 따라서 유럽의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

4) 김향미, 「“육아휴직 눈치”“일 비중 너무 높아”...일·가정 양립 지원 제의 현실」, 『경향신문』, 2023.03.20.,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3201300001#c2b>, 2023.06.01.

결책 구상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대표국으로는 북유럽의 스웨덴이 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 『매일경제』의 2023년 2월 22일자의 류영욱이 쓴 「“90일은 꼭 남성이 써라”…부부 육아휴직 의무화한 이 나라」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5명까지 낮아졌지만 2018년부터 1.7명 안팎으로 반등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었던 건 몇 가지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17만원 가량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아이를 또 낳는 부모의 경우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급여를 그대로 보장해주도록 하는 ‘스피드 프리미엄 정책’과 부모가 나눠 쓸 수 있는 480일의 육아휴직일 중 90일은 남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상당한 재정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다. 실제 스웨덴은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가족 지원 정책에 사용하여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많은 재정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지만 뜬 구름 잡는 정책이 아닌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해 정책을 추진했기에 합계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던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스웨덴만이 아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도 저출산 문제를 겪었지만 훌륭한 정책들을 내놓아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다. 『매일경제』의 2023년 2월 22일자의 류영욱이 쓴 「“90일은 꼭 남성이 써라”…부부 육아휴직 의무화한 이 나라」 기사에는 독일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도 나온다.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1990년대 1.3명이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1.58명이다. 독일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한 방법은 스웨덴과 유사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우선 독일은 아이를 낳으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3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이 아동 수당은 세 번째 자식을 낳을 경우부터 올라가고 또한 액수가 고정된 것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기에 유동적이다. 또 부모가 출산휴가를 내면 월급의 약 65%를 보조해주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며 육아에 드는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늘어나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사회적으로는 가사 분담 등 성 평등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했고 기업들이 탄력 근로제 등을 이용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했다. 독일 역시 이렇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 5)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올바른 정책의 방향성이다. 우선 많은 재정을 가족 지원 정책에 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족 관련하여 GDP 중 지출하는 비중은 1.2%이다. 6) 스웨덴과 독일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한 재정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적은 재정을 투자하면서도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 못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내놓은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해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출산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독일과 스웨덴의

5) 류영욱, 「“90일은 꼭 남성이 써라”…부부 육아휴직 의무화한 이 나라」, 『매일경제』, 2023.02.22., <https://stock.mk.co.kr/news/view/46610>, 2023.06.01.

6) 이민후, 「280조 쏟아붓고도 세계 꼴찌…저출산에 돈 더 태우라고?」, 『SBS BIZ』, 2023.03.01.,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5736>, 2023.06.01.

합계 출산율은 낮았던 시절에도 1점대였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이미 0점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합계 출산율은 한국의 미래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서울경제』의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쓴 2023년 2월 9일자의 「[로터리] 저출산·고령화와 한국 경제」라는 칼럼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저출산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나와 있다. 내용을 보면 저출산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심해지는 고령화 문제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하락에 영향을 미쳐 2020년대 중반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 전망된다. 또한 그와 함께 투자 역시 위축될 것이고 노동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국민연금의 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금이 줄어들면 투자 수익률 역시 낮아질 것이다.⁷⁾ 따라서 이렇게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독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부모들에게 도움을 되는 정책을 내놓아 아이를 가져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자연 소멸한 국가로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신진영, 「[로터리] 저출산·고령화와 한국 경제」, 『서울경제』, 2023.02.09.,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OO18UDM>, 2023.06.01.

참고문헌

- 강우량, 「1분기 합계출산율 0.87명, 7년째 역대 최저치 경신」, 『조선일보』, 2023.05.24.,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5/24/ZB757NZ6VNAA5O4Q6MGBH6UZW4/, 2023.06.01.
- 김향미, 「“육아휴직 눈치”“일 비중 너무 높아”…일·가정 양립 지원 제의 현실」, 『경향신문』,
2023.03.20.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3201300001#c2b>
, 2023.06.01.
- 류영욱, 「“90일은 꼭 남성이 써라”…부부 육아휴직 의무화한 이 나라」, 『매일경제』,
2023.02.22., <https://stock.mk.co.kr/news/view/46610>, 2023.06.01.
- 송지유, 「"명문대 뒷에 걸린 韓"…교육비 평평써도 생산성은 OECD '꼴찌'」, 『머니투데이』,
2022.11.1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418552923587>
, 2023.06.01.
- 신다미, 「멀어지는 청년층 내집마련?…서울 아파트 분양가 '굉충'」, 『SBS BIZ』, 2023.05.15.,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8058>, 2023.06.01.
- 신진영, 「[로터리] 저출산·고령화와 한국 경제」, 『서울경제』, 2023.02.09.,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OO18UDM>, 2023.06.01.
- 이민후, 「280조 쏟아붓고도 세계꼴찌…저출산에 돈 더 태우라고?」, 『SBS BIZ』, 2023.03.01.,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5736>, 2023.06.01.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관광경영학과 문*서

제가 들은 수업은 이상숙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인문사회글쓰기 화요일 3,4교시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말 그대로 글쓰기에 관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숙 교수님의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전부 수강한 후 느꼈던 것은 제 생각을 효율적으로 글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한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상숙 교수님의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수강하기 전의 저는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이를 발표하는 능력은 부족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숙 교수님의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다 듣고 난 후의 저는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에 있어 훨씬 능숙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PPT 같은 발표할 때 사용하는 시각 자료를 제작하는 것 역시 이상숙 교수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셨는데 그 결과 발표를 할 때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법,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간의 내용을 연결성 있게 구성하는 법 등을 익힐 수 있었고 수업 외에도 발표 할 일이 있을 때에도 이상숙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들이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숙 교수님의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에서 제가 좋게 느꼈던 또 한 가지는 실생활에서 글을 쓸 때 많이 쓰는 각주나 참고문헌에 관한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수업 외에도 글을 쓸 일이 있을 때에 이상숙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각주나 참고문헌에 관한 내용이 더욱 완성도 있는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상숙 교수님께서 인문사회글쓰기 화요일 3,4교시 수업이 끝날 때마다 내주신 과제들 역시도 수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숙 교수님께서 내주신 대부분의 과제는 매 수업마다 배운 내용을 직접 글로 써서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렇게 배운 내용을 직접 글로 써서 적용해보니 글을 쓸 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더욱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상숙 교수님께서 매 수업이 끝나고 내주신 과제 역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서 동상을 받은 것에도 이상숙 교수님의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에서 배운 것을 열심히 적용한 것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일별 공강의 장단점 분석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공강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자신에게 알맞은 공강 요일을 고려한 시간표를 잘 짜기 위해 시작되었다. 매년 대학생은 한 학기의 시간표를 본인이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입생은 시간표 작성이 처음이고, 어느 요일을 공강으로 두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이 선호하는 공강 요일인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공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공강인 학생 세 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해 공강의 장단점 및 만족도를 조사했다. 인터뷰 결과, 월요일과 금요일은 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점은 주말을 통해 본가에 방문하거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수요일 공강은 평일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일주일을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으나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매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존재하는 공강 요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공강, 장단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 학기 시간표를 짜 때 공강 요일에 대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공강 요일을 알고 알맞은 공강을 통해 한 학기를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연구의 목적이 공강 요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자신에게 유리한가에 있기에 대학생이 주로 선호하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공강인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알아낸 장단점과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상황에 따른 알맞은 공강 요일을 알아낼 것이다. 공강(空講)은 주로 대학교에서 앞의 강의와 뒤의 강의 사이에 강의를 없는 때 또는 하루에 강의를 한 개도 없는 날을 뜻한다.

매년 대학에는 새로운 신입생이 입학한다. 그리고 대부분 신입생은 자신의 한 학기 시간표를 짜는 경험을 처음 해보게 된다. 약 10년간 평일에는 학교에 가서 주어진 대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던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선택권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다. 하루를 공강 요일로 정해 통째로 쉬어서 대학생의 로망을 실현하고 싶어도 대학에 이미 아는 선배가 있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 신입생 대부분은 어느 요일에 쉬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서 시간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도움을 받기 위해 에브리타임¹⁾에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자와 질문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르므로 추천받은 공강 요일이 질문자에게는 큰 만족도를 끌어내지 못하기도 한다. 공강 요일을 정해두지 않은 채 시간표를 짜고 남은 요일을 공강으로 정하려는 신입생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강의 시간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망한 시간표를 갖게 될 수도 있고, 공강 요일이 사라져서 평일 모두 학교에 가야 하거나 한 과목 수업 때문에 공강이 깨져서 학교에 가야 하는 시간표를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공강 요일을 미리 정해두고 다른 요일에 수업 일정을 채우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인터뷰는 표준화된 개방형 면접 형식으로 약 10개 문항의 질문에 대한 대상자의 답변을 수집할 계획이다.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공강 요일의 장단점을 알 수 있도록 인터뷰 응답자의 환경이 다양하도록 선정할 것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으로 자취, 기숙사, 통학 여부를 나눌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 대학생이 화요일과 목요일 공강은 어중간해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이 선호하는 공강 요일인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대한 장단점 분석만이 이루어졌으며, 화요일과 목요일 공강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신입생이 각 요일에 대한 장단점 분석 내용에 본인의 상황 및 성향을 대입해보며 알맞은 공강 요일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간표를 정하게 되어 더욱 행복하고 알찬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2. 공강의 장단점 및 만족도 조사

2.1. 조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상황 및 특성을 반영한 요일별 공강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26일부터 약 3일간 학생 세 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개방형 면접 형식의 인터뷰를 시행했다. 1명의 인터뷰 대상자와 나눈 총 인터뷰 시간은 평균 약 20분이었다. 준비된 문항을 질문하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응답 대상자의 다양한 개인적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상황을 자취, 기숙사, 통학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주된 대상은 가천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조건인 가천대학교 1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1학기 시간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공강인 학생 중 자취, 기숙사 거주, 통학하는 학생을 겹치지 않게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질문 문항은 크게 처음 시간표를 짜 때 예상한 공강의 장단점, 실제 공강 요일의 장단점, 공강 요일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질문도 진행했다.

2.2. 연구 결과

2.2.1. 응답자의 정보 및 표준화된 질문 문항

1) 교내 익명 커뮤니티

<표 1> 인터뷰 응답자의 정보

	공강 요일	상황
학생 A	월요일	기숙사
학생 B	수요일	근거리 통학
학생 C	금요일	자취

공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의 차이가 기숙사 거주, 통학 여부, 자취 여부라고 경험에 근거해 판단했고 질문자의 주변 가천대학교 1학년 학생이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공강인 학우 중에서 각 상황에 겹치지 않도록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 학우는 서로 어울리는 무리가 다르며, 학과가 겹치는 인물이 존재하나 세 명의 학과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

응답자 A는 공강 요일이 월요일이고 먼 곳에 본가가 위치하기 때문에 2023년 1학년 1학기 동안 기숙사에 거주했다. 응답자 B는 공강 요일이 수요일이고 근거리를 통학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응답자 C는 공강 요일이 금요일이고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다.

<표 2> 표준화된 인터뷰 질문 문항

문항 내용
1. 공강 요일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2. 공강 날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3. 공강 요일을 설정할 때 예상한 장점이 무엇이었나요?
4. 공강 요일을 설정할 때 예상한 단점이 무엇이었나요?
5. 실제와 예상했던 장점에 차이가 있었나요?
6. 실제와 예상했던 단점에 차이가 있었나요?
7. 공강 요일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매우 불만족:1, 매우 만족:10)
8. 공강 요일이 자취/기숙사 거주/통학과 관련해서 특별한 장단점을 가지나요?
9. 다음 학기 시간표를 짤 때는 공강 날짜를 무슨 요일로 하실 건가요?
10. 어떤 분들에게 자신의 공강 요일을 추천하시나요?
11. 어떤 분들에게 자신의 공강 요일을 비추천하시나요?

선정된 인터뷰 대상자는 우연히 공강 요일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 본인의 주도 아래 공강을 만들고 한 학기를 보낸 가천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표 2의 문항 3과 문항 4는 공강 요일을 설정할 때 장점과 단점을 예상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구성했다. 표준화된 개방형 면접 형식에 따라 답변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했으며 답변에 어려움을 겪는 문항은 질문에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다. 수정 및 덧붙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공강의 장단점 분석 결과(2.2.2.~2.2.4.)에 이어진다.

2.2.2. 월요일 공강의 장단점 분석 결과

월요일 공강인 응답자 A는 본가가 멀어서 본가에 여유롭게 다녀오기 위해서 월요일을 공강 요일로 선택했다고 답했다. 답변에 대해서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을 공강 날짜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대부분 월요일보다는 금요일에 쉬는 사람들이 많아서 본가에 방문할 때 표 경쟁이 치열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을 공강 요일로 정했다고 답했다. 공강인 월요일에는 과제 또는 리포트를 작성하며 시간을 보내며 3일을 연속으로 쉬는 연휴를 즐기는 것을 기대하고 월요일을 공강 요일로 정했으나 실제로 겪어보니 예상보다 휴일이 3일인 것도 짧게 느껴졌으며, 본가에 방문하더라도 화요일 아침 수업을 듣기 위해 서둘러 돌아와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월요일을 공강 요일로 정할 때 월요일을 쉬게 되면 나머지 평일의 일정에 부담이 가게 될 점을 가장 우려했으며 예상한 단점에 비해 실제로 경험해보니 예상보다 더욱 힘들었다고 답했다. 월요일 공강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9점으로 거의 만족에 가까운 수치를 답했으며, 월요일에 쉬어서 좋으나 길게 쉬다 보니 날짜 감각도 사라지고 화요일 등 평일에도 점점 나태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답했다.

A는 다음 학기 시간표를 짤 때는 금요일이 공강 요일인 학생들이 많기에 함께 놀기에 더 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금요일을 공강 요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월요일이 괴롭거나 주말을 늘리고 싶은 사람에게 월요일 공강을 추천하며, 하루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든 사람에게는 월요일 공강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2.3. 수요일 공강의 장단점 분석 결과

수요일 공강인 응답자 B는 공강 요일을 넣고 싶은 마음에 시간표를 편성하던 중 수요일 공강이 설정하기 편해서 수요일을 공강 요일로 정했다고 답했다. 수요일을 공강 요일로 정하며 이틀간 등교를 하면 수요일 하루를 쉬고 또 이틀간 등교를 하면 주말이 오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수월하다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답했다. 답변 내용을 듣고 연속되지 않은 휴일이 연속된 휴일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욱 효과적인지 건넨 질문에 대해서, 한 번에 몰아서 쉬는 것보다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는 것이 학업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수요일에 과제를 몰아서 하다 보니 쉬는 의미가 없어져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수요일 공강은 월요일과 금요일 공강과는 다르게 숙박을 하는 여행을 가는 것이 어렵고 대

부분의 친구가 월요일과 금요일을 공강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친구와 만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과제와 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요일 공강이었다라도 숙박을 하는 여행을 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며 수요일 공강인 친구들도 꽤 존재하기 때문에 어울려 노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수요일 공강에 대해서는 7점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연속해서 쉬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워도 평일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것도 좋고, 공강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다고 답했다. 특히 수요일 공강은 통학과 관련해서 금요일에는 공강인 학생들이 많아서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다음 학기에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금요일에 공강이고 특히 지방에서 오고 가는 친구들이 금요일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에 금요일을 공강으로 둘 것이라고 답했다. 동시에 연속된 일정과 대인관계에 피로함을 느껴서 중간에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요일 공강을 추천하며, 과제를 미리미리 끝내고 친구들끼리 만나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나 한 번에 푹 쉬고 싶은 사람에게는 수요일 공강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2.4. 금요일 공강의 장단점 분석 결과

금요일 공강인 응답자 C는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금요일을 공강 날짜로 선택했으나 실제로 공강 날에는 주로 밀린 과제를 하거나 여유가 있다면 연인이나 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 금요일을 공강 요일로 정하며 금요일 공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수강신청이 어려울 것을 예상했지만 3일 동안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점을 기대했다고 답했다. 3일간 연속해서 쉴 수 있다는 장점은 월요일 공강일 때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을 진행했더니 주변에 금요일 공강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과 만남을 갖기 수월하다고 답변했다. 3일간 쉴 수 있다고 예상한 장점과 실제에 차이는 없었으며,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 단점과 실제에도 차이가 없었다고 답했다. 금요일 공강에 대해서는 10점으로 완전히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에 가는 등 다양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답변했다. 자취와 관련해서 금요일 공강이 갖는 장단점 및 특징은 없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 시간표를 짤 때에도 지금과 같은 금요일 공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와서 일주일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활력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금요일 공강을 추천하며, 금요일 공강을 비추천하는 이들은 딱히 없다고 답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공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인적 상황에 맞는 공강 요일을 찾을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천대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3명을 선정해 약 25분간 인터뷰를 시행했다. 인터뷰는 공강의 활용도를 알기 위한 장단점 및 만족도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월요일 공강인 응답자 A와 금요일 공강인 응답자 C의 답변은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 A는 여행, C는 본가 방문을 목적으로 떠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월요일과 금요일 공강은 주로 어딘가로 이동해서 시간을 보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기숙사 및 자취를 하는 1학년 신입생들은 월요일 또는 금요일을

공강으로 한다면 본가 방문이 여유로워질 수 있다. 응답자 C의 답변에 의하면 다음날 아침 수업까지 비워두는 것이 여유롭게 본가를 방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일 공강인 응답자 B의 답변을 본다면, 대체로 수요일 공강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소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고 동시에 목요일과 금요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시간을 더욱 효율적이고 알차게 사용하고 싶은 신입생에게는 수요일 공강이 도움이 될 것 같으나 응답자 B가 다음 학기 시간표는 연속으로 설 수 있는 금요일 공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금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이 쉽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수요일 공강보다는 금요일 공강이 더욱 낫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세 명의 응답자에게서 대부분 대학생의 공강 요일은 금요일이라는 공통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답변을 종합해보면, 3일 연속으로 쉬는 월요일과 금요일 공강이 수요일 공강보다 선호도가 높으며, 월요일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놀기 좋은 금요일 공강이 선호도가 높다.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에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입생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공강자의 답변을 보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공강 요일을 찾고 한 학기를 즐겁게 보내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요일과 상황을 고려한 세 명의 인원만을 탐구했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생이 애매한 화요일과 목요일 공강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공강에 대한 장단점 분석만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가 일반화되기 위해서 더 많은 대학생의 의견을 수집하고 다양한 요일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이 공강의 선호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과하지 않고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매년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이 존재하는데도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 연구가 확장되어 더 많은 신입생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적절한 공강 요일을 알고 시간표를 잘 짜서 아쉬움 없는 한 학기를 보내기를 바란다.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경영학부 박*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현목 교수님의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수강한 경영학부 23학번 박*현입니다. 2023년 1학기,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통해 작가는 맞춤법과 문법 교정을, 크기는 논문 양식 및 작성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데 몰라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며 한 번쯤은 사용할 것이고, 알아두면 분명히 유용한 지식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소논문 작성에 필요한 것을 학습하고 적용했기에 부족한 점이 많고, 그만큼 아쉬움도 남는 소논문 작성의 과정을 전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연구의 주제가 '요일별 공강의 장단점 분석: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중심으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떠올린 것은 맞으나, 그중 지금의 주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떠올린 주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던 저는 교수님께서 "주제 선정이 어렵다면, 가장 최근에 겪었던 불편이라 평소에 가진 불만을 떠올려라"고 해주신 조언을 들었고, 그와 동시에 방금까지 떠올린 많은 생각이 전부 쓸데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무엇도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던 사안인가?'를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감정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내가 곤란했던 경험, 도움이 필요한 문제점을 생각하자 시간표 작성에 문제를 겪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직한 시간표 작성은,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시간에 배치했을 때 공강이 생기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1학기 시간표를 작성하던 저는 욕심이 많았기에 어느 요일을 공강으로 할지도 정하지 못했으면서 무조건 한 요일은 공강으로 비워두고 싶었고, 결국 월요일과 금요일 공강 시간표를 각각 고려하며 남들의 2배로 고민했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고생이었지만, 그만큼 남이 시켜선 못 할 정도로 미련했던 경험이 떠오르자, 매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저와 같은 미련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순식간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물론 주제 선정 이후에도 연구 방식을 결정할 때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수업의 ppt를 펼쳐둔 채로 이것저것 참고해가며 차근차근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이후 연구의 틀이 잡히자 자료수집, 결과 정리, 소논문 작성의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구상한 연구와 소논문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후 소논문을 작성하자 만족감과 함께 소논문 작성 과제물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을 학습하고 특징을 암기하는 것은 절대 한 번 경험한 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청년의 대부분이 영어 교육을 받고 영어를 해석하는 데에 무리가 없지만, 막상 영어를 자유롭게 입에 담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습한 이론을 소논문을 직접 작성하며 적용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냥 이론을 공부할 때보다 훨씬 많은 복습을 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며 학습한 이론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기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에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통해 논리적인 글쓰기의 기초를 단단히 마련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론은 '편리'해서 '불편'하다.

'MZ 세대'라는 단어는 언젠가부터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 기업은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하고, 예능에서는 'MZ 오피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MZ세대'가 선호하는 명품, 근무 환경, 간식 등에 대해 보도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MZ'라는 단어는 세대를 구분 짓는 유용한 수단이 아닌, 특정 인물, 혹은 특정 세대를 조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가정해 보자. 잦은 지각을 하고, 업무 중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는 20대 신입 사원이 있다. 이를 보며 40대 과장은 요즘 MZ는 다 이러냐며 혀를 찬다. 이때 과장의 발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맹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는 신입 사원의 근무 태만은 세대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과장 역시 MZ세대라는 것이다. MZ세대, X세대, Y세대 등 사람들을 출생 연도에 따라 범주화하는 세대론은 각 세대 간의 차이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¹⁾ 이때 각 세대의 특징을 논하기 위해서 일반화는 필연적이다.²⁾ 그러나 명암이 공존하듯, 세대론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대론의 허점과 타 세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선, 세대론을 맹신하는 것은 각 세대에 낙인을 찍고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정 세대를 낙인을 찍고, 즉,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세대를 이해할 수 없다. 가령,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가, X세대(1970년대생)는 모두 '꼰대'라는 낙인을 찍고 X세대를 바라본다면, X세대가 어떤 조언을 하든 "또 '꼰대질' 시작했네."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다. 이는 Z세대로 하여금 그들보다 연륜이 있는 X세대의 충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그저 귀찮은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게 한다. 알고 보면 그 '잔소리' 속에 삶의 진리가 깃들여 있을지 모르는데도 말이다. 이때 세대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X세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중 약 40%가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을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뽑았다.³⁾ 즉, 세대론의 무조건적인 수용은 세대 간 이해를 불가하게 하며, 이는 곧 세대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세대를 구분하여 각 세대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세대론의 본래 목적과도 상충한다.

다음으로, 무분별한 세대론은 언론의 왜곡일 뿐이다. 예컨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은 각각 노년층, 청년층의, 특정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박근혜는 기초연금 등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를 내세웠고, 문재인은 반값 등록금 등 청년층을 위한 복지 제

1) "세대론", 『네이버 국어 사전-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c2675d0ba9641f7b1568a719124ae15>, 2023.05.22.

2) 미래팀, 「[취재파일] 대체 '민지'가 누구야? 」, 『SBS』, 2021.08.2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1080&plink=ORI&cooper=NATE#openPrintPopup

3)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 사회갈등의 원인 (1+2순위), 2023.06.09.

도를 내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당선에 대해 보인 2030의 반응은 언론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 한국일보에는 ‘한국에 50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동아일보에는 ‘일부 2030 엇나간 분노… “노인복지 폐지” 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 제목에서 명시적으로 ‘2030’과 ‘5060’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빨난’, ‘분노’, ‘엇나간’, ‘없애’ 등의 적대성, 거부, 부정의 자극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⁴⁾ 글을 살펴보면, 2030을 충동적이고 철없는 패륜아라 칭하거나, 혹은 5060을 기득권에 집착하며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이들이라 칭한다. 이는 특정 세대를 비난하며, 세대 갈등이 마치 어느 한 세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이다. 기자들은 이러한 세대론을 앞세운 보도 방식이 옳은 접근인지 아닌지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적절한 대체어가 없다.’, ‘기사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편향된 정보를 제공한다.⁵⁾ 다시 말해 모든 문제를 세대론으로 치환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게으른 보도 방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대론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즉, 세대론이 일종의 ‘수식어’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 그 수식어는 개인이 속한 학교, 성별, 세대 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수식어는 그를 설명하는 효과적인 도구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수식어만으로는 개인을 정의할 수 없다. 누군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더 세심하고 긴밀하게 그를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개인을 파악하려는 지극한 관심 없이, 세대론이 ‘만능해결사’라도 되는 것처럼 과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대론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 중 하나의 역할을 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세대론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대론은 편리하다. 세대론은 현재의 시대상을 읽어낼 때도 능력을 발휘하며, 시대 변화를 담아내는 은유로서의 매력을 갖기도 한다.⁶⁾ 그러나 세대론은 종종 세대 차이를 과장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하기도 하며, 지나치게 정치적 의도를 담아 생산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대론의 불편함을 뼈저리게 체감한다. 그러므로, 세대론을 편리한 도구로써 사용하려면, 우리는 세대론이 개인을 정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세대론은 세대의 경향성을 설명할 뿐이다.

포부가 무엇이나 묻는 제자 자로에게 공자는 “노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지(老人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라고 답했다. 노인으로부터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친구로부터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지며, 젊은이로부터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싶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공자의 포부에서, 우리가 타 세대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답을 발견할 수 있다. 배려와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대론에 기대어 개인을 속단하는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헤아리려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다른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성실한 태도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 하는가, 혹은 나태한 태도로 그들을 단정 지으려 하는가? 이 글이 성실한 마음가짐을 함양케 하는 촉진제가 되어 각 세대가 조금 더 다정하고 섬세한 태도

4) 조국현, 「 18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세대갈등’ 담화 분석 」, 『 독어독문학 』 제 126호, 한국독어독문학회, 2013, 215-239쪽.

5) 한나라, 「 이래도 ‘MZ세대’ 저래도 ‘MZ세대’…20대 기자의 반성문 」, 『 THEPR 』, 2021.12.07,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25>

6) 박재흥, 「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경제와사회 』 제 81호, 비판사회학회, 2009, 10-34쪽.

7) 김용옥, 『 논어 한글 역주 』, 통나무, 2008, 371쪽.

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참고 문헌>

- 김용옥, 『논어 한글 역주』, 통나무, 2008.
- 박재홍,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제 81호, 비판사회학회, 2009.
- 방정배(Bang Jeong Bae), 최세경(Choe Se Gyeong), 「"한국언론의 사회적 갈등담론 생산구조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3호, 2003.
- 조국현, 「18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세대갈등' 담화 분석」, 『독어독문학』 제 126호, 한국독어독문학회, 2013.
- 조현연(Cho Hyun-Yun), and 김정석(Kim Cheong-Seok), 「박근혜 정부의 '다원적 두 국민 전략'과 세대갈등.」, 『경제와 사회』 제 110호, 비판사회학회, 2016.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갈등의 원인 (1+2순위), 2022.
- 김윤철, 「갈등 부추기는 세대갈등론」, 『경향신문』, 2013.01.16,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301162137445#c2b>
- 미래팀, 「[취재파일] 대체 '민지'가 누구야?」, 『SBS』, 2021.08.2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1080&plink=ORI&cooper=NATE#openPrintPopup
- 심병절, 「사본오열 대한민국㉔ 갈등 부추기는 언론, 이대로 좋은가?」, 『대구MBC』, 2022.08.27, <https://dgmbc.com/article/8bE0kJUpVQ17TW6E>
- “세대론”, 『네이버 국어사전-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c2675d0ba9641f7b1568a719124ae15>, 2023.05.22.
- 이현미, 「"세대 간 도적질?"...갈등 부추기는 정치·정책 ['세대 갈등'에 멍드는 한국 - 신년특집]」, 『세계일보』, 2019. 01. 02, <https://m.segye.com/view/20190101002514>
- 한나라, 「이래도 'MZ세대' 저래도 'MZ세대'...20대 기자의 반성문」, 『THEPR』, 2021.12.07,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25>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경영학부 신*현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기 전, 글쓰기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두괄식으로 써야 한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지녀야 한다.’같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강의 중 설명해 주신 PREP 방식을 알게 된 이후, 훨씬 더 매끄럽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해보고자 한다.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내 글쓰기 습관 중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첫째로, 지금껏 은연중 PREP의 구성 요소 중, R과 E, 즉 이유와 사례를 혼동하고 있었는데, 1대 1 피드백 시간에 이에 대해 상세히 지도해주셨다. 둘째로, 사실 글을 쓸 때 구조를 따지지 않고, 그저 생각이 나는 대로, 속칭,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곤 했는데, 개요 짜기 과제가 있어 글의 구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며 더욱 짜임새 있고 탄탄한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따로 작문 학원이나 논술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상 시간을 들여 글을 쓴다 하더라도 글에 대한 세심한 피드백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 강의를 수강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소중한 기회라 생각한다. 사실 과제를 제출하며 타인에게 내 글을 보여주고, 또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고칠 점이 너무 많아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차후에 돌아켜보았을 때 그 순간들이 전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글쓰기 강의를 수강한 것은 글쓰기에 임하는 태도를 바꿔주는 등 자기계발에 큰 도움이 되었고, 덩달아 이렇게 글쓰기 성과 발표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정말 뿌듯하다.

간호법, 우리 미래를 위한 초석

간호사는 대부분의 의료전문직이 그러듯,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간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하여 전문적인 의료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현재, 주요 강대국들을 비롯해 90여개 국가에서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여태껏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타공인의 선진국 중 유독 대한민국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 2005년, 2019년에 간호법 제정이 연달아 좌절된 것과 달리 이번 제기된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무난히 제정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의사협회와 보건의료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토록 반대가 심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요성에 대해 따져보기 전에 이번에 건의된 간호법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자. 이번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되었다.¹⁾ 이에 따라 기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의 지도하에 보조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되면서 간호사들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기대되었다. 다만, 의사 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위의 내용은 다시 '의사의 지도하에 보조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보건의료협회는 간호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이 보건 의료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계 종사하는 많은 전문직 직종들이 단독법을 제정하려 할 것이며, 이는 현행 통합적 보건의료 체계의 통일성을 낮추고, 직종간 단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는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도 뒷받침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 세계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만큼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이다. 그렇다면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었는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들은 간호법이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세계 보건 총회에서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간호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를 세계 각국에 요청하기도 하였다.²⁾ 오히려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사와 간호사 및 다른 의료 전문직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다음으로,

1) 김세연의원 등 34인, 간호법안, 2019-04-05.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019652/detailR>, 2023-06-11

2) 송명환,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법이론실무연구>>, 313-341쪽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져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업무를 진행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만연해질 수 없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히 명시됨으로써 그 이상으로는 절대 의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된다. 지역 간의 충돌과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포장을 씌워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사협회는 반성해야 한다. 그들의 '이권' 다툼 보다는 간호 인력 충당을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이 먼저일 것이다.

다음으로 보건계에서는 간호법이 영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키며, 그들을 보조 인력화함으로써 직종간의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간호법을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로 간호법에서 명시된 영양보호사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 지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³⁾ 특히, 요양병원에서의 노인들은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고 돕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로, 영양보호사는 이미 다양한 의료시설에서 간호사들의 업무 지도를 받고 있으며, 간호법은 오히려 영양보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간호법에 규정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간호사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닌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간호사라는 직종만의 권익을 지켜세우기 위한 조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전반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간호인력을 충원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과 일치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헬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사가 타 전문직의 업무 분야를 침해하는 경우는 병원의 경영자인 병원장의 업무 수행 지시를 업무상 수직 관계에 의해 거부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⁴⁾ 그리고 이러한 침해 문제는 오히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확실시되며 해소될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발생할 긍정적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업무 범위가 명시적으로 정해지면서 간호 업무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⁵⁾ 사회적으로 의료분야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수행 업무 또한 복잡,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분야가 넓어지면서 간호사에게 부담되는 위험요소가 증가하여,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커지고, 과실책임을 간호사가 지게 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⁶⁾ 기존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정확한 업무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며, 책임 한계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간호협회장의 말대로 병원 내에서의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인 관계로 인해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고소와 고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간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간호 보조 업종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무분별한 의료 과실의 책임으로부터 간호인력들을 해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전문직간의 업무가 명확히 명시됨으로써 의료 사고 발생이 줄고 각 업무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점점 높아지는 간

3) 송명환,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법이론실무연구>>,2022, 313-341쪽

4) 이환희, <간협이 말하는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 헬스타파, 2022-12-02

5) 심세희, <간호법은 결국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것>, CHANNEL PNU, 2023-05-26

6) 송명환,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법이론실무연구>>,2022, 313-341쪽

호 인력의 수요와는 반비례하게 매우 높은 노동 강도와 그에 따른 대우가 낮은 이유 등으로 인해 간호 인력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년간 빠진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간호 인력의 가치와 필요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더욱 강력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창궐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에서 간호 인력의 충원 및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간호법 제정에 나선 강은미 의원은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은 7147개소로, 이 중 행정 처분이 이뤄진 횟수는 150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⁷⁾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소별 간호인력의 수가 법적으로 명시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에 걸맞는 인원이 충당될 것이다. 또한, 간호법을 기초로 간호인력에 대한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 의료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초석을 다질 것이다. 그 예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있다. 간호 인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장기요양과 방문 간호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미래를 대비하는 힘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한국은 눈에 띄는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출생률은 OECD 최하위를 기록하는 실정으로, 2025년에 들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⁸⁾ 이처럼 노인 인구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한국의 보건 의료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우리가 가진 보건 의료체계에서의 수요를 초월하는 양의 진료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진료체계는 ‘치료’의 관점에서 ‘예방’의 관점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의 관점에서 강조되었던 의사의 역할에 비해 ‘예방’의 관점에서는 많은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효율적인 대처방안으로써 보건 의료 개혁을 이루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감염병에 대처하는 데 있어 ‘치료’에서 ‘예방’으로 시선을 돌리는 혁신을 거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단연코 많은 의료 인력의 충원과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체계가 있다. 간호법 제정은 그러한 간호 인력을 충당하고 간호 인력의 권리 및 의무를 체계화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간호법의 시대적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간호법 제정을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만큼 간호법 제정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간호법은 절대 간호사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우리 의료체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7) 박서영, <간호인력 충원 법적 근거 마련될까? 정의당, 의료법 개정안 발의>, MEDICAL Observer, 2023-05-10

8) 박영숙, <2025년 초고령사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복지타임즈, 2021-10-13

[참고 문헌]

- 1) 김세연의원 등 34인, 간호법안, 2019-04-05,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019652/detailR>, 2023-06-11, 2023-06-12
- 2) 박서영, <간호인력 총원 법적 근거 마련될까? 정의당, 의료법 개정안 발의>, MEDICAL Observer, 2023-05-10
- 3) 박영숙, <2025년 초고령사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복지타임즈, 2021-10-13
- 4) 송명환,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법이론실무연구>>, 2022
- 5) 심세희, <간호법은 결국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것>, CHANNEL PNU, 2023-05-26
- 6) 이만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의료정책포럼, 2005
- 7) 이환희, <간협이 말하는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 헬스타파, 2022-12-02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약학과 은*녕

먼저, 2023-1학기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서 제가 수상을 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보건 글쓰기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으며 작성한 글을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건 글쓰기 수업은 20명 정원의 소규모 글쓰기 강좌로써, 수업을 듣는 의료계 전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글들에 대해 배우고 쓰는 수업입니다. 수업시간에는 앞으로 글을 쓰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출처 기입법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강조 하셨습니다. ‘간호법’이라는 제가 관심을 기울이던 주제에 대해 제 의견을 펼친 글이 수상했다는 점이 정말 뜻깊습니다. 글쓰기 성과 발표회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완성한 작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집중한 과정만으로 결과를 만들어 낸 점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을 쓰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글을 쓴다는 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해 경험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몇 번씩 되새기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내 생각이 더욱 세밀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선하면 좋을 부분으로는 글의 세부적이고 디테일적인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의 주장을 펼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덧붙이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근거 사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글을 쓰기 전 더욱 확실하게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글을 풍부하게 채워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상을 수상한 것에 그친 것은 작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다음 학기 또는 앞으로의 학부 과정에서 작성한 글들로는 더 높은 단계의 상을 수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치페이’: 대학생에게 적절한 계산 방법

밖에서 식사해야 할 일이 많은 대학생이 되고 나니, 친구나 연인관계 사이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때, 종종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가 직접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니 앞서 언급한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학습된 관습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나의 주장 및 근거와 그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으로 ‘더치페이’를 제시한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지불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는 돈을 더 지불하는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자진해서 나서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함께 식사한 사람들이 돈을 더 지불하라는 식의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사실 당사자의 개인 의지이기 때문에 문제 될 여지가 딱히 없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식사를 대접받는 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신이 동정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반박이 존재한다. 두 번째 경우에는 대개 농담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당사자로서는 꽤 곤란하고 민망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위기에 휩쓸려 돈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 돈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경우, 작거나 큰 감정적인 문제가 오갈 수 있다. 처음 몇 번은 작고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 시 그 문제가 쌓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평하지 못한 계산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평한 계산 방법인 '더치페이'를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권고하고자 한다.

대학생은 돈이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스스로 일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외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그 역시 부모의 돈이지 학생 본인의 돈이라 보긴 어렵다. 결국, 다른 사람을 책임질 필요도 없을뿐더러 챙길 상황도 넉넉하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둘 사람 중 아무리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더 풍족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 경제적 격차가 크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사람도 앞서 말한 예외적인 경우, 혹은 운에 의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뤄낸 여유일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결과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돈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더치페이'는 식사 때마다 누가 사야 하는지 고민이나 눈치 보기가 싫은 사람들을 위한 최적의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더치페이'의 지불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앉은 자리에서 각자 몫의 현금을 모아서 계산하는 방법, 한 사람이 먼저 계산하고 이후

에 각자 몫을 모으는 방법, 따로따로 각자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전에는 모아 내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인터넷 은행이 활발하게 사용됨으로 선 계산 후 이체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자동으로 더치페이를 계산해주는 앱과 카드사의 더치페이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할 줄 아는 연령층, 특히 대학생에게 '더치페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치페이의 장점은 신체 진 느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얻어먹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되기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나중에 기약하지 않아도 된다. 각자 계산문화가 보편화된 일본의 경우,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계산하는 식권 자판기를 설치한 식당이 많다. 우리나라 역시 각자 계산 시대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게의 입장에서는 더치페이를 받기 싫을 수 있다. 손님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계산 건수만 늘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소액결제 건수가 증가하면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도 존재한다. 카드결제 수수료란 고객의 카드결제 내역을 승인하고 중계해주는 밴(VAN)사에 카드사가 내는 돈이다. 문제는 이 수수료를 정액제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현재 정액제를 택한 곳은 롯데카드와 삼성카드인데, 고객의 결제 건당 100원 안팎의 수수료가 산정된다. 따라서 각자 계산으로 소액결제 건수가 증가하면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결제액 1만~2만 원은 건당 60원, 2만 원 이상은 건당 100원 등으로 수수료를 차별화하고 있지만 각자 계산으로 소액결제가 급증하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¹⁾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들로 대학생이 가지는 식사 자리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돈을 나누어 내는 '더치페이'가 가장 적절한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선 이체 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각자 먹은 것은 각자가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앞서 말한 더치페이의 사소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각자 계산 시대에 더치페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 모습을 기대한다.

1) 강윤경, 「함께 먹고 각자 내는 '더치페이' 확산」, 『월간 마이더스』, 2016. 10. 18,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61107202136_411672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한국어문학과 이*진

저는 한 학기 동안 인문사회 글쓰기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수업에서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사소한 부분부터 글의 구조가 되는 부분까지 넓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별생각 없이 써지는 대로 써왔던 저의 글을 구조적으로 분석해보면 꽤나 엉망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글의 구조를 잡는 법, 논리 구조로는 무엇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도 글의 중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제목을 짓는 방법 등을 배우며 작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 한층 더 나은 글을 만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피드백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에 팀원 한 명이 메모지에 피드백 내용을 꼼꼼히 적어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로 해주는 피드백도 좋지만, 메모지에 적어주니 이후 수정과정에서 그 메모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상기할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수정하면서 몇 번씩이나 읽어본 제 글이지만 눈치채지 못한, 오히려 너무 많이 읽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알 수 있어 고맙습니다. 또, 저 또한 다른 팀원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피드백을 하나하나 달면서 제 글에서는 그런 피드백이 달릴만한 부분이 없었는지 생각하면서 피드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팀원들끼리 모두 처음 본 사이라 그런지 일부 팀원들이 서로의 글을 읽기만 하고 피드백하지 않고 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다음 수업에서는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교수님과 일대일 면담 대면을 20분 정도 가졌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으며 글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편협하게 생각한 부분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해주셨고 그런 피드백들이 저의 글을 한층 더 강화해주었습니다.

의료윤리 이론과 의료인의 윤리

목차

1. 들어가며
2. 의료윤리학 개론
3.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의 균형
4. 의료인의 윤리
5. 나가며

1. 들어가며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보건 의료 이용 횟수가 가장 높고 의료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도 평균보다 높으며 의료비는 평균보다 약 1%가 낮은 수치¹⁾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의료 수준 속에서도 각자 생각하는 의료, 생명윤리는 다를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부분에서의 인공지능 기술도 언급되고 있지만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로 의료윤리나, 의료인의 윤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이 주목받고 있기에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적 관점에서 윤리 이론과 의료인의 윤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의료윤리에 관련된 고민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의료윤리는 의료인들의 업무 수행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의료인들은 다양한 윤리 이론을 이해하고 태도와 고려를 바탕으로 의료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펼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리안느 텔벗의 의료윤리학 개론²⁾을 기반으로 의료윤리학 개론의 딜레마를 서술하고 유수정과 최경석의 의료윤리학 담론³⁾을 통해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의 균형에 관해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정신분석학 담론⁴⁾의 초자아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윤리, 자세에 대한 글을 진행한다. 나아가 결론에서 정리를 하며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 연구 방향에 관해서 서술할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의료윤리학 개론에서 검토하는 대표적인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 의무주의, 덕윤리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공리주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중요시한다. 반면에 의무론은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덕윤리는 이러한 접근과 다르게 도덕적인 가치를 근거로 한

1) 김은호,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보건복지부』, 2022. 7. 29,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297, 2023. 6. 16.

2) 마리안느 텔벗, 『생명윤리학』, 강철 외 7인 역, 정담미디어, 2016, 35-53쪽.

3)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현대 생명윤리의 쟁점들』, 로도스출판사, 2014, 11-35쪽.

4) 지크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2020, 349-413쪽.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도덕적인 행동과 선택이 곧 올바른 행위라고 말한다.

2. 의료윤리학 개론

우선 공리주의에 대해 더 깊게 파고들어 보자. 공리주의는 사건 내 당사자들의 행복의 총합이 최대가 될 때 결과주의로서 행위의 결과를 우선시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공리주의의 유형은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⁵⁾가 존재한다. 이 두 유형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다. 드라마 내에서 전공의 3년 차가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 안내할 때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를 들은 교수는 전공의를 불러 직설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 꾸짖는다.

행위 공리주의는 행동의 윤리성을 오로지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이론이다. 위의 예시로 봤을 때 의사가 보호자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위 공리주의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하얀 거짓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규칙 공리주의는 행동의 윤리성을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특정한 규칙이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옳은 행동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의사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 의료적으로 윤리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 거짓말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위의 예시에서 전공의가 한 말은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의료적 관점에서 규칙 공리주의는 의료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적인 원칙과 규칙들을 정립하고 준수함으로써 의료인의 행동을 평가한다.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는 각각 다른 가치와 원리를 강조한다. 의료윤리학 개론에서는 이 두 이론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선택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문제에 따라 유연하게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행위 공리주의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두 이론 모두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원초적인 목표, 사건 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이라는 문구를 주목하자.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이라는 수단에 제한되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는 곧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를 주장하는 의무주의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행위 공리주의는 당사자들의 여러 관점과 상황에 더 다양화된 시각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기에 더 큰 틀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와 다르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를 주장하는 이론인 의무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의무주의는 행위의 결과나 목적보다는 도덕적인 의무와 규범에 중점을 둔다. 의무주의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도덕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도덕적인 성취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는 다르게 주장한다.

규범이 있다는 점에서 규칙 공리주의와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규칙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사회 전체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규칙을 강조한다. 반면에 의무론은 도덕 규칙을 따르는 것 자체를 옳은 행위로 판단해 도덕 규칙을 강조한다.

의무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해진 규범에 맞춘 절대적인 행위의 경계가 존재해 절대주의

5) 장운혁,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간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6-34쪽.

로 표상된다. 또한 공리주의와 다르게 사건 내 당사자들을 넘어선 모두가 평등하다고 보고 ‘도덕법칙⁶⁾’을 중요시한다.

3.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의 균형

의료윤리학 담론에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공리주의)와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의무주의)의 균형을 위한 접근방식으로 ‘반응적 공동체주의⁷⁾’를 제시한다. 이는 개인선과 공동선 양자의 균형을 목표로 하며 개인의 권리, 공동체의 가치 그 무엇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두 핵심적인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당 사회 상황과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현재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접근해 보자.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체세포 복제 배아나 산전 검사를 통한 질병 검사, 유전자 조작, 보조 생식술 등 여러 생명과 직결된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 의무론자는 이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기시한다. 하지만 공리주의자는 당사자들의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행해질 수 있다고 여긴다. 반응적 공동체주의는 둘의 중립을 유지하며 해당 사회의 방향과 반대되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어떤 한 관점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면 법 제정 같은 사회적 개입을 통해 반대 관점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도, 사회적 인프라 개선을 통해 반응적 공동체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공동선과 개인선을 동시에 형성하며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현 사회의 문제 해결에 사회적 인프라 개선을 적용해 보자. 공동선을 위해서는 출산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면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출산 후 육아 휴직이나, 양육비 지원, 경력 단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출산을 증가라는 공동선 증진과 함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개인선도 증진시키며 조화를 불러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선 증진을 위해 개인선이 침해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해주는 법으로는 ‘안락사’가 있다. 국내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지만 연명치료의 유보와 중단 과정만 일부 2018년에 합법화⁸⁾되었다. 이는 ‘안락사’라는 법이 공동체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개인선을 침해하기 때문에 예외적 허용 조건을 추가해 개인선을 법이 포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적 공동체주의의 접근법을 보면서 덕윤리를 함께 떠올릴 수 있다. 덕윤리는 일련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품성과 도덕적 가치를 의미하는 ‘유덕함’을 강조한다. 개인이 주어진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해 반응하면서도 도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를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두 이론은 유사하다.

4. 의료인의 윤리

6) 보편화가 가능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는 준칙.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행위의 보편적이고 절대적 도덕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다.

7) 유수정, 「자유주의적 생명윤리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 접근법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82-96쪽.

8)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B0%EB%AA%85%EC%9D%98%EB%A3%8C%EA%B2%B0%EC%A0%95%EB%B2%95>, 2023. 6. 18.

의료인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추구하는 윤리적 자세의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한다.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인의 윤리는 "인간이 어느 수준까지 윤리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유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이 가장 윤리적일 수 있을 때는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라고 생각한다. 임신 기간 동안 부모는 아기를 위해 약 40주 동안 자신의 영양분을 희생하며 헌신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엄마의 모성은 우리 모두에게 '초자아⁹⁾'로서 남게 된다. 초자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만큼 온기와 한기로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온기¹⁰⁾를 느꼈다면 안정적이고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한기¹¹⁾를 경험했다면 소극적인 자세와 불안감 등을 평생 동안 동반할 수 있다. 초자아는 무의식으로서 이드¹²⁾에 평생 동안 남기 때문에 온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의료인은 직접적으로 환자와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의료인의 윤리에서 초자아적 온기는 중요하다. 의료인의 초자아적 온기는 환자에게 안정감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의료인이 환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의미한다. 환자들은 의료인의 돌봄과 배려를 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며 신뢰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적인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인은 환자와의 라포¹³⁾ 형성을 통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초자아적 온기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초자아적인 온기는 의료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어려운 윤리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의료인은 자신의 초자아적인 가치와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환자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초자아적인 온기를 실천하는 의료인의 역할이다.

초자아적인 온기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인은 의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접근성, 평등성,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환자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자세와 초자아적 온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의료윤리학에 관한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다뤘다.

우선 의료윤리학 개론의 딜레마를 이루는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윤리학은 의료 과정에서 윤리적 의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며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며 차이점을 위주로 글을 전개했다.

또한,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의 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료윤리학 담론에서는 반응적 공동

9) 본래 자기를 만든 부모의 존재에 대한 기억. 무의식의 깊은 영역에 존재하며, 개념적으로는 가장 초기에 형성되는 자아의 부분이다.

10) 부모의 관심과 사랑

11) 부모의 무관심, 차가운 반응

12) 쉽게 말해서 '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머리는 많이 있어도 몸은 절대 잊지 않기 때문에 이드는 '완벽한 기억장치'라고도 불린다.

13)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상담, 치료, 교육 등은 특성상 상호협조가 중요한데 라포는 이를 충족시켜주는 동인이 된다.

체주의라는 접근방식을 제시하며, 개인주의(공리주의)와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의무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의 윤리에 대해 탐구하였다. 의료인은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초자아적 온기를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지원해야 한다. 의료인의 초자아적 온기는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전달하며 신뢰감을 형성한다. 추가로 의료인의 윤리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의료인은 의료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직업윤리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미래 연구 방향으로 의료윤리학은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급속하게 변화하는 의료기술에 발맞추어 발전해야 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윤리적 도전과 딜레마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윤리학은 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반영하고 의료인들에게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료윤리학은 의료 현장에서의 윤리적인 결정과 의사소통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자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기관과 전문가들이 윤리적인 원칙을 준수하며 의료인이 직업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의료윤리학의 개론과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의 균형, 의료인의 윤리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의료윤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주제를 다루는 일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의료윤리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논의되지 않은 다른 측면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마리안느 텔벳, 『생명윤리학』, 강철 외 7인 역, 정담미디어, 2016, 35-53쪽.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현대 생명윤리의 쟁점들』, 로도스출판사, 2014, 11-35쪽.
- 지크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20, 349-413쪽.
- 장운혁,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간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6-34쪽.
- 유수정, 「자유주의적 생명윤리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 접근법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82-96쪽.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물리치료학과 임*찬

학과 특성에 맞는 의료 보건 글쓰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다른 글쓰기 관련 강의와 비슷하게 각 주 다는 법, 띄어쓰기 표기 등 기본적인 문장 구성과 글쓰기에 대해 배웠다. 이런 기초적인 수업 내용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의료 보건’ 글쓰기 시간이 시작되었다. 의료윤리학 개론, 의료윤리학 담론을 통한 대표적인 윤리 이론인 덕윤리, 의무주의, 공리주의를 의료적 관점에 입각하여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의료윤리학 개론의 서평 쓰기를 과제로 진행함으로써 윤리 이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조사하면서 의료 윤리의 딜레마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후 같은 강의 내 학우들과 “어떠한 윤리 이론을 지지해야 할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각 이론의 특성을 파악하며 결국 이 이론들이 서로 융합되어야 겠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마지막 기말고사 대체 과제인 의료 윤리이론과 의료인의 윤리에 대해 글을 작성하면서 나의 주장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나중에 내가 실무에 나가서 치료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계획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이로써 기초부터 속이 짝 찬 핵심 내용들을 알차게 배우면서 학과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꼭 빠져 몰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지속적으로 '언론인'이라는 꿈을 목표로 삼고 준비하였다. 누구보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시사 관련 비교과 활동도 많이 하여 자부심도 많았다. 하지만 원서를 쓸 당시에 사건 사고들로 가득 찬 뉴스는 대중의 부정편향을 강화한다는 것을 깨달은 뒤 이 꿈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후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갈등 토론, 소논문작성을 하며 관심이 생긴 무역학으로 진학 목표를 바꾸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항상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가 가득했던 나는 이 실패로 충격을 받고 크게 좌절하였으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입시 실패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타인이나 사회를 탓하기만 했다. 지금 되돌아보아도 우울감과 좌절감으로 긴 기간 동안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고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마음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거나 고민을 들어주고 버스 기사님 같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 및 배려로 선한 행동을 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려 했다. 이후 비록 사소할지는 몰라도 긍정적인 마음이 모여 우울하기만 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였다.

심리적 안정을 찾은 뒤 나는 본격적으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하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들에 관한 답을 깊게 생각해 보았다. 언론 분야같이 꿈을 좇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이 즐겁고 꿈을 이뤘을 때 성취감과 일을 하면 할수록 창의적인 생각이 더 떠오르는 꿈 말이다.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경험은 큰 가치를 가지며, 이로써 자신의 인생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각자 성격이 다른 동아리(야구, 경제) 활동을 하여 취미나 관심사를 확장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약 두 달 간 4권의 책을 읽으며 지식 확장 및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배낭여행을 계획하여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쌓아 세상을 더욱 넓게 보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내면을 재발견하고 성장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자극과 영감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내가 가장 설렘던 것은 한정된 과목만 배우는 고등학교와 달리 배우지 않았던 다양한 학문을 깊게 배울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제한된 시야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을 기회이며, 다양한 직업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평소에 관심을 둔 '무역학' 수업을 들으며 내가 진정으로 좋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관세사'라는 직업에 관해 관심이 가졌다.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 장단점을 잘 찾아보고 관세사 길을 택한 선배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맘껏 물어보았다.

또한 비록 문과 출신이지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코딩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연마해 내 장점 중 하나로 만들려 한다. 현재 파이썬 언어를 독학하고 있으며 점차 흥미를 붙이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소프트웨어 학과에도 선배님들에게 취직, 수학 활용, 창의력 계발 능력 같은 질문들을 하여 1학년 말에 선택할 전공을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나는 주체적으로 대회 및 공모전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창의적 사고를 위한 몰입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또한, 스피치 대회를 준비하며 말하기 능력 향상, 글쓰기 클리닉을 받으며 글쓰기 능력을 향상해 나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자기 발전에 대한 열망을 실천하는 한편, 끊임없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1학년 때부터 나는 누구보다 많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소중한 20대 시절과 '자유전공학부'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나의 꿈'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경험을 쌓고자 한다. 나는 매일같이 꿈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역경을 다시 마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실패와 역경을 겪으며 지금 내가 그러듯이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어 전혀 두렵지 않다.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발견한 내면의 열정과 즐거움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이 되어 결국 나는 미래에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자유전공 정*준

나에 대해 되돌아보거나 나의 과오 등을 생각할 기회는 드물었지만 성찰하는 글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기회에 대해 생각해봤다.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실패를 겪은 후 나의 20대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기도 하였다. 대학교 1학년이 된 후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지만 직접 글을 구체적으로 쓰니 스스로 나아가야 하는 지향점을 설정한 계기가 된 글이다. 나와 관련된 성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쓰고 사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은 글을 만드는 것도 알게 되었다. 글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최대한 글을 읽는 독자가 처음부터 내가 쓰는 글에 흥미를 갖도록 노력하여 모두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사례 혹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내 최대한 단조로운 글이 아니도록 노력했다

본격적인 글쓰기 실습 전 교수님이 항상 ppt로 성찰하기 글, 주장하는 글에 맞는 서론, 본론, 결론을 설명해주시고 개요 짜기에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글을 처음 쓸 때 항상 막막하고 글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요를 짰 뒤 크게 도움이 되어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글에 방향을 주었다. 또한 수업시간에서 좋은 글을 위해서는 독서를 습관화하여 다채로운 글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셨다. 이처럼 교수님이 조언해주신 것처럼 방학 때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책을 읽으려 노력하려 하고 최대한 남는 시간을 이용해 독서를 하려 한다.

연차와 비례하는 커리어, 몬스타엑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6인조 보이그룹 몬스타엑스(MONSTA X)가 오는 7월 잠실 KSPO DOME(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양일간 (7월 8일-9일) 7기 팬 콘(팬미팅 + 콘서트)을 진행한다. 이들의 단독 콘서트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SK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던 NO LIMIT 투어 서울 콘서트 이후 9개월 만인데, 공익 근무 요원으로 멤버들 중 처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졌던 리더 셔누가 돌아오고 다음 군 입대 멤버인 민혁이 자리를 비워 완전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점, 5일 열렸던 팬클럽 선 예매에서는 모든 자리가 매진되어 팬덤의 티켓 파워를 보여준 점이 흥미롭다.

몬스타엑스는 올해 데뷔 8주년을 맞이하여 연예계에서 연차가 꽤나 쌓인 아이돌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매 활동마다 자신들의 성적을 갱신하는 '커리어 하이'의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2015년 5월 14일 데뷔 후 용산구의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약 3000명 수용 가능)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것에서 시작하여 2017년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약 4000명 수용), 2018년 장충체육관(약 4500명 수용), 2019년 SK 올림픽핸드볼경기장(약 7000명 수용)을 거쳐 데뷔 8년 차에 마침내 체조경기장(약 15000명 수용)에 입성하였다. 앨범 초동 또한 데뷔 초 1400여 장에서 시작하여 2019년 정규 2집 앨리게이터(Alligator)를 통해 처음 초동 10만 장을 넘긴 후, 꾸준히 성장하여 2021년 미니 10집 러시아워(Rush Hour)로 28만 장이 넘는 초동 판매량을 보여주었다. 그 후로도 컴백할 때마다 초동을 갱신하여 마침내 2023년 미니 12집 뷰티풀 라이어(Beautiful Liar)를 통해 약 32만 6천 장을 판매, 역대 최고의 자체 초동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데뷔 후 7년이 지나면 소속사와의 재계약 문제나 개인 활동에 대한 의견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멤버 구성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운 팬의 유입보다 기존 팬들의 이탈이 많아져 팬덤의 화력이 떨어지는 등,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들의 사례와는 다른 이례적인 경우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데뷔 9년 차에도 꾸준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얻는 몬스타엑스의 인기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함께 알아보자.

(1) 희소성 있는 콘셉트

몬스타엑스는 데뷔곡 '무단침입'에서부터 '히어로', '파이터', '드라마라마', '앨리게이터', '갬블러', '러브 킬라', '러브', '뷰티풀 라이어'까지 강렬함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콘셉트를 선보이며 몬스타엑스만의 음악적 장르를 확고하게 다져나갔다. 청량함, 소년의 이미지를 주로 내세우는 다른 그룹이 몬스타엑스처럼 섹시하고 강렬한 콘셉트를 추구하지만 그에 비해 너무 어리고 앳된 외모로 콘셉트와 비주얼이 잘 어우러지지 않는 경우와 달리 몬스타엑스는 멤버 전원이 콘셉트에 어울리는 비주얼을 갖춰 투피엠을 잇는 차세대 '짐승돌'의 콘셉트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 몬스타엑스는 음악으로 보여주는 강렬한 색깔과는 대비되게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드라마라마), '너와 나 사이 두 점을 이어 시간과 공간의 선을 넘어'(팔로우), '미

친 듯이 원하고 증오해'(러브 킬라) 등 오직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솔직한 가사로 그룹의 이미지에 대해 '콘셉트와는 다르게 가사만 보면 순 사랑한다는 소리만 하는 그룹'이라는 코멘트가 달려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2) '짐승돌' 비주얼

몬스타엑스는 예전부터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짐승돌'로 유명했던 올라운더 핫가이 셔누부터 단단한 코어의 소유자 기현, 운동을 즐겨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운동에 소질이 없는 것은 아닌 민혁, 짐승돌 사이 한 떨기 장미와도 같은 여리하고 가녀린 체형에서 2020년부터 시작한 운동을 통해 다른 멤버들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된 형원, 탄탄한 하체로 무대 후에도 주저앉지 않는 강철 체력의 주현 그리고 2020년 '판타지아' 활동을 기점으로 운동과 관리의 효과를 톡톡히 보며 비주얼이 제철이라는 뜻의 '제철창균'이라는 별명을 얻은 아이엠까지 모두가 '짐승돌'에 제격인 비주얼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의 건강한 비주얼이 받쳐주는 덕에 근육이 돋보이는 스타일링을 하거나 체인 장식, 시스루 소재를 활용한 과감한 무대의상 등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스타일링이 멤버들의 비주얼과 어울려 그들의 독보적인 콘셉트와 잘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따로 또 같이' 개인 또는 유닛 활동

몬스타엑스는 멤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발휘하는 능력치도 출중하다. 기현은 격한 퍼포먼스에도 안정적인 라이브가 돋보이는 보컬 실력자로, 다수의 ost와 두 차례 솔로 앨범을 발매하며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지금은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민혁은 네이버 나무에서 '보그싶쇼' 시즌 1.2의 호스트를 맡아 장기간 동안 다양한 게스트들을 만나며 민혁만의 예술적 감각과 화려한 입담을 뽐냈다. 형원은 음악방송 인기가요의 고정 MC로 활동하며, 동시에 배우로서의 활동 또한 보여주었다. 그는 2021년 웹드라마 '다시 플라이'에 출연하여 첫 주연을 맡았고, 올해 방송 예정인 코미디 드라마 '사장돌마트'에서 해체된 아이돌 멤버이자 마트 사장으로 분해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현은 현재 음악방송 엠카운트다운에서 고정 MC로 매주 활약하고 있고, 5월 22일 앨범에 수록된 전곡을 자작곡으로 구성한 앨범으로 솔로 가수로서의 데뷔를 치렀다. 그룹 단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통해 잔잔하고 섹시한 무드를 보여준 아이엠 또한 오는 6월 23일 새 소속사에서 내는 첫 솔로 앨범으로 팬들을 만난다. 또 7월에는 셔누와 형원이 그룹 내 첫 유닛으로 데뷔하여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군대 문제로 팬들에게 완전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때 각자의 능력을 살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완전체를 기다리는 팬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 있다.

(4) 끊임없는 소통과 높은 참여도

아이돌에게 있어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다. 몬스타엑스는 소통에 있어서도 활발한 편에 속한다. 멤버들은 지난 5월 공식 카페에 도합 46회 글을 남겼는데, 멤버 별로 개인차가 있겠지만 매일매일 카페에 찾아와 글을 남긴 것과 같다. 멤버들은 공식 카페 이외에도 각자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근황을 알리거나 유료 메신저 '버블'을 통해 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특히 기현은 스케줄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거의 항상 버블 라이브를 켜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을 하며, 소통왕 멤버로 꼽힌다. 이런 몬스타엑스의 활발한 소통은 팬들로 하여금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멤버들은 프로듀싱이 가능한 멤버

형원, 주현, 아이엠을 주축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는데, 주현은 2021년 '갬블러'를 시작으로 '러시아워', '러브'를 타이틀곡에 올린 바 있다. 멤버들은 앨범 참여 외에도 팬들과의 소통으로 자체 콘텐츠 '몬먹어도 고'의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콘서트에서 선보일 유닛 무대를 결성하고 음악방송 엔딩 무대에서 팬들이 원하는 포즈를 보여주는 등 팬들의 피드백을 잘 반영하여 쌍방으로 원활한 소통이 되는 느낌을 준다.

(5) 변함없는 협업과 신뢰

올해로 데뷔 9년 차인 몬스타엑스에게도 재계약의 고비가 다가온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소니 뮤직 코리아로 이적한 아이엠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원래 소속사 스타쉽에서 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다고 멤버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유일하게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을 끝으로 새 동지를 찾은 아이엠은 공식 팬카페에 게시한 자필 편지로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될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기에 이적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히며 "언제나 그랬듯 몬스타엑스 활동은 나에게 중요하고 몬스타엑스는 6명으로 몬베베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이엠은 2022년 말 소니 뮤직 코리아로 이적하여 새 동지를 둔 이후에도 2023년 1월 단체 앨범 '리즌'으로 컴백했고, 몬스타엑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되는 자체 콘텐츠인 '몬먹어도 고'에서도 모습을 보이며 몬스타엑스의 일원으로서 함께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헤이즈의 앨범 수록곡에 깜짝 피처링으로 함께 하거나, 개인 화보를 촬영하고 앨범 작업도 간간히 해오는 등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활동도 보여주면서 다양한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소속사를 이적함에도 변함없이 멤버 전원이 협심하여 단체 앨범을 발매하는 경우는 몬스타엑스 이전에 소녀시대, 투피엠, 티아라, 카라, 갓세븐뿐이다. 소속사가 달라지면 스케줄 조정이나 의견 조율에 있어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몬스타엑스의 완전체 컴백이 얼마나 더 의미 있는지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몬스타엑스는 아이돌 시장에서 희귀한 강렬한 콘셉트와 짐승돌 비주얼, 각자 위치에서 보여주는 활발한 개인 활동과 수시로 진행하는 팬들과의 소통, 완전체 재계약이 불발되어 일부 멤버의 소속사 이적이 일어나더라도 모두가 한 팀이라는 원팀 정신이 확고히 보이는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연차가 쌓여가고 군대로 인한 공백기(일명 '군백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도 팬들이 더욱 유입되어 활동마다 더 큰 화력을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실력, 팬 사랑, 비주얼 등 아이돌로서의 인기 덕목에서 어느 하나도 뒤지지 않으며 꾸준히 더 나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마땅하다. 앞으로도 그들의 활발한 활동을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몬스타엑스 공식 카페, https://m.cafe.daum.net/monsta-x/_rec
보스, "그냥 정리해 본 몬스타엑스 역대 초동", 2022.01.11
<https://blog.naver.com/cherryblssom/222617887429>, 2023.06.07
에딘, "몬스타엑스 가사가 재미있는 이유" 2022.02.09,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257887&memberNo=47077221&vType=VERTICAL>, 2023.06.07
이승훈, "몬스타엑스, 체조경기장 접수..팬콘 초고속 매진", 2023.06.06,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3060613085913771>, 2023.06.07
정희연, "몬스타엑스 아이엠, 소니뮤직코리아 전속계약" ,2022.11.15,
<https://sports.donga.com/ent/article/all/20221115/116480166/1>, 2023.06.07
정은영, "소속사도 다른데 개인 이익 포기하고 '완전체'로 꾸준히 뭉치는 아이돌 6팀",
2022.08.31, <https://www.insight.co.kr/news/407955>, 2023.06.07
최송희, "[아티스트 돋보기] 몬스타엑스 형원의 인향만리", 2023.04.06,
<https://www.ajunews.com/view/20230405173244047>, 2023.06.07
최송희, "[아티스트 돋보기] 몬스타엑스라는 장르", 2023.01.18,
<https://www.ajunews.com/view/20230118033405853>, 2023.06.07
황혜진, "공백기가 뭐죠? 몬스타엑스, 각개전투도 짜릿 [뮤직와치]," 2023.05.10,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305101342080410 , 2023.06.07

2023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미술·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 정*윤

필자가 수강한 글쓰기 수업은 진철아 교수님의 '인문사회 글쓰기'로, 한 학기 동안 두 개의 글을 완성하고 한 차례의 팀플 발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쓴 글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타인에게 소개하기 위한 '매뉴얼' 형식의 글로, 같은 대주제를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상의 하에 각자 소주제를 맡아 글을 완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글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글은 '문화비평문' 형식으로, 자유로이 주제를 잡아 글로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과정을 가졌다. 본인이 제출한 글은 '문화비평문' 형식의 글이다.

글을 쓰는 수업이다 보니 기한까지 글을 완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주된 과제였고, 시험은 중간고사 1회만 치러졌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다 설명해주실 뿐 아니라 시험 전에 시험범위를 정리한 요약본을 올려주어 수월하게 시험공부를 할 수 있었다. 또 이론은 간결하게 끝내주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글을 쓰는데 할애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주셨다. 덕분에 수업시간에 바로바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과제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도 특특히 보았다.

글에 관한 교수님의 피드백은 대면, 비대면을 불문하고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학교 1학년을 지내고 있다 보니 체계적인 작문과정을 거쳐 글을 쓰는 게 처음이라 주제 선정부터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주제 선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시기도 했고,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본문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잘 지적해주셔서 글의 수정도 어렵지 않게 완수할 수 있었다.

'인문사회 글쓰기'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글쓰기의 과정을 몸소 느끼고 내 힘으로 양질의 글을 처음 완성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라고 느꼈다. 이 수업에서의 기억이 앞으로 내가 써야 할 모든 작문과정의 탄탄한 기초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